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당신의 비즈니스를 위한 솔루션 - FDC
뱅크 오브 호프
초이스 & 프리미어 체킹
Bank of Hope

중일일보

“최고” Greenway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응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RIGHT 2023 제 6773호

Monday, October 9, 2023 A

이스라엘·하마스 전면전 50년 만에 신중동전 악몽

(新)

하마스 로켓 7000발 등 육해공 기습
이스라엘 “하마스 파괴” 즉각 반격
양측 최소 사망 970명, 부상 4200명
레바논 헤즈볼라도 가세, 확전 조짐

유대교 명절을 노린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지난 7일(현지시간) 새
벽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본토가 사
상 초유의 대규모 피해를 보았다. 이스
라엘이 자랑하는 저고도 방공망 ‘아이
언 돔’과 세계 최고 수준인 정보기관
모사드의 정보력도 무용지물이었다.
1973년 이집트·시리아가 유대교 명절
(욘 키푸르)에 이스라엘을 습격한 ‘욘
키푸르 전쟁’(4차 중동전쟁) 이후 50년
만의 일이다. 이스라엘은 즉각 “하마
스를 파괴하겠다”며 “전쟁”을 선언했
다.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

라도 이날 이스라엘 북부 군사시설을
공격하면서 가세해 이번 무력충돌이
‘5차 중동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대교 명절인 ‘십칠 토라’ 연휴 첫
날인 7일 하마스는 예루살렘의 알아
크사 사원(모스크) 이름을 딴 ‘알아크
사 폭풍(A1 Aqsa Storm)’ 작전을 개
시했다. 하마스가 쏜 로켓 7000여 발은
철통같은 방공망으로 알려진 ‘아이언
돔’을 뚫고 최대 도시 텔아비브를 비롯
한 중·남부 지역을 타격했다. 수백 명
의 하마스 전투원은 픽업트럭과 오토
바이, 모터보트, 패러글라이더 등을
이용해 이스라엘 마을 20여 곳과 군 기
지에 침투했고, 이스라엘 군인 50여 명
과 민간인 다수를 포로와 인질로 붙잡
아 가자지구로 끌고 갔다.
이스라엘은 즉각 대규모 보복을 천

명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
리는 “우리는 길고 어려운 전쟁을 시
작하고 있다”며 “하마스가 있는 모든
곳, 숨어 있는 모든 곳, 활동하는 모든
곳을 폐허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곧바로 ‘철검(Swords of Iron)’ 작전에
돌입해 가자시티와 칸 유니스 등 가자
지구 일대 하마스 관련 시설 426곳을
공습했다.

무력 충돌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인
명피해가 커지고 있다. 하마스 공격으
로 이스라엘에서 최소 600명이 숨지
고 2048명이 부상했다고 예루살렘포
스트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
했다.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받은 가
자지구에서는 사망자 370명, 부상자
2200명이 넘었다.

이승훈·김상진·김성미 기자

▶ 2면 ‘신중동전’으로 계속, 관계기사 2·3·6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지난 7일(현지시간) 로켓 7000발을 쏘고 육·해·공 전투원을 투입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다. 이스라엘군은 즉각 보복공격을 결행해 가자지구 하마스 관련 시설을 공습했다. 사진은 이스라엘군 폭격으로 가자시티 고층건물이 화염에 휩싸인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형제 쏜 뒤 경찰 총에 사망

필라델피아 한인 추정 남성
아들 “삼촌과 인쟁중 쏘다”

필라델피아에서 한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본인의 형제에게 총격을 가하
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도 총격전을
벌이다 사망했다.

필라델피아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4
일 오후 7시쯤 필라델피아 북동부 지
역 휘태커애비뉴에 위치한 한 주택에
서 마이클 황(42)씨가 인쟁중이던 남
성에게 총격을 가했다.

당시 주택 안에서 상황을 지켜본 12

세 소년은 “아버지와 삼촌이 말다툼을
벌이다 격해졌고 아버지가 2층에서 총
을 가져와 삼촌을 쏘다”고 경찰에 진술
했다.

이후 황씨는 방탄조끼를 착용한 채
주택 밖에 나와 경찰을 기다렸고 현장
에 도착한 경관이 총을 버리라 명령했
지만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경관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경관 두 명은 다리에, 나머지 한 명
은 왼손 손가락에 총상을 입었다. 이어
경관들이 황씨에게 총격을 가했고 그
는 현장에서 사망 했다. 모든 것이 불

과 20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경찰은 황씨가 실탄 11발이 장전된
글록 권총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으며,
비디오 게임과 연관된 가정 내 문제가
발생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

범원 기록에 따르면, 황씨는 권총 소
지 혐의로 지난 5월 체포됐으나 지난
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총에 맞은 황씨의 가족과 경관 1명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
관 2명은 사건 발생 후 입원했지만, 현
재는 퇴원했다.
윤지혜 기자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의원 Dr. 김용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센터빌
703-830-4422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재질
순금 여기 플랜지링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미용사
초빙합니다.
경력자 우대
410-988-5523

형사법 전문 변호사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DAVID MARKS**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안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에릭 저젠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Martindale-Hubbell
NOTABLE
Peer Rated for Strong Ethical Standards 2019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이스라엘판 9·11 테러” ... 모사드도 아이언돔도 뚫렸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방공 시스템)

모사드, 하마스 움직임 포착 실패
음악축제장 피바다 “수백명 실종”
하마스, 이스라엘인 인질로 끌고가
하마스 돕던 이란, 전쟁 개입 가능성

▶ 1면 ‘신중동전’에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정예 특수부대 ‘고스트’ 사령관 로이 레비 대령이 남부 레임 키부츠(집단농업 공동체)에 침투한 하마스 대원과 전투 도중 전사했다고 타임스 오브이스라엘이 전했다.

지난 7일 이스라엘 동남부 네게브사막의 음악 축제장에서 하마스의 로켓 공격과 무장대원 총격을 피해 달아나던 참가자 수백 명이 실종됐다고 뉴욕 타임스(NYT)는 전했다.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접경지대에 있는 행사장에서 유대 명절인 ‘초막절(수코트)’을 축하하기 위해 전날 오후 11시부터 밤새 열린 야외 축제였다.

사상자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어 피해 규모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최악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NYT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리적 충격이 9·11 테러와 맞먹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 남부 브엘세바에 거주하는 교민 박해영씨는 8일 중앙일보에 “집 근처에서 열 차례 정도 미사일 공습경보가 울렸고, 경보 약 5초 전후에 미사일을 요격하는 폭발음이 들렸다”면서 “두 차례 정도는 집이 흔들릴 만큼 가까운 곳에서 요격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간 하마스 측과 무력 충돌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던 이스라엘은 충격에 빠졌다. 하마스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실패를 놓고 이스라엘군 내에선 “이스라엘에 진주만 공습이 현실이 됐다”(조너선 콘리커스 IDF 국제담당 대변인)는 쓴소리가 나왔다. 이브라힘 달랄샤 호라이즌센터 소장은 포린폴리시에 “이번 공격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본 것과 다르다”며 “(하마스의) 전략적 변화이자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 여파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대적인 지상군 공격을 벌여 일시적으로 점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리처드 헛트 이스라엘 방위군(IDF)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자지구의 통제와 안정화로 향후 12시



간 동안 가자지구 전체를 통제하고 모든 테러리스트를 사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군사전문가 요

나 제리미 바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침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중동 주변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헤즈볼라는 8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 분쟁 지역인 세바 농장 지대의 이스라엘 초소를 “박격포로 공격했다”며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의 조너선 파니코프중동 국장은 “만약 헤즈볼라가 개입하면 이스라엘은 수십 년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전국적 전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전쟁이 하마스를 지원해 온 이란과 이스라엘, 나아가 이란과 미국 간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승호·김상진·김שמ기 기자

이스라엘 동시다발 다면전 직면하나 헤즈볼라 등 적진 단결

이스라엘군이 남부지역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이틀째 무력충돌을 벌이는 가운데, 북부지역에서도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가세하면서 양면전에 직면했다.

이란을 중심으로 ‘저항의 축’을 자처하는 반이스라엘 진영의 단결이 가속함에 따라 이스라엘이 동시다발 다면전에 직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8일(현지시간)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침투한 남부지역에서 8곳에서 교전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북부지역에서는 헤즈볼라가 레바논 및 시리아와 접경한 골란고원의 이스라엘 점령지 ‘세바 팜스’에 여러발의 로켓과 박격포를 쏜 뒤 배후를 자처했다. 이에 이스라엘군은 포탄이 날아온 레바논 남부를 겨냥해 보복 포격을 가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가 하마스의 대이스라엘 공격에 개입하면서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헤즈볼라는 하마스의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영웅적이고, 승리로 가득한 전투”를 축하했다. 헤즈볼라는 이어

아랍·이슬람 국가들을 호명하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터알레마이네차이퉁(FAZ)은 전했다.

헤즈볼라는 소위 저항전의 전우들이 말과 행동, 피의 단결을 보여줬다며 팔레스타인 무장세력과 직접 접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야아틀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군사고문은 “하마스의 자랑스러운 전투”라고 밝혔다.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는 “가자지구로부터 촉발된 폭풍은 요르단강 서안지구는 물론 우리 민족과 국민이 있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는 7일 친 팔레스타인 시위가 벌어졌다.

레바논 주재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헤즈볼라 전문가인 니콜라스 블렌포트는 FAZ에 “많은 조직이 이번 기회를 활용하고 싶어 쏠이 쏠이”라며 “이번 공격은 어마어마한 상징적 힘을 내재한 공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엄마 이스라엘 여행 중인데...” 가족들 발동동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는 없어
정부, 이스라엘 특별여행주의보

“어머니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가계신다. 여행사에 문의했더니 안전하다면서 일정 변경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고, 여행을 취소하고 돌아올 경우 비용 역시 전혀 지원받을 수 없다더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과 이에 맞선 보복 공격이 계속된 8일, 현지로 여행을 떠난 가족을 둔 시민들은 종일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스라엘 여행을 계획했던 시민들도 혼란 속에 하루를 보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단체여행 등 목적으로 이스라엘에 단기 체류 중인 한국인은 360여 명으로 추정된다. 장기 체류 중인 국민은 예루살렘 290여 명, 텔아비브 등 중부 지역 210여 명, 기타 지역 70여 명 등 총 570명이다. 현재까지 한국인의 피해가 확인된 바는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가족이 체류 중인 사람들은 정확한 현지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불안감을 호소했다. 현지에 머물고 있는 일부 한국인은 체류 중인 지역에서 이스라엘 최대 도시인 텔아



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교통편,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인근 국가 등으로 출국하기 위한 항공편 등을 다급하게 수소문하고 있다.

일주일째 세 번 이스라엘 직항편을 운항하는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긴급 회의를 열어 9일 출발 예정이던 인천발 이스라엘 텔아비브행 항공편(KE957)을 운항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현지

체류객 귀국 지원을 위해 9일 벤구리온 공항의 안전을 확인한 뒤 인천행 항공편(KE958)은 출발 시각만 늦춰 운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11일 이후 항공편 운항 여부는 추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이스라엘 내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보람·김민정 기자

워싱턴 날씨 (°F)

10월(화)	69~45	13일(금)	69~58
11일(수)	71~49	14일(토)	63~51
12일(목)	75~54	15일(일)	59~48

10월 9일(월) 65~45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벤돈 메트로 옆 타운홈 특정 RENT \$2,850/m 방3, 화장실2½, 차고2, 새 부엌, 그리나잇, 새 냉장고, 전체 새 페인트	헤이마켓 콘도 특정 \$440,000 방2, 화장실2, 차고1, Under Contract, 유닛 마감 End Unit!!!	그레이트폴스 싱글홈 \$1,500,000 방4, 화장실4, 차고3, 10에커, 멋진 플로터일!
---	--	---

메디케이드 (QMB 또는 CCC) + 메디케어 이신 분들 **상담환영!** (버지니아 지역)

메디케어

1959년생이신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65세가 넘어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

무료 상담

FIRST SENIOR SERVICE LLC.

To speak with a licensed agent
703-256-0300

AM 1310
매주 월
오후 1시 방송

- 메디케어 신청
- 어드밴티지 보험
- 처방약 보험
-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 메디케이드+메디케어

*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Any information we provide is limited to those plans we offer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or 1-800-MEDICARE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 For accommodation of individuals with special needs, please call <703-256-0300>/TTY:711.

버지니아 (VA) 7535 Little River Tnpk., #325D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 메릴랜드 (MD) 8600 Snowden River Parkway Ste 300 Columbia, MD 21045 (다운 회계법인 조동구 CPA)

로켓 공격, 후방 게릴라침투 ... “하마스, 북한식 하이브리드전”

(유사시 시나리오)



1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7일(현지 시간) 새벽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인 '아이언 돔'이 8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 날아온 로켓을 요격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남부 아슈켈론에서 포착됐다. 하마스는 육·해·공으로 전투원을 이스라엘에 침투시켰다. 2 팔레스타인인들이 7일 이스라엘에서 민간인을 납치하고 있다. 3 가자지구 시민들이 8일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주변을 살피고 있다.

(로이터·AP·AFP=연합뉴스)

하마스, 패러글라이더로 국경 넘어 SNS로 잔인한 영상 유포 혼란 유발 공격루트 다양, 전황 파악 어려워

하마스 “이스라엘 만행에 대한 공격” “사우디 유대국 인정 협상 방해” 분석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지난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가한 대대적인 공격을 놓고 북한이 한국을 향해 준비하는 하이브리드전의 양상을 미리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규전은 물론 비정규전을 아우르는 기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이스라엘 상황이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아침 하마스는 수천 발의 로켓포로 선제공격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은 이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다. 미국·이스라엘이 공동 개발해 2011년 배치되기 시작한 아이언돔은 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명중률이 90%를 넘는 것으로 평가됐지만 짧은 시간 비처럼 쏟아지는 로켓포 앞에선 무기력했다.

북한군은 하마스는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대남 포격 전력을 갖췄다. 북한군 주력 장사정포는 자주포와 다연장로켓포(방사포)로 구성돼 있다. 물량과 성능, 평소 훈련 등 모든 측면에서 무장 정파 하마스를 압도한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1000여 문 이상의 장사정포를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배치했다. 이 중 최대 340문에 달하는 170mm 자주포 및 240mm 방사포가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하마스의 로켓포를 뛰어넘는 이들 포를 모두 동원할 경우 1시간에 1만 6000여 발을 수도권에 쏟아부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마스는 로켓포 공격으로 이스라엘

엘군을 혼란에 빠뜨린 뒤 전동 패러글라이더를 탄 대원을 국경 너머로 침투시켰다. 이스라엘 내부로 침투한 하마스는 군인과 민간인 수백 명을 인질로 잡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관련 영상을 공개하며 공포감을 극대화했다. 이 같은 하이브리드전은 북한이 그간 준비해 왔던 대남 전쟁 공식이기도 하다.

하마스는 패러글라이더를 썼는데 북한 특수부대가 활용하려는 침투 수단 중 하나는 글라이더다. 소형 군용기 An-2 300대에 글라이더를 매달아 특수부대를 후방 지역에 침투시키는 비정규전 작전이다. 북한은 2021년엔 폴란드산 PZL 계열 경비행기를 운용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 기종 역시 글라이더를 견인할 수 있어 특수전에 적합하다.

하마스의 SNS 심리전처럼 북한은 선제공격을 시작하면 잔인한 공격 사진과 영상 등을 SNS에 뿌려 한국 사회에 패닉을 유도하려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때 정부 수뇌부 사망, 한국군 패퇴 등의 가짜뉴스도 활용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칼리드 카도비 하마스 대변인은 알 자지라 방송에 “이번 공격은 팔레스타인이 수십 년간 겪어온 이스라엘의 모든 만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해 17년째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생필품 반입을 통제하는 강력한 봉쇄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마스가 자신들의 입지가 크게 좁아지는 중동 평화 무드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BBC는 “사우디와 미국 간 협상이 ‘유대국가 인정’으로 향하는 듯한 전례 없는 외교의 시간이었는데 하마스가 이 회의장에 수류탄을 던졌다”고 했다.

이근평·이유정 기자

바이든 “미국은 이스라엘편” 모든 지원 약속

미국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규탄하며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일 긴급 연설을 통해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 서 있다”며 “우리는 그들의 뒤를 지키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고 하마스 공격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피해 상황 및 미국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의 끔찍한 공격을 명백히 규탄하며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을 위해 모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8일 중앙일보의 관련 질문에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의 긴

네타냐후와 통화, 하마스 공격 규탄 유럽 주요국 “이스라엘 자위권 지지”

장 고조와 폭력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관련 당사자들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즉각 휴전하며 민간인을 보호하고, 상황의 악화를 방지할 것을 호소한다”는 대변인 답변을 보내왔다.

가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하마스의 공격과 관련해 “죄없는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데 대해 강하게 비난한다”고 썼다.

영국·독일 등 유럽 주요국 외교장관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습격이 중동 전체를 위협한 상태에 빠뜨렸으며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8일 보도했다.

러시아는 7일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논평에서 “팔·이 양측에 즉각적인 휴전, 필요한 자제, 장기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협상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형구·신경진 특파원



바이든

중앙일보 광고·구독문의: 703-281-9660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옹호자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따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너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너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3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 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입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Magna Cum 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진료 과목

- ☑ 자동차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www.carefreelandus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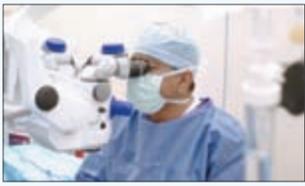
엘리콧시티 (410)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센터빌 (703)830-4422
13890 Braddock Rd. # 200
Centreville, VA 20120

차세대 녹내장 관련 장치 이식 성공

글로벌 차병원 바이오그룹이 운영하는 미국 내 유일한 한인 소유 종합 병원 할리우드 차병원의 최고의료 책임자이자 안과연구센터 총책임자인 로희 발마 박사가 세계 최초로 차세대 녹내장 방수 유출 장치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할리우드 차병원의 로희 발마 박사가 세계 최초로 차세대 녹내장 방수 유출 이식 수술을 집도하고 있다. [차병원 제공]

이식된 캘리브리아이 시스템(Calibre System)은 환자의 개별화된 치료 계획에 따라 적정 수준의 방수(눈 속의 체액) 유출을 녹내장 전문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이다. 수술을 집도한 발마 박사는 “다른 녹내장 방수 유출 장

치들과 달리 더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개별 환자에게 맞는 안압 관리가 가능해졌다. 녹내장 관리에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말했다.



LA도 매년 10월 9일은 한글날 6일 LA시의회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기리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열린 LA 한글날 선포식에서 허더 허트(앞줄 왼쪽부터) 10지구 시의원, 모니카 류 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 김영란 LA총영사, 이석 황실문화재단 이사장, 존 이 12지구 시의원 등 참석자들이 결의안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상진 기자

내년부터 전기차 사면 즉시 7500불 할인

내년 1월부터 전기차를 구매할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액 공제를 살 때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전기차 구매시 세금보고 때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신 구매 시점에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칙 변경안을 6일 발표했다. 새 방안 따르면 소비자는 전기차를 구매할 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혜택을 자동차 판매업체에 넘기고 그만큼 미리 할인받을 수 있다.

IRA에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한 새 전기차가 부품 조건 등을 충족할 경우 최고 7500달러의 혜택을 제공하는 내

용이 담겨있다. 다만 이 금액은 구매 뒤 세액공제 방식을 통해 다음에 돌려받는 구조였다.

재무부의 이번 규칙 변경안은 소비자에 대한 전기차 지원 혜택을 구매 시점에 당기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구매 시점에 소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가격을 낮춰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이번 규칙으로 친환경 차량 구매의 초기 비용이 절감돼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자동차 판매 업체들은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정일 기자

한남체인 노조결성 여부 13일 발표

한인 커뮤니티의 대표적인 슈퍼마켓인 한남체인 노사가 노동조합 설립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개표가 보류됐던 LA한남체인 직원들의 노조가입 결정 관련 투표 결과가 빠르면 오는 13일 공개된다.

연방정부 독립기구인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규정에 따르면 이날 개표 결과 과반수 찬성표가 나오면 노조 결성이 가능해지는 만큼 노사 양측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남체인을 대변하고 있는 ‘반스앤 톰버그 로펌’의 담당 변호인은 6일 본지와 통화에서 “오는 13일 오후 2시 전국노동관계위원회 지부 사무실에서 투표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로써는 찬성표가 과반수가 안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반대 결과가 나올 것을 대비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NLRB 관계자는 “개표 결과 찬성표가 과반수가 넘으면 노조 결성을 승인받을 수 있게 된다”며 “만일 한남체인이 개표 후 1심 결과에 항소하면 항소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정식 노조 활동은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NLRB는 지난 2일 지난 8월 실시된 한남체인 종업원들의 노조가입 결정투표 진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와 협박 등이 발생했다는 한남체인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LA한남체인 직원들은 지난 8월 3일 마켓 주차장에서 노조가입 의사를 묻는 투표를 했다. 하지만 투표 현장에서 뇌물수수, 협박 등의 부정행위 신고가 접수되면서 개표가 보류됐다.

당시 투표소와 투표 절차를 관리 감독한 NLRB LA지부 사무실은 투표함을 압류하고 신고내용을 조사해왔으나 지난 2일 증거 불충분을 들어 기각했다.

NLRB는 판결문에 “사측이 주장한 투표 강요 행위나 직원들의 표를 위해 뇌물을 주거나 위협을 가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반스앤 톰버그 로펌 측은 “당시 투표 전후로 노조결성 지원 세력이 한남체인 직원들에게 투표를 강요하거나 협박을 했으며 기프트 카드를 뇌물로 제공하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조사 과정에서 이를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고 인정받았음에도 이러한 판결이 나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불법 행위에 대해 인정받은 자료가 있는 만큼 항소를 하게 된다면 재심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LRB 규정에 따르면 한남체인은 오는 16일까지 항소할 수 있다.

장영희 기자

‘해변으로 가요’ 키보이스 박명수 별세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해변으로 가요) / 젊음이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해변으로 가요)’

제일동요 이철씨가 작사·작곡해 그룹사운드 키보이스의 한국어 번안곡으로 크게 히트한 1970년대 인기곡 ‘해변으로 가요’를 부른 박명수(사진)씨가 5일 미국에서 세상을 떠났다.

키보이스 원년 멤버인 김홍택씨와 박



성서 대중음악평론가 등에 따르면 그는 8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942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0년대 중반 김신·이진 등과 함께 4인조 그룹 ‘바보스(Babos)’를 결성하며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1969년 옥성빈·장영·조영조·오정소 등

과 키보이스 2기를 결성했다. 고인은 팀에서 세컨드 기타(리듬기타)를 맡았다.

키보이스는 1970년대 초 ‘해변으로 가요’, ‘바닷가의 추억’ 등 히트곡을 배출하며 전성기를 구가했다.

고인은 1970년대 후반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과 라스베이거스 등지에 머물렀다. 틸립이 한국을 찾아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고인은 약 4년 전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정 기자

한인업주 살해용의자 체포 ‘구치소 구금’

워싱턴주 타코마 지역의 편의점 한인업주 찰리 박씨 총격 살해 용의자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역매체 코모(KOMO)는 지난 3일 오후 1시쯤 편의점에 들이닥쳐 업주인 찰리 박(한국명 박석철)씨를 총격 살해한 10대 무장강도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6일 보도했다.

엔젤 앤서니 멘데스(18)와 신원이 밝

혀지지 않은 16세 용의자는 나란히 1급 가중살인, 1급 살인, 2급 폭행, 1급 강도의 혐의로 피어스카운티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 피어스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두 용의자 모두 성인으로 간주해 기소될 예정이다.

이날 새롭게 드러난 사실로 사건 당시 달아나는 용의자들을 목격한 한 시민은 “용의자들에게 ‘멈춰라’고 소리쳤

지만 그중 한 명이 내 차를 향해 총격을 가한 뒤 도주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박씨의 장례비 등을 위해 유족이 10만 달러를 목표로 모금 중인 고펀드미 페이지(www.gofundme.com/f/charlies-legacy-lives-on)에는 6일 오후 4시 30분 기준 2만377달러가 모였다.

김예진 기자

자동차노조 “파업 확대 중단”…배터리 공장 등 쟁점 협상 진전

라 우리 노조와 업계의 미래를 변화시킬 중대한 돌고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UAW는 지난달 15일 포드, GM, 스텔란티스 등 ‘빅3’ 자동차 업체의 공장 3곳에서 동시 파업을 시작했다. 이후 파업은 2만5천명가량이 참여하는 규모로 확대됐다. 그동안 노조와 사측은

릴레이 협상에도 주요 쟁점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UAW는 향후 4년에 걸쳐 최소 40% 임금 인상, 전기차 생산직 고용 안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UAW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의 노동자 또한 노조 협약 대상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이들 공장

대부분이 외국 기업과 합작벤처로 세워졌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GM의 경우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사 엘티에스엘을 설립, 미국에서 3개 배터리 공장을 가동 혹은 건설 중이다. 볼륨버그 통신은 GM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터리 공장 노동자들을 UAW 협약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

은 협상 과정이 남아있지만, 이같은 움직임은 포드와 스텔란티스도 같은 입장을 취하도록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UAW는 GM뿐 아니라 다른 2개 업체와의 협상에서도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포드는 처음 9%로 제시했던 임금 인상률을 향후 4년에 걸쳐 최대 23%까지 올리자고 제안했다. 스텔란티스와 GM은 20%를 제시했다.

사상 초유의 동시 파업에 들어간 자동차 노조가 6일 협상 진전으로 파업을 확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발표는 제너럴모터스(GM)가 전기차 배터리 공장 노동자들을 전미자동차노조(UAW) 협약 대상으로 포함하는 데 동의한 직후 나왔다.

손 페인 UAW 위원장은 이날 “우리는 협상을 극적으로 바꿀 뿐 아니



〈문&박 합동법률사무소〉는 1984년 이래로 지난 38년간 워싱턴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교육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 인권위원회, 소수계학생문제 자문위원회 등 지역 주류사회에서도 적극 활동하며, 한인동포 여러분을 위해 정확하고 친절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지식
오랜 경험



취급 업무

민/형사 소송, 교통사고, 학생/취업/연수/종교/투자 비자, 각종 이민, NIW, 추방재판/면제, 손해배상, 가정법, 사업체/부동산 매매, 영리/비영리 회사설립, 임대차 계약, 고용 관계, 유서 작성, 상속 수속, 이혼, 입양 등

문일롱 변호사

- Harvard 대학
- William and Mary 법과대학원
- 페어팩스 카운티 5선 교육위원(전)
- 페어팩스 카운티 Planning Commissioner(전)
- 버지니아 주지사 도시정책 자문위원(전)
- VA, MD, DC 변호사 자격

박상근 변호사

- 서울 법대, 대학원 졸업
- George Washington 법대 법학 석사
- 전 Fairfax County 인권위원회 부의장
- 전 버지니아 주의회 이민난민 정책위원
- 전 북미주 기독교인협회 총연합회 회장
- VA, MD, DC 변호사 자격

임현식 변호사

- 아메리칸대학교 로스쿨 졸업 (Juris Doctor)
- 아메리칸대학교 비즈니스쿨 졸업
- 전 대한민국 경제 5단체 한국무역협회 소속변호사 (한미통상담당)
- 전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교육청 자문위원 (소수계학생문제)
- VA, MD, D.C. 변호사협회 정회원

우시영 변호사

- Georgetown 법대 법학 석사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 주요 일간지 이민 법률 상담 변호사
- 전 아태법률구조센터(APALRC) 법률 통역
- 전 LG에서 채권 및 담보 업무 담당
- VA, NY 변호사 자격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대표전화 703-941-7395

www.moonparklaw.com
7617 Little River Tpke., Suite 800
Annandale, VA 22003

한미국가조찬기도회 성료... “기도로 일어나 뜻을 이루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지난 7일, 제 18회 워싱턴한미국가조찬기도회(회장 윤필홍, 이사장 서욱자)가 개최된 열린문장로교회(김용훈 담임목사)에는 이른 아침 찬양 소리와 뜨거운 기도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윤필홍 회장은 “우리는 기도의 부름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며 “요즘 성경적 가치관에 대항하는 인본주의 사상과 문화의 흥수에 휩쓸려 가고 있다”면서 “이럴수록 예수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켜주고, 나라와 자녀사랑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 주여 감사하다”며 참석자들을 환영했다.

이어 코린티아 분(수도권 국가기도의 날 의장) 박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는 내용으로 기도한 후, 조엘 박, 그레이스 박 여사가 구약(이사야60:1), 신약(마태복음17:7) 성경말씀을 봉독했다. 이어진 미국 및 한국 국가 제창 후에는 주미대사관 조기중 총영사와 백악관 신앙기반 이웃 협업담당



제18회 한미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김필립씨가 양국 대통령 메시지를 대독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원섬 일시어스 버지니아 부지사를 비롯해 찹 피터슨, 아 이린 신, 팻 헤리티 의원 등 정치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제 이슨 미야레스 법무장관은 영 상메시지를 보내왔다.

한미국가조찬기도회 고문 류용렬(와 신통중앙장로교회) 목사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기도”임을 강조하며 “한국은 일제 치하 및 6.25전쟁의 난국속에서도 기도로 일어난 나라이고, 미국 역시 그렇다”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국과 미국에 축복의 강물을 흐르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 하시고, 그 뜻을 이루신다”고 말했다.

서욱자 이사장의 소개로 연단에 오른 기도연설자 해리 플레처(Harry Fletcher·사진) 박사는 “예수 정신으로 다시 태어나 세계를 구해야 한다”면서

“예수의 복음을 어둡고 가난하고, 자유가 속박된 곳에 빛으로 비출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용기와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그레이엄 목사가 1949년 LA 다운타운에서 열었던 집회를 수십만명이 운집해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기적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모두에게 닿았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며 “우리도 성경과 기도와, 찬양과 헌신을 통해 이같은 열정과 부흥의 역사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심대식 목사의 봉헌기도 후, 유진 추(바이올린), 흥현주(피아노)씨가 특송무대를 꾸렸다. 이어 황모세(KCPC DC캠퍼스)목사 주도로 진행된 합심기도 순서에서는 ‘대한민국을 위해(황필남 목사-워싱턴 몽골리언 교회)’, ‘미국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브라이언 샤년 목사-코너스톤교회)’, ‘세계선교와 박해 받는 자들을 위해(아킨타요 엠마뉴엘 목사-GRA 미션스)’, ‘젊은세대와 미래 리더를 위해(제임스 차 목사-열방을 위한기도 사역)’의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하나되어 기도했다.

끝으로 박상근(북미CBMC) 장로가 공지사항을 전달한 후, 김용훈(열린문장로교회 담임) 목사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쳤다. 이후 손기성(워싱턴그레이스장로교회) 목사가 조찬감사기도를 드리며 교제의 시간을 이어갔다.

한편 내년 개최되는 제 19회 워싱턴한미국가조찬기도회는 2024년 10월 5일(토) 오전 7시, 메릴랜드 엘리컷시티 소재 벨엘교회(담임 백선종 목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윤미 기자

CVS 매장 물건 “몽땅 털렸다”

워싱턴DC에 위치한 한 CVS 매장에 청소년 대령도가 훔치고 지나가면서 진열 상품 대부분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5일 워싱턴DC 콜럼비아 헤이즈에 위치한 CVS 매장에 최소 45명의 청소년 용의자들이 쓰레기 봉투나 재활용 장바구니 등을 들고 침입해 매장 내 거의 모든 상품을 훔쳐갔다. 콜럼비아 헤이즈는 워싱턴DC 노스웨스트 지역으로, 워싱턴 지역 중 가장 안전한 곳으로 꼽히던 곳이다.

이 CVS 매장은 현재 폐허를 방불케 할 정도로 거의 모든 매대에 물건이 사라진 상태다. 당시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었으나 직원과 고객의 안전을 우선



매장도를 당해 텅 빈 CVS 진열대

시하는 정책 탓에 도둑을 제지하지 않았다.

CVS 측은 이들이 마치 언제 상품을 진열하는지 아닌 듯이 새롭게 물건을 채워넣는 순간을 노리고 나타나 훔쳐갔다고 밝혔다. 이들 강도 일당은 등하교 시간, 애프터스쿨 마감 시간 등에 집중적으로 출몰해 물건을 쓸어 담았

다. 콜럼비아 헤이즈 근처의 14번 스트리트에는 장물을 되찾고 되파는 스트리트 벤더들이 늘어서 새로운 장터가 형성될 정도였다.

CVS 측은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 매장을 폐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워싱턴 지역의 토종 그로서리 체인 자이언트는 매장 절도가 심한 일부 매장을 폐쇄하는 등 강경한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경찰당국은 워싱턴DC에만 해도 10여개 이상의 매장절도 폐강도단이 활동하고 있다고 밝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워싱턴DC 경찰국은 현재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20년래 살인사건 등 강력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매장내 절도 사건에 충분한 인력을 배정하지 못해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김옥채 기자

‘멕시코 4강신화’ 박종환 전 대표팀 감독 별세

지난 1983년 멕시코에서 열린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FIFA 20세 이하 월드컵의 전신)에서 대한민국의 4강 신화를 이끈 박종환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별세했다. 85세. 대한축구협회는 8일 “박종환 원로가 7일 밤 별세했다”고 밝혔다. 박 전 감독은 1938년 황해도 웅진에서 태어나 춘천고와 경희대, 대한석탄공사를 거치며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1960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해 우승했고, 은퇴 후에는 지도자와 국제심판 활동을 병행했다.

한국이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대회 역사상 첫 4강에 오른 1983년 멕시코 대회에서 박종환호는 기동력과 지질 줄 모르는 체력을 선보였다. 이에



박종환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K리그 신생프로팀 일화 감독을 맡았을 때 모습. [중앙포토]

감탄한 외신이 빨강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들을 ‘붉은 악령(red furies)’이라 표현한 게 계기가 돼 한국 축구는 ‘붉은 악마(red devils)’라는 별명을 얻었다. 모든 선수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휘몰아치는 특유의 축구 스타일은 ‘벌떼 축구’라는 별칭으로 남았다. 빈소는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했다. 송지훈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미역조림)
웨이팅노래방

미라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주세요~

“미국행 말리겠다더니...” 이민자 앞에서 아무말도 안한 뉴욕시장

미국행 이민 희망자들이 만류하겠다는 면서 중남미에 출장을 간 미국 뉴욕 시장이 정작 이민자들 앞에서는 침묵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전날 에콰도르 수도 키토의 이민자 보호소를 방문했다.

애덤스 시장은 한 시간가량 보호소를 둘러보고 이곳에 수용된 이민자들과 대화도 나눴지만, 미국행을 만류하지는 않았다.

한 보호소 직원에 따르면 애덤스 시장은 이민이나 미국에 대한 언급을 아예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노동 허가과 주거 등 보호소 측이 이민자들에게 제공하는 지원 시스템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소 관리자는 애덤스 시장이 미국행을 말리기 위해 중남미를 방문 중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으면서 “애덤스 시장은 보호소에 와서 훌륭하다고만 말했다”고 전했다.

애덤스 시장이 당초 밝힌 것과 달리



에콰도르 수도 키토의 중심가를 관광하는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이민자의 미국행을 만류하지 않은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애덤스 시장은 첫 방문지인 멕시코에서 “아메리칸드림을 좇으려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 꿈이 악몽이 되면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지만, 이는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였다. 애덤스 시장은 몰려드는 망명 희망자로 인한 뉴욕의 각종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겠다면서 멕시코와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 중남미 3개국 순방에 나섰다.

이스라엘에 항모전단 전진배치·전투기 증강

미국 정부가 8일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의 공격에 대한 대응에 나선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항모전단을 이동 배치하고 군 장비 등을 제공한다고 신속하게 발표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우선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의 동지중해 이동을 명령했다. 항모전단은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함과 순양함 노르망디함, 구축함인 토마스 허드너함, 매미지함, 카니함, 루스벨트함 등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또 F-35, F-15, F-16, A-10 등 역내에 전투기 편대를 증강하기 위한 조치도 취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은 필요시 억제 태세를 추가로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모전단의 전진 배치와 전투기 추가 전개 등은 하마스로 유입될 수 있는 무기를 차단하고 활동 감시를 위한 무력시위 차원이라고 AP통신은 분석했다. 동시에 이는 분쟁 확대에 대한 우려도 보여준다.

미국 정부가 8일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의 공격에 대한 대응에 나선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항모전단을 이동 배치하고 군 장비 등을 제공한다고 신속하게 발표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런



미항모함 제럴드 포드호

방침을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우선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의 동지중해 이동을 명령했다. 항모전단은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함과 순양함 노르망디함, 구축함인 토마스 허드너함, 매미지함, 카니함, 루스벨트함 등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또 F-35, F-15, F-16, A-10 등 역내에 전투기 편대를 증강하기 위한 조치도 취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은 필요시 억제 태세를 추가로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모전단의 전진 배치와 전투기 추가 전개 등은 하마스로 유입될 수 있는 무기를 차단하고 활동 감시를 위한 무력시위 차원이라고 AP통신은 분석했다. 동시에 이는 분쟁 확대에 대한 우려도 보여준다.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 분화 임박?

지구상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인 미국 하와이섬(빅 아일랜드)의 킬라우에아 화산에서 하루 동안 수백 차례에 걸쳐 지진이 발생했다.

7일 미국 지질조사국(USGS) 하와이 화산 관측소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약 24시간 동안 킬라우에아 화산에서 약 320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 4일 이 화산의 가장 높은 지점 아래에서 불안한 조짐이 나타났고, 이어 지진이 연이어 시작됐다.

관측소는 대부분의 지진이 킬라우에아 정상 칼데라 남쪽의 지표면 아래 최대 2마일(3.2km) 깊이의 지역에서 계속되는 지진 군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화산이 분화하지는 않았지만, 할레마우마우 분화구 주변에 지반 균열과 지진으로 인한 낙석 등 “상당한 위험”

이 남아 있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됐다고 관측소는 덧붙였다.

USGS는 킬라우에아 화산 정상 지표면이 약 3개월 만에 화산이 분화한 9월 10일 직전 수준으로 팽창했다며 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화산은 지난 6월에 이어 9월에도 분화를 시작해 용암도 분출된 바 있다. 지난 7일에는 할레마우마우 분화구에서 작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장면이 목격됐다.

지진 발생 빈도는 현재 줄어들었지만, USGS는 여전히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진 활동과 지표면 팽창 등으로 이 지역의 하와이 볼케이노스 국립공원 일부 산책로와 전망지역, 주차장이 일시 폐쇄됐다.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 분화 모습

아프간 강진 사망자수 급증... “2000명 숨졌다”

아프가니스탄에서 7일(현지시간)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탈레반 대변인은 8일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0명 정도 된다고 말했다.

정부 대변인 발랄 카리미는 “현재까지 사망자 수가 2053명이며, 부상자는 9240명”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그보다 앞서 적신월사는 헤라트주 보건부 관계자를 인용해 사망자 수가 500명이라고 밝혔다. 시시각각 사망자 숫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헤라트주 보건부 관계자는 시신들이 여러 병원에 분산 수용돼 사망자 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피해 집계



7일(현지시간) 강진이 발생한 아프간 헤라트주 제데흐잔 지역. [AFP-연합뉴스]

가 이뤄지는 상황이라 사상자 수가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11분쯤 아프간 북서부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후 규모 4.3에서 6.3

사이 강한 여진이 여덟 차례 이어졌다.

진앙은 헤라트주 주도 헤라트 북서쪽 40km 지점으로, 진원 깊이는 14km로 비교적 얕았다. 이란 국경에서 동쪽으로 120km 떨어진 헤라트는 아프간 문화 수도로 꼽힌다. 2019년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헤라트에는 약 190만명이 살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인도로 이어지는 국경지대는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교차해 힌두쿠시 산맥을 중심으로 지진이 잦은 편이다. 지난해 6월에는 아프간 남동부 파키스탄 국경 인근 파크티카주에서 규모 5.9 지진이 일어나 1000여명이 숨졌다. 김지혜 기자

하원의장 공백에...이스라엘 지원 차질 우려

의회가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하원의장 공백 사태로 의회 차원의 지원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폴리티코와 약시로스 등 미국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하원에서 신임 의장을 선출하기 전에는 미국 의회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하원은 케빈 매카시 의장이 공화당 강경파 반란으로 해임된 이후 페

트릭 맥헨리 임시 의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임시 의장은 하원 규정상 신임 의장 선출과 관련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하원이 별도 투표를 통해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맥헨리는 이스라엘 추가 지원 예산 등 법안을 하원 본회의에 상정조차 할 수 없다. 한 전문가는 NBC뉴스에 맥헨리 임시 의장이 하마스 규탄 결의안조차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매카시 의장이 지난 4일 해임된 이후

업무대부분이 정지된 하원은 오는 11일 신임 의장 선거를 할 계획이지만 다수당인 공화당이 분열된 상태에서 의장을 바로 선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이날 NBC뉴스 인터뷰에서 하원의장 공백 상황에서 의회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스라엘이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의회 상·하원 모두 초당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표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이십 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리치몬드 페넬룰라 상담원영

“
격정도 많고, 공정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사무장 김진주 *

“
지난 십여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변호사 임종범 *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쿠쿠 10월 가을 대축제

한글날도 쿠쿠하세요

ㄱ

고마워
쿠쿠

기억

가자, 쿠쿠

ㄴ

너도,
나도

니은

너도, 나도

ㄷ

대한민국
1등

디글

대한민국 1등

ㄹ

리빙 워드
쿠쿠

리을

리빙 워드 쿠쿠

ㅁ

모두
함께

미음

모두 함께

ㅂ



비읍

밥솥

ㅅ



시웃

사랑해 쿠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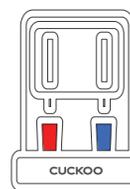
ㅇ

안마
의자

이응

안마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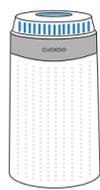
ㅈ



지웃

정수기

ㅊ



치웃

청정기

ㅋ

쿠쿠

키읔

쿠쿠

ㅌ

투게더
쿠쿠

티을

투게더 쿠쿠

ㅍ

필터

피윽

필터

ㅎ

쿠쿠~
하세요

히읇

쿠쿠~하세요

CUCKOO

밀빠진 독에 '탄약' 붓기...3억발 받은 우크라이나 "러에 밀린다"

미국이 압수한 이란 탄약까지 우크라이나에 보낼 정도로 탄약 고갈이 심각한 상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7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수억발의 탄약은 밀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소모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품질 수준을 낮추는 대신 생산량을 크게 늘리는 한편 북한으로부터 탄약을 지원받아 우크라이나보다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공군 장병들이 지난해 4월 29일 미국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155mm 포탄을 운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4일 CNN·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해상에서 압수한 이란의 7.62mm 탄약 110만발을 지난 2일 우크라이나 군대에 양도했다. 이 탄약은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에서 널리 사용되는 돌격소총 AK-47에 쓰인다. 중동 지역의 군사작전을 담당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지난해 12월 미 해군 병력이 무국적 선박에 실린 채 이란혁명수비대(IRGC)로부터 예멘 후티 반군(시아파 무장단체)에게로 이송되고 있던 물량을 압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 전날 톱 바우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사위원장은 폴란드에서 열린 바르샤바 안보 포럼에서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탄약) 창고의 바닥이 보인다"고 한탄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소형 탄약 3억발과 155mm 포탄 200만발, 105mm 포탄 50만발 등 대략 3억510만발의 탄약을 제공했다. 그 외

유럽연합(EU) 등 동맹국에선 약 35만발의 탄약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여름부터 동부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에서만 포탄 수십만 발을 사용하는 등 소모전을 이어가면서 올 초부터 탄약 부족을 호소했다. 지난 6월 초 남부 전선에서 대반격을 시작하면서 포탄, 총탄 등 다량의 탄약이 한층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대반격 이후 방어선을 뚫

기 위한 근접전을 벌이면서 하루 최대 7000~8000발의 탄약을 쓰고 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군사 전문가인 프레드릭 W. 케이건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우크라이나는 남쪽으로 진격하기 위해 보병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란 탄약과 같은 소총 탄약도 중요해졌다"고 전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탄약은 더욱 중요해졌지만 서방의 생산 능력은 달리고 있다. 타임지에 따르면 미국은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전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군용 탄약공장 86개를 보유했지만 현재는 5개에 불과하다. 유럽도 1990년대 탈냉전 이후 군수산업이 축소돼 탄약 생산량이 줄었다.

미국은 올 초부터 탄약 생산량을 2배 이상으로 늘리고, EU에선 지난 6월 산업계에 EU 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탄약 생산 지원법'을 추진하는 등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의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BBC는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탄약 가격이 급등하면서 점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 서방의 지원 여력에 한계가 온 것이라 관측도 나

온다.

반면 러시아는 지난해 중반부터 하루에 최대 6만발의 포탄을 쓰는 등 어마어마한 탄약을 소모했는데도 여전히 우크라이나보다 많은 탄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스티삼 에스토니아 국방부 차관은 "현재 러시아의 탄약 생산량은 서방보다 7배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탄약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품질을 희생하면서 가격을 낮췄다. NYT에 따르면 서방의 155mm 포탄 제조 비용은 5000~6000달러인데, 러시아의 152mm 포탄 제조 비용은 600달러에 불과하다. 또 아르메니아, 튀르키예 등 제3국을 거치는 방식으로 군수물자를 조달하고, 북한으로부터 탄약을 공급 받는 등 서방 제재를 우회하고 있다.

대경대 부설 한국군사연구소 김기원 교수는 "우크라이나는 향후 러시아와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 탄약을 계속 소모하면서 버텨야 하는지라 서방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탄약 비축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탄약 지원 압박이 한층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중동 공들이던 중국 당혹...중국 징크스까지 되살린 '피의 충돌'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전쟁 양상으로 돌입하자 중국은 당혹해 하는 입장이다. 올해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외교 관계 복원, 팔레스타인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등 중재 외교로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국 외교부는 하마스의 공격을 규탄하는 대신 양측의 자제를 강조했다.



지난 6월 14일 중국을 방문한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대통령(오른쪽)이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인민대회당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국은 지난 6월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대통령을 6년 만에 베이징으로 초청해 '아랍 평화 이니셔티브'를 제시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등 아-팔 중재에 힘써왔다.

중국은 아-팔 충돌이 다음 주 베이징에서 열릴 제3회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정상회담 및 이달 말 베트남 국빈방문, 내달 미국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정상회담 등 촘촘히 이어지는 시진핑 주석의 정

상외교 일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이데올로기 분석에 나섰다. 국수주의 성향의 환구시보는 8일 아-팔 충돌로 미국이 중국의 일대일로를 견제하기 위해 제한한 '스페이스 루트(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 건설 계획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왕진(王晉) 시베이(西北)대 교수는 "지난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인도와 유럽, 중동 동맹과 연합해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을 제시했고 핵심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의 관계"라며 "이번 팔-이의 격렬한 충돌로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의 모순이 돌출하며 '스페이스 루트'가 영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아-팔 충돌로 중국이 주최하는 국제 스포츠 행사와 국제 분쟁이 겹치는 징크스도 되풀이됐다. 지난 2008년 중국이 베이징 여름 올림픽을 개최하는 동안 러시아가 그루지야를 침공했고, 지난해 2월 베이징 겨울 올림픽 폐막 직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 폐막을 하루 앞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전격 공격하면서 중국의 국제행사 징크스를 되살렸다.

국제 사회는 아-팔 충돌에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서방 국가는 승격을 주도한 하마스를 강하게 규탄하며 이스라엘을 지지한 반면, 러시아는 중국과 비슷하게 사상자 발생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팔레스타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은 8일 외무상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고 "7일 하마스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이 가자 지구로부터 이스라엘을 향해 다수의 로켓탄을

발사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일본은 이를 강하게 비난한다"고 밝혔다. 또 다수의 이스라엘 시민이 하마스 등에 의해 납치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하는 동시에 조기 석방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가자 지구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에게 최대한의 자제를 다시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하마스의 공격과 관련 "죄없는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데 대해 강하게 비난한다"고 썼다.

러시아도 7일(현지시간)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자하로바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팔-이 분쟁의 급격한 상황 악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팔-이 양측에 즉각적인 휴전, 필요한 자제, 장기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협상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국 외교장관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습격이 중동 전체를 위협한 상태에 빠뜨렸다며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8일 보도했다.

베이징·도쿄=신경진·이영희 특파원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Internship for Protein 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각별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민에서 3분, 워싱턴 로드 유턴 센터(가-마트)에서 10분 거리

센터빌/첼러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첼러리(가-마트)와 첼러리/로더에서 각각 5분 거리

김민지 변호사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쉽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prosperlaw.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 대원외대 불어/불어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버트 다스 근무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health
markets[®]
건강보험마켓



귀하의 삶에 맞는 합리적인 비용의 메디케어(Medicare)가 필요하신가요?

올바른 메디케어 혜택을 선택하는 것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예산에 맞는 플랜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오늘 전화하십시오!

한국어를 구사하는 자격증 소지 보험 에이전트:

1-800-601-8681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현지 시간)

HealthMarkets Insurance Agency, Inc.는 모든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보험 기관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모든 에이전트가 모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및
제품은 주마다 다릅니다. 판매 에이전트는 가입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2023 HealthMarkets

48789aKOR-HM-0923

EU처럼 유엔 의사결정에 인구·국력 차이도 반영해야

이렇게 생각해 보자. 어느 나라에 정부나 경찰이 기능을 못 하는데 조직폭력 집단만 50개가 있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 피 흘리며 다투다가 나름대로 질서를 유지하는 게 모두에게 이익임을 깨닫고 협의체를 만들었다. 각자의 영역을 인정하면서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조직이 있으면, 나머지 집단이 단합해 응징한다는 합의였다.

그중에 가장 힘이 강한 '5대 패밀리'는 예외로 했다. 이들은 합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깨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와 함께 실제로 나머지 조직들이 힘을 합쳐도 이들 하나를 상대하기도 어렵다는 현실적 고려도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5대 패밀리 중 하나가 다른 중소 조직의 영역을 힘으로 빼앗으려 해서 큰 싸움이 났다.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나는 간에 과연 50개 조직의 협의체가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바이든의 안보리 이사국 확대 요구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엔 개혁 필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메타버스 버전이다. 1945년 유엔을 창설한 51개의 원 회원국은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집단안보를 위한 강제력이 없어서 독일과 일본의 침략 행위를 막지 못한 국제연합의 실패를 교훈 삼아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강력한 기구를 만들고 무력 사용 권한도 부여했다.

그러나 이때 유엔을 만든 5개 강대국, 즉 안보리 상임이사국(P5)은 강제력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지는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제도가 그것이다. 이 때문에 상임이사국은 불법적 전쟁을 일으켜도 유엔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처럼 국제 평화유지 메커니즘에서 가장 큰 약점을 노출했다. 따라서 유엔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월 1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안보리를 확대하고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는다"고 말했다. 78년 전 강대국들을 유엔에 참가하게 하려고 부여한 특권이 그들의 전횡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9월 1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수를 늘리는 것을 포함해 유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P=연합뉴스]

두 차례 세계대전 반성하며 유엔 창설, 무력 사용권까지 부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계 노출... 안보리 상임국의 거부권이 난제
'세계정부' 역할 막는 최대 걸림돌은 국가별 '주권평등의 원칙'
EU의 이중다수결제도 주목... 한국도 유엔 개혁에 동참해야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대립 격화

그러면 이러한 움직임은 실제 유엔의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20세기 이후 국제사회는 참혹한 전쟁을 겪고 나면 국제협력을 강화해 인류의 미래를 확보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보였다.

예컨대 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국제연맹과 민족자결주의가 태어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유엔이 창설돼 국제 평화유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됐다. 집단적 성찰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은 국가중심주의가 통제되지 않으면 국가 간의 충돌을 가져오고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닫게 되면서 가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만을 놓고 볼 때 국제평화 체제를 개혁해야 인류의 미래가 있다는 절실함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모든 상임이사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유엔 현장 개정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완전히 판을 새로 짜는 수준의 변화를 추구할 정치적 의지는 어느 강대국에도 없어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는 안보리 확대도 러시아와 중국을 몰아붙이는 효

과를 보면서 일본·독일·인도와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립서비스 차원으로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 같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력과 중국·러시아 등 전체주의 세력의 대립 양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의 세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만이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 특히 세계화라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류는 오랜 시간에 걸쳐 과학·기술의 발달로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들었다. 과거에는 국가들이 싸우고 반목하면 문을 걸어 잠그고 살면 됐지만, 상호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오늘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글로벌 시대의 '세계정부' 역할해야

아무리 자기중심적인 국가도 각자도생은 결국 공멸로 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지구촌 도전을 극복하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을지가 인류 공동체의 미래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하려면 유엔이 점차 '세계

정부'에 가까운 역할을 하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려면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가장 큰 난관은 역설적이게도 국가 주권 평등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수백 년간 모든 국가가 인구나 국력과 관계없이 평등한 주권을 갖고 있다는 원칙은 국제관계의 기초가 됐다. 잘 생각해 보면 이러한 원칙은 상당히 인위적이다. 국가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것인데, 왜 국가는 모두 동일한 주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해야 할까. 역사적으로 봐도 주권 평등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려 했던 국제연맹은 결국 강대국들의 외면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런 교훈을 염두에 두고 탄생한 유엔은 국제적 현실을 제도에 반영하려 했으나 결국에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안보리에만 집중됐다. 결과적으로 안보리 분야에서는 강대국들의 권한을 지나치게 반영해 놓아서 국제분쟁 시 유엔의 행동이 제약되는 일이 흔하다. 경제·사회·환경·인권 문제들에서는 유엔이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주권 인정하되 국가별 차이도 고려

이렇게 볼 때 유엔의 개혁은 국가들의 주권을 인정해 주면서도 인구나 국력의 차이가 반영되는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 대목에서 참고할 수 있는 예가 미국의 연방제도나 유럽연합(EU)의 의사결정 방식이라고 본다.

예컨대 미국은 50개 주의 자치권을 인정해 연방 상원은 각 주에서 2명씩

선출한 상원의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대통령과 하원은 인구에 기초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EU도 원칙적으로 모든 회원국이 동등한 자격으로 가입하지만, 이사회는 회원국 55%, 전체 인구의 65% 찬성이라는 이중다수결 제도를 적용해 다수 인구의 의사를 존중한다. 이런 제도들을 원용한 유엔의 개혁이 현실적으로는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언젠가는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유엔의 개혁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한 마디로 민주주의의 국제적 확산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20세기에 두 차례 세계대전을 시작했던 독일과 프랑스 간에 다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은 그들의 상호의존성이 너무 크고 민주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국가는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철학자 칸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세계 민주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유엔의 군사개입보다 오히려 더 큰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지난 70년간 국제사회에서 민주국가의 비율은 2배 증가해 전 세계 국가의 60% 이상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국가 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추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더 많은 국가가 민주적 결정을 통해 국민 다수가 원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무력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한국, 국제평화·안보에 앞장서야

또한 한국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데도 앞장설 필요가 있다. 한국처럼 국토가 크지 않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국제관계가 법과 질서에 따라 예측할 수 있게 유지되는 것이 이롭고 바람직하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튼튼한 국방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가 힘의 경쟁에만 치중한다면 그러한 평화는 불안한 공존이 될 뿐이다. 결국 인류 문명의 발전이 과거의 오류를 성찰하고 전쟁과 평화의 끝없는 반복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오게 해야 지속적인 평화 가능성이 있다. 국가 간의 역사가 단순한 역학관계의 반복이 아닌 큰 방향성이 있는 변화로 채워질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때다. **오준경** 현대 석좌교수 전 유엔대사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정성웅 보험을 선택하는 이유

자동차 보험료 할인!!



“

야외활동이 많이 줄어든 요즘
운행거리도 많지 않은데,
자동차 보험료는
너무 높아 속상하셨지요?

”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

운행거리 만큼
보험료를 내세요~
자동차 보험료를
대폭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정성웅 보험

{ 나에게 꼭 맞는 알뜰한 자동차 보험료를
지금 확인하세요~! }



정성웅 보험

T. 703.825.2945 Fax. 703.532.4750
14641 Lee Hwy., Unit 108, Centreville, VA 20121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

대법원장 후임 총돌 계속 댄, 헌재소장까지 '동시공백' 우려

“수사 방탄에 이은 재판 방탄이다.” “사법부에 ‘권력은 아직 민주당에 있다’는 시그널(신호)을 준 것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8일 보인 반응이다. 부결 당일(6일) 이도운 대변인이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의 연장선이다.

대통령실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방지해선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후임자 인선에 착수했다. 핵심 관계자는 “임명 동의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 입맛에 맞는 후보를 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정상화할 후보자를 물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후보자 지명 시점은 유동적이다. 다만 이달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 기간이라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후보자 지명-인사청문회-본회의 표결 등의 일정을

대통령실 “좌고우면 않고 다시 인선”
대법원장 표결, 일리아국감 뒤 가능
유남석 헌재소장 내달 10일 퇴임
윤 대통령, 후임 지명...재총돌 우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운데)와 의원들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려하면 아무리 빨라도 이달 말까지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내달 10일에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돼 초유의 양대 최고사법기관 수장 동시 공백 사태도 우려된다.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후보자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기 때문에 변수가 둘인 함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1순위 후보가 낙마했



다고 2, 3순위 후보 중에 고르는 자리가 아니다”며 “원점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무와 무게감을 고려할 때 사법부 안팎에서 신임이 두터운 인물일 수밖에 없어 인재풀 자체가 마냥 넓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재판소법 12조 2항)는 규정에 따라 기존 후보군은 유남석 소장을 뺀 8명이

다. 이들 중에 2018년 9월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 몫으로 지명된 이종석 재판관,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재판관을 제외한 6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문형배·이미선)이거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추천(이은애·김형두·정정미), 또는 민주당 추천(김기영)이다. 일각에서 헌재소장 유력 후보로 이종석 재판관을 거론하는 배경이다.

다만 이종석 재판관 임기(6년)는 내년 10월까지다. 헌재소장 임기는 재판

관 임기와 연동된다. 그가 헌재소장이 되더라도 1년 정도밖에 못 한다는 뜻이다. 재판관 연임은 가능하나 헌재소장이 연임한 전례는 없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뒤, 연이어 그를 헌재소장 후보에 지명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종석 재판관은 지난 8월 이균용 후보자 지명 때 대법원장 후보로 검토됐던 소수 인사 중 한 명이었다. 그때 조희대(66) 성균관대 석좌교수도 후보로 검토됐으나 6년 임기 중 정년(70세)을 맞는 점이 부담이었다고 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균용 후보자 지명 때도 윤 대통령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했다”며 “대법원장·헌재소장 후보자 모두 지금 하마평과는 무관하게 최종 단계에서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 “방탄용 부결” 야 “자질 부족”= 여야 정치권은 이날도 날 선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재판지연 전략”이라고 맹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권호·김효성 기자

판사들 “야당 당론 부결 참담, 법원이 정쟁 희생양 됐다”

“대법원장 임명을 정치 이슈화
판사 출신 정치인이 법원을 망쳐”

대법원장 공석 3주 차인 법원은 “정쟁의 희생양이 됐다”(재정지법 부장판사)는 참담함 속에서 대통령실과 국회의 결단만 다시 바라보게 됐다.

낙마 원인을 놓고 청문회 준비 부족, 후보자의 안일함 등 내인론과 야당 정

치 공세의 희생양이라는 외인론이 분분하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체 인력 부족 등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 전 후보자와 같은 시기 연수원을 다닌 한 판사는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측면은 있었다”고 말했다.

고법 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개

인 흥결이 낙마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없다”며 “야당이 대법원장 임명을 정치 이슈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기서 여당도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강대강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김명수 체제 들어 고위 법관이 되려면 정치 코드를 맞추는 게 최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이번 낙마로

판사 사회에 학습 효과가 굳어지는 게 아닐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기상·이탄희·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 판사 출신 정치인에 대한 불만도 팽배하다. 이들이 후보자 낙마의 주역이라는 말이 돌면서다. 한 고법부장 판사는 실명 언급은 피하면서도 “일을 저지르고 법원을 나가 정치인으로 변신하더니 법원을 다시 정치화시키고 있는

데 이는 법원을 망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고법 부장판사는 “장관이 공석이어도 행정부는 돌아가지만, 대법원장이 없으면 재판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공은 다시 대통령실로 넘어온 상황이다. 새 후보로는 오석준 대법관, 이종석 헌법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된다. 문현경 기자

“두만강역에 73량 화물열차... 러에 탄약 제공 정황”

CSIS, 위성사진 분석 “전례없는 규모”
CBS “북, 러시아에 대포 이전 시작”

“북한 두만강역에서 궤도차(railcar·화물열차)가 약 73량 포착됐다. 전례 없는 규모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매체 ‘분단을 넘어’는 전날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는 정황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개된 위성사진에

는 약 73량의 궤도차와 함께 수송용 상자, 컨테이너 등이 비교적 선명하게 포착됐다.

CSIS 조지프 비루데츠 선임연구원, 빅터 차 한국석좌, 제니퍼 존 연구원은 “지난달 13일 북·러 정상회담 5개월 후부터 양국 국경 지대인 두만강역에서 궤도차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며 “지난 5년간 위성사진을 살펴봤을 때 과거 두만강역에서 포착된 궤도차는 많아야 20량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자, 방수포 등으로 덮여 있어 (열차에 실린) 내용물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북·러가 무기 거래를 준비하는 정황은 최근 위성을 통해 꾸준히 포착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3일 미국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가 지난달 22일 두만강역에서 약 1.2km 떨어진 차량기지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화물과 열차로 보이는 물체가 다수 포착됐다”고 밝혔다.

미국 CBS도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에 대포

(artillery)를 이전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달 중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이후 양국 간 군사 협력이 보다 공식적으로 추진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달 중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 중·러 정상회담, 더 나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까지 성사되면 무기 거래를 넘어 우주와 항공 분야에서도 향후 북·러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단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현주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8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862-5395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정선화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선거구 30곳 떼고 붙이고 안갯속... 정치 신인은 패닉

22대 총선에서 영남권에 출마할 예정인 국민의힘 원외 인사 A씨는 예비후보 등록 이후 사용할 명함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A씨가 도전할 지역구 인구가 줄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합구(合區) 예상 지역'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A씨는 "도전자 입장에서 어느 동네가 지역구에 포함될지 모르니 선거 전략도 세우지 못한다"며 "나중에 명함도 새로 파야 한다"고 토로했다. 신인에게 '깜깜이 선거구 획정'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공직선거법 24조의 2는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고 시한을 못 박았지만, 총선이 6개월 남짓 다가온 8일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22대 총선 지역구·비례 의석수조차 아직 못 정했다. 여야는 선거법 협상 공전을 이유로 대치만 역대 총선에서 한 번도 시한을 지킨 적이 없다. 준(準)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된 2020년 21대 총선 땀 선거일 39일 전에



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다. 선거구획정위에 따르면 22대 총선을 앞두고 현재 주민등록인구가 인구 상·하한 기준(2대 1 초과 금지)에 부합하지 않아 재조정이 이뤄져야 하는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는 무려 30곳에 달한다. 서울 강동갑과 부산 동래, 경기 수원무·평택갑·평택을·고양을·고양정 등 18곳

이 인구 상한을 초과해 분구(分區) 가능성이 있다. 부산 남갑·남을·사하갑, 인천 연수갑, 경기 광명갑·동두천-연천 등 11곳은 인구가 하한에 못 미쳐 합구(合區) 대상이다. 부산 북-강서을은 획정 기준에 안 맞아 재조정해야 한다. 획정위는 지난달 11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국외부재자신고 개시 1개월

전인 10월 12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소한 지역구 정수는 정해져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여야가 극한 대립을 계속하고 있어 총선 직전에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농장 획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정치 신인들에게 돌아간다. 출마를 준비하던 지역구가 확 커지거나 공들였던 동네가 제외될 수 있어서다. 선거구 재획정 예상 지역에 출마할 예정인 국민의힘 소속 B씨는 "아예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모른다. 지역이 너무 넓어지면 현역들도 힘든데 시간도, 돈도 없는 원외 신인들은 어떡하느냐"고 했다.

일부 신인들은 인접 지역구 현역끼리 짬짜미로 동네를 주고받는 이른바 '계리멘더링' 가능성도 우려한다.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획정위가 안을 마련해도 국회 정개혁위-본회의 의결

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2012년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 당시 여야가 영·호남 지역구 감소는 피하고 수도권 분구를 최대한 줄이는 데 합작해 행정구역에 맞지 않는 '누더기 선거구'를 다수 만든 게 대표적이다.

이에 신인들은 "선거구 획정 지역은 현역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행위고, 이를 방치한 선거법은 '현역 우대법'이라고 비판한다. 분구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 지역구를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원외 인사 C씨는 "신인들의 발을 묶기 위해 미루다가 막판에 '시간이 없다'며 계리멘더링을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선수에게 심판까지 맡긴 획정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구 분구·합구는 쉽게 합의할 수 없는데, 이해당사자에게 맡기니 답이 없다"며 "선거일 1년 전 시한을 지키도록 강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지원 기자**

'기득권 선거법'에 발목 잡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정치 신인의 생각은 어떨까. 내년 4·10 총선 출마를 노리는 여야 정치 신인 4명은 중앙일보에 "커다란 벽이 가로막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상대적으로 젊은 신인에게 돈 문제가 난관이다. 4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인 서울 서대문갑 민주당 공천에 도전하려는 권지웅(35) 전 민주당 청년대변인은 "누가 저를 후원하고 싶어도 예비후보 등록(선거일로부터 120일, 올해 12월 12일) 전까진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아쉬워했

"예비후보 등록 전엔 명함도 못 돌려... 모래주머니 차고 뛰는 기분"

국민의힘	여야 정치신인 4인방 출마 예정지		더불어민주당
 이동석 (1985년) ·예정지 충북 충주 ·전 대통령실 행정관	 강사빈 (2001년) ·예정지 대구 중-남 ·한국역사진흥원 이사장	 정진경 (1979년) ·예정지 경기 고양병 ·전 국회의원 보좌관	 권지웅 (1988년) ·예정지 서울 서대문갑 ·전 민주당 비대위원

다. 정치자금법이 신인에게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야 후원회 개설 및 모금을 허용해서다. 국민의힘에서 이종배 의원(충주)에 도전하려는 이동석(38)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현역 의원은 매년 1억5000만원, 선거가 있는 해는 3

억원까지 모금하지만 신인은 절반인 1억5000만원밖에 모금할 수 없다"고 했다. 당장 얼굴을 알리는 것도 숙제다. 현역과 달리 예비후보 등록 전까진 명함 한 장 나눠줄 수 없는 등 인지도를 높

일 기회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이동석 전 행정관은 "다양한 SNS 플랫폼을 활용하지만 한계"라며 "현역과 비교하면 신인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에게 도전장을 내려

는 강사빈(22)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지역구 당원 명부를 열람할 수 없어 시작부터 '멘땅에 헤딩'"이라고 말했다.

최종 관문인 당내 경선을 생각하면 막막하다. 흥정민 민주당 의원(고양병)에 도전하려는 정진경(44) 전 김태연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은 "여야가 대부분 여론조사 경선을 진행해 인지도 높은 현역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미국처럼 대학 강당을 빌려 토론회를 여는 등 신인에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경선 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영·전민구 기자**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사나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가 종전 재교부 심사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구체적 기준을 만들기로 하면서다. 이에 따라 셀프로 처방 등 의료용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은 의료인이 면허를 되찾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준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연구는 올해 중 마무리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 재교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기준 마련 전반에 대한 내용과 형태 등을 법률 전문가와 논의할 예정"이

마약장사 의사 복귀 막는다... 면허 재교부 요건 강화

라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 대상이다.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면허 취소 대상의 의료 관련 범죄뿐 아니라 모든 범죄로 넓혔다. 그만큼 면허 취소나 재교부 심사 대상 의료인도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5년이 지난 의료인은 면허 재교부 신청 금지 기간(3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면허 재교부 승인은 복지부 '면허 재교부 심의 소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중 과반인 5명 이상

범죄 저질러 면허 취소된 의료인 면허 재교부 기준 그때그때 달라 복지부, 제도개선방안 용역 발주 상식 부합 명확한 기준 도입하기로

이 재교부 의견을 내면 면허 재교부를 승인한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대다수 위원이 전·현직 의사로 구성돼 공정성 시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면허를 다시 교부하는 기준도 모호하다. 면허 취소·재교부 관련 규정을 담은 의료법 제65조에 면허 취소에 따른 항목이 있지만,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선(改悛)의 정이 뚜렷하다

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만 나와 있다. 이렇다 보니 그때그때 기준이 다르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면허가 재교부된 의사는 총 99명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39명, 2021년 31명, 2022년 19명, 2023명 10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사의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2020년 92.8%에서 2021년 45.5%, 2022년 30.6%, 2023년 21.7%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마약사범 의사들도 버젓이 면허를 재교부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본인이 직접 마약을 투약했거나 의료 목적 외 환자

에게 마약을 투약한 의사 29명이 재교부를 신청해 8명이 승인받았다. 승인율은 27.5%다. 여기엔 미다졸람·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투약하고,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사 면허가 2019년 취소됐던 의사 A씨 등이 포함됐다.

백 의원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적 정비뿐만 아니라, 의료인 마약사범을 엄정히 다스리는 등의 상식에 부합하는 명확한 기준을 도입해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를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 마약사범을 엄정히 다스리는 등 전체적인 재교부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세진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 질로우 프리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센터빌 싱글홈	알렉산드리아 싱글홈	클립턴 싱글홈	우드브릿지 타운홈
			
\$985,000	\$680,000	\$1,350,000	\$400,000
방5, 화5, 차고2, 4500sf. 굿로케이션, Faircrest 커뮤니티 Upgraded 된 럭셔리 홈	방4, 화2, 조용한 동네 리모델, 업그레이드함. 빅 섀론, 넓은 뒷마당	방6, 화장실4.5, 차고2 2003년산, 뉴키친 등등 업그레이 많이함.	방3, 화장실2.55 새 창문, 새지붕 굿로케이션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단기연금 개런티 이자

/ 개런티 이자
/ 단기 (3년, 5년, 7년)
/ 복리 이자

유니티 보험

이제는 원금보장과 함께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때입니다.

원금	3년	5년	7년
\$100,000	4.95% \$115,597	5.30% \$129,461	5.30% \$143,548
\$300,000	4.95% \$346,791	5.30% \$388,385	5.30% \$430,645

*이자율은변경될 수 있습니다. **Virginia 기준



앤디 김
VA Lic# 639047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한글 맞춤법 검사기 개발 30년째 취준생 등불 됐다

577돌 한글날,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들

권혁철(65·사진) 부산대 정보컴퓨터공학부 교수는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를 만든 아버지다. 1994년부터 일반에 무료로 제공 중인 검사기로, 정확도가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한 달 평균 검사량이 1000만 건을 넘을 정도로 인기다. 올바른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싶은 취업준비생에겐 ‘등불’로도 불린다. 한글날을 앞둔 지난 5일 부산대 연구실에서 권 교수를 만났다.

권 교수는 서울대 전자계산기공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부산대에 부임했다. 그는 “1990년대 사무자동화(OA)가 본격화하면서 컴퓨터로 문서를 제작하는 일이 흔해졌다”며 “올바른 문서 제작을 돕기 위해 검사기를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권 교수는 “무료 서비스를 통해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맞춤법 검사기는 온라인 사이트(<http://speller.cs.pusan.ac.kr>)에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작성한 글을 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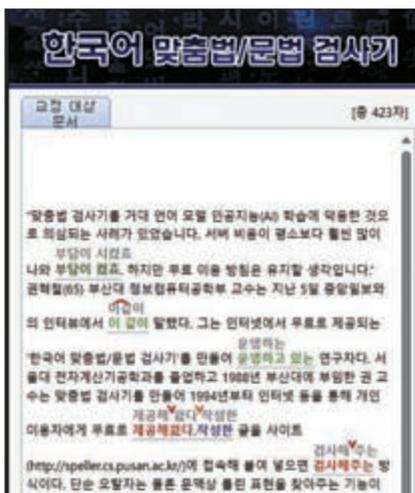
해 창에 붙여넣으면 된다. 단순 오·탈자는 물론 문맥상 틀린 표현을 찾아주는 기능이 뛰어나다는 게 업계 평판이다. 이용할 때 별도의 회원 가입을 통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용자가 입력한 글의 내용은 검사를 마치면 삭제된다. 권 교수는 “검사하려는 글에 개인정보나 민감한 내용이 담길 때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용자의 글 내용이나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건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대 맞춤법 검사기’라는 별명이 붙은 이 검사기의 유지·관리는 권 교수가 설립한 벤처 기업인 ㈜나라인포테크가 맡고 있다. 나라인포테크에선 국문학 전공자와 엔지니어 등 직원 5명이 일한다.

이 맞춤법 검사기에 최근 거대 언어모델 AI의 학습 용도로 의심되는 ‘수상한 접속’이 감지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권 교수는 “특정 IP 한 곳에서 짧은 시간에 검사를 약 600만 건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접속한 IP를 확인해보니 경기도에 있는 한 아파트였다”며 “비정상적



‘한국어 맞춤법 검사기’는 오·탈자 및 문맥에 맞지 않는 표현을 찾아준다. [웹페이지 캡처]

로 검사기를 과다하게 이용해 클라우드 서버 비용이 평소의 2배 가까이 나왔는데 원인 조사 끝에

AI 접속이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라인포테크는 지난 7월 맞춤법 검사기 웹페이지를 통해 “최근 특정 IP에서 비정상적인 이용 패턴이 발견됐고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청구됐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불가능해진다”고 공지했다. 이용자들은 30년 가까이 무료 제공된 맞춤법 검사기가 유료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권 교수는 “검사를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IP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중”이라며 “개인 이용자 서비스를 유료화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권 교수는 매일 맞춤법 검사기의 검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매달 한 차례 정기 업데이트를 해왔다. 하지만 챗GPT 등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학습형 AI가 머지않아 맞춤법 검사기 기능을 대체할 것으로 본다. 그는 “스스로 학습하는 AI와 비교하면 사람이 연구해 규칙을 만들고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인 수밖에 없다”며 “인젠가 밀려나겠지만, 앞으로 10년은 더 업데이트하며 AI와 경쟁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강서구청장 사전투표 22.64% 역대 최고... 여야 서로 “유리”

오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지난 6~7일 사전투표율이 22.64%로 집계됐다.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서울 강서구 투표율(20.43%)은 물론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강서구 투표율(21.45%)보다 높은 사상 최고 투표율이다. 내년 총선의 전조적인 이번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열기가 투표율로 나타났다는 분석 속에 여야는 8일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높은 사전투표율에 대한 유리 불리 해석은 자제하면서도, 보수·중도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조심스레 진단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양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직을 모두 가동하니 자연스럽게 투표율이 올라간 측면이 있다. 평일인 사전투표 첫날(6일)부터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보수층은 물론 중도·무당층이 대거 투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준용 대법원장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등 야당의 강경 노선에 염증을 느끼는 유권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김성태 전 의원은 통화에서 “정권 심판을 외치는 야당의 ‘정치적 투표’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서 구정에 힘을 실는 ‘실사구시 투표’의 양 갈래 길에서 중도·무당층이 선택했다. 긍정적인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이번만큼 높은 사전투표율이 이례적이라며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불이 붙었다”고 기세를 올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MBN 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7일 등촌제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터뷰에서 “지금 추세상으로 보면 투표율이 당초 저희 당 예상보다 높은 45% 정도 나올 것 같다. 단순히 구청장 선거가 아니라 정권 심판으로 투표를 이뤄지는 점이 투표율이 높아진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보궐선거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의 지난 5월 대법원 당선무효 형으로 인해 실시됐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당 관계자는 “40여원을 들여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장면인 이 다시 선거에 나오자 이를 꾸짖기 위해 유권자가 사전투표장에 나온 것”이라며 “그런 후보를 공천한 윤석열 정부의 오만함에 대한 강서구민들의 분노가 숫자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본 투표를 겨냥한 지도부의 총력전도 팽팽하게 이어졌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8일 화곡동 남부골목시장 유세에서 “가장 낙후된 동네라는 오명을 벗고 가장 잘사는 구가 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의 힘 있는 후보를 꼭 뽑아 달라. 재건축·재개발 팍팍 밀어

드리겠다. 예산 배정하려면 서울시·집권당하고 손발이 척척 맞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사전투표일 마감일인 전날(7일) 지도부 총력 유세를 진행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마곡동 마곡나루역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단순히 구청장 선거가 아니라 1년5개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심판”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바꾸는 첫 번째 결과(를 위해) 진교훈 민주당 후보를 압도적 지지로 당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마곡나루역 유세 참석을 예고했다가 취소한 것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이 대표가 중대범죄 피의자로 지명 유세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오랜 단식으로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야당 대표를 향해 막말을 퍼붓는 뻔뻔한 행태에는 할 말을 잃는다”라 맞불을 놓았다. 오현석 기자

청문회 자리 뜬 김행 남은 건 국회 이탈 진실공방

김행(사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도망’ 의혹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5일 밤 청문회에서 더불어민 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김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를 감당 못할 거면 사퇴하라”고 하면서 여야가 입씨름했다. 결국 청문회는 오후 10시42분 정회했다. 김 후보자는 여당 의원들과 청문회장을 빠져나갔다. 오후 11시 43분 회의는 속개됐는데, 김 후보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야당은 “사상 초유의 후보자 도망 사태”라고 지적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사라진 뒤 계속해서 김 후보자 측에 ‘후보자가 어디 있는지 파악해 달라. 출석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준비팀은 ‘모른다’는 답변뿐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장 퇴장 직후 국회를 벗어났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야권 관계자는 “본관에 대기했다면 한 번쯤 모습을 드러낼 만도 한데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 본관 550호에서 걸어서 약 1분 거리인 같은 층 대기실에 머물렀다고 반박했다. 정경희 의원은 “여당 의원만 퇴장했다가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김 후보자를 몰아세울 수 있어 같이 퇴장한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대기실에서 여당 의원들과 6일 0시30분까지 의의를 진행하는 장면을 중계 화면을 통해 함께 봤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비판은 정치적 공세라서 김 후보자도 곧 임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다영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눈꺼풀 저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구인 리셀러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상담 및 신분 변경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Eng/Kor) (구원뱀방)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 (Kor) | 212-739-0843 (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우리말 바꾸기

‘되레’와 ‘외려’

분명 화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오히려 잘못된 당사자가 필적 뛰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이 닥친다면 “잘못은 내가 해 놓고 되레 나한테 화를 내면 어떡해!” “잘못한 놈이 외려 큰소리야!” 등과 같이 말하게 된다.

이처럼 예상·기대와 다르게 되는 경우 ‘되레’나 ‘외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도와주려고 한 일이 되레 폐만 끼쳤다” “자기가 잘못하고선 외레 큰소리친다” 등 처럼 ‘되레’ 대신 ‘되려’, ‘외려’ 대신 ‘외레’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각각 어느 것이 맞는 말일까?

우선 ‘되레’는 ‘도리어’의 준말이다. ‘도리어’가 줄어들면 ‘되려’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기 쉽지만 ‘되레’가 맞는 말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되려’보다 ‘되레’가 많이 쓰인다는 판단 아래 ‘되레’가 표준어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외려’도 ‘외레’가 맞는 말일까? 이 경우에는 반대다. ‘오히려’의 준말로 ‘외레’가 쓰이기도 하지만 ‘외려’를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슷한 경우이지만 모양이 다른 ‘되레’와 ‘외려’가 각각 표준어다.

하지만 일반인으로서 같은 구조의 ‘되레’와 ‘외레’, ‘되려’와 ‘외려’로 짝지어 생각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다. 즉 ‘되레’가 바른 표현이기 때문에 ‘외려’ 역시 ‘외레’가 아닌가 생각하기 쉽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제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시평

민주주의 위기와 정치 실종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
전 고려대 총장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았다.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한 시민혁명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아 사회나 국가를 통치할 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만들었다. 시민은 선거를 통해 사회를 다스릴 권한을 통치자에게 위임하고 통치자는 견제와 균형의 국가 시스템 안에서 민주적 통치를 하게 된다.

이런 민주주의 사회 질서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삼권분립과 대통령제를 탄생시킨 미국에서 조차 선거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까지 벌어졌다. 세계 곳곳에서 극단주의 정치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입법·행정·사법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상호존중의 민주주의 질서가 도전을 받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켜야 할 정당에서 조차 유리하지 않은 사법부 판결이 나오면 강한 비난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 행정과 입법 사이에도 질서는 무너지고 있다. 장관과 국회의원의 입씨름이 도를 지나쳐 정책토론이 아니라 감정적 상호비방으로 일관한다. 미국도 대통령의 의회에서 연설하고 나자 하원의장이 그 자리에서 연설문을 찢어 버릴 정도로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인다.

정치는 서로 다름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지혜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지혜를 갖춘 정치와 정치는 실종되고 있다. 정치적 갈등의 심화는 극단적 강경파의 활약을 부추기게 된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안을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서서 연방정부 셧다운을 몇 시간 남겨 놓고 임시 예산안이 간신히 통과되었다. 하지만 이후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이런 합의를 끌어낸 자기 당 하원의장에 대해 불신임안을 상정했고 통과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20여명에 불과한 친트럼프계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공화

당 하원의원 221석을 좌지우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주 민주주의문화재단(Democracy and Culture Foundation)과 뉴욕타임스 주최로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아테네 민주주의 포럼’에 참석했다. 전 세계 지성인들이 모여 민주주의의 위기와 해법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최근 독재적 지도자들의 권력이 확장되고, 인공지능이 인간 노력의 가치를 침해하고, 빈부격차는 심화하고, 기후변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표현의 자유는 공격을 받고, 유럽에서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포럼에서는 21세기가 직면한 민주주의 위기의 극명한 현실로 보았다. 지난 20세기 후반 누려왔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는 오늘 과연 인류의 미래에 희망이 있는가를 고민하는 모임이었다.

포럼에서는 민주주의 위기가 발생한 원인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있다고 분석했다. 디지털 혁명으로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사람들은 이에 적응하지 못해 위협을 느끼게 된다. 기술의 발전은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이에 따라 돈의 힘은 점점 더 커지고 정부의 힘도 커지지만, 시민의 영향력은 점점 감소한다고 느껴서 불안감이 커진다고 한다. 불안감과 무력감은 모든 문제를 자신이 아니라 사회의 탓으로 돌리게 한다. 이것이 정치 선동과 연결될 때 극단적인 행동이 나타난다.

개인의 사회적 불신뿐 아니라 정치권도 상대

에 대한 불신으로 사회문제를 풀려고 한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사회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상대편의 과거 잘못에 대한 비난이 우선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나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 철폐를 보면 모두 상대편을 탓하는 닳은꼴이다. 정부의 역할은 남의 탓보다는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설계를 하는 일이 우선이다.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프리츠 하이더(Fritz Heider)는 일찍이 이런 현상을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으로 분석했다. 인간은 종종 문제의 본질보다는 이를 외부적 상황이나 개인적 특질의 탓으로 돌려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정치도 상대편 집권세력의 과거를 청산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서로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 불신을 가중하는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정치선동가들이 사회를 극단적으로 대립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사회 불신과 개인의 불안감이 언론의 편향보도와 개인 미디어의 발달, 그리고 정치 선동으로 인해 극단주의 세력의 역량을 더욱 키워주고 있다. 극단주의 세력의 득세는 기존 정당의 정치질서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쉽게 무너뜨린다. 극단적 팬덤 현상은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소신을 쉽게 마녀사냥감으로 만들고 정당의 기본 이념이나 가치보다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게 한다.

우리 인류는 히틀러가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세계대전을 일으켜 몰락한 역사를 잘 기억하고 있다. 극단적 세력이 득세할 때 합리적 사고는 길을 잃는다. 정치는 치열하게 대립하더라도 결국은 화합을 끌어내는 예술이다. 정치권에서 내로남불이 일상화되어가는 오늘 김수환 추기경이 남긴 “내 탓이오”라는 말의 울림이 더 크게 다가온다.

디지털 세상 읽기

애플 매장 습격 사건



박상현
오터레터 발행인

지난주 미국 필라델피아 시내 한복판에 있는 애플 매장에 수십 명이 몰려들어 진열품을 흠쳐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다. 요즘 미국 일부 대도시의 치안이 악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시간에 버젓이 들어와 물건을 훔치는 일이 잦아지고 있기에, 고가 가치를 전시하는 애플 매장이 표적이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애플 매장이 털리는 일은 흔치 않다. 왜일까?

그 이유는 도난 사건 직후 소셜미디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애플 매장은 도난 기기들의 제품 번호를 찾아 재빨리 원격으로 잠가버렸고, 해당 기기는 사용 불능의 ‘벽돌’이 되었다. 기껏 훔쳤는데 쓸 수도, 팔 수도 없게 된 절도범들이 화가 나서

흠친 제품을 바닥에 던지는 장면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 절도죄로 잡힐 것을 각오하고 저지른 범행에서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것이다.

점점 많은 기기가 OTA(over the air), 즉 원격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예전 같은 단순 절도, 장물팔이가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는 자동차도 포

함된다. 테슬라의 경우 OTA 방식으로 모든 차량이 본사와 연결될 뿐 아니라, 차량 전후좌우에 카메라가 부착된 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이유로 차량 절도범이 테슬라에 손을 대는 일이 드물고, 덕분에 다른 차량에 비해 도난율이 현저하게 낮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고가의 테슬라를 시키하는 사람들이 주차 차량의 표면을 몰래 긁다가 촬영된 영상이 공개되고 경찰에 잡히는 사례가 속속 알려지자 테슬라는 건드리면 안 되는 차로 인식된 것이다. 애플에는 이번 습격 사건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득이 될지 모른다. 애플 매장을 털어봤자 아무런 소용없다는 사실을 잠재적 범죄자들이 알게 되었을 테니까...

맛있는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워싱턴중앙일보가 약속드립니다!

발행부수 · 광고효과 · 독자만족 1등 Tel. 703-281-9660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3년 현재 **29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ASK미국 온·오프 정보센터

ASK미국 정보센터는 각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온·오프라인 상담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 법률, 세금, 복지, 교육, 부동산, 보험 등 전문지식부터 자동차, 집수리, 컴퓨터, 여행 등의 미국생활까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온라인 상담 <http://ask.koreadaily.com>



이동찬
이민/비자 변호사

Q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의 시민권 취득

▶문= 미국 시민권자이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9살까지 거주하다가 부모와 한국으로 이주해 작년까지 한국에서 살았다. 4년 전 한국인 남자와 결혼해서 두 자녀를 출산했고, 현재 남편과 아이들은 학생 비자 신분으로 나와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내가 시민권자로서 아이들의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한다. 그리고 아이들 이름을 먼저 바꾸고 시민권은 나중에 신청했으면 하는데 가능할까?

▶답= 이민법 조항 301(g)와 322에 의거하면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시민권자이고 그가 5년 동안 미국에 체류했

고 적어도 그 5년 체류 기간 중 2년이 14세 이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해외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의 자녀들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301(g)과 322 조항은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301(g) 조항에는 5년 체류 기간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충족돼야 하고, 322조항에서는 아이가 18세 미만이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시민권 증서 신청이 가능하다.

상당한 분의 경우 9살 때 미국을 떠났고, 미국에서 5년 이상 체류했지만 14세 이후로 2년을 체류한 기록이 없으므로 현재 아이들이 시민권을 바로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아이들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므로 영주권 문호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시민권자 부모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안정적인 수입이 없으면 재정보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자산을 이용하거나 공동 재정보증인을 별도로 세우면 아이들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민법 320조 항에 의거하면 아이들이 18세 미만이고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아이들은 영주권을 받는 동시에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아이들이 시민권을 나중에 받기를 원한다면 시민권 증서를 나중에 신청하면 된다. 시민권 받기 전에 아이들 이름을 바꾸는 것을 원하면 주법원에 가서 아이들의 개명을 신청하면 된다. 단, 한국 여권에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바꾸려면 한국 법원을 통해 개명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

차후에 아이들의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때 주법원 또는 한국 법원에서 개명된 서류를 제출하면 개명된 이름으로 아이들은 시민권 증서를 받을 수 있다.



지나킴
교육/대학입시 전문

Q 대학시절 해외 유학의 장점

▶문= 대학생이 된 후 많은 학생들이 유학 프로그램에 등록해 한 학기 또는 1년을 외국에서 보낸다. 유학의 장점은 무엇인가?

▶답= 유학은 대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이다. UC에 진학하든, 사립대에 가든 많은 대학들은 여러 나라들과 유학 프로그램 협약을 맺고 있다.

유학의 가장 큰 혜택은 넓은 세상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에 머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푹 빠지는 상상을 해보라. 여행을 사랑한다면 유학하는 나라 외에 주변 국가들도 가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간다면 런던, 로마, 바르셀로나, 브뤼셀, 암스테르담 등 멋진 유럽 도시들을 둘러볼 기회를 잡을 지도 모른다.

유학의 또 다른 묘미는 다른 스타일의 교육을 맛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학하는 동안 전공분야를 집중적으로 배운다면 홈 스쿨에서는 접할 수 없는 독특한 커리큘럼을 경험할 수 있다. 교육은 모든 유학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파

라서 유학을 가게 될 대학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외국에 가면 새로운 음식, 풍습, 전통, 사회적 분위기를 체험하게 된다. 그러면서 내가 태어나서 자란 나라와 여러 면에서 다른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양성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아마도 유학을 떠나는 학생 중 상당수의 최대 목표는 해당 국가의 언어를 마스터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타겟으로 삼은 언어가 제1언어인 나라에서 생활하면 해당 언어를 입체적으로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 주 7일 잡자는 시간 빼고

그 언어를 사용하며 현지인들과 어울리며 생활을 경험해 보자. 어떤 학생들은 유학을 한 나라와 사랑에 빠져 졸업 후 그 나라에서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 이 경우 해당 국가에서 생활하며 교육받은 경험이 큰 무기가 될 것이다.

대학에 진학한 후 유학을 가고 싶다면 고등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좋다. 어떤 나라에 마음이 끌리는지, 그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가능하면 유학 타겟으로 삼은 나라의 언어를 제2외국어로 택해서 공부하면 훌륭한 사전 준비가 된다.



리차드 명
교육 대표

Q 재정정보조를 위한 철저한 준비 필요

▶문= 새로 바뀐 FAFSA에 대해 알고 싶다.

▶답= 연방정부가 자녀들의 재정정보조 신청서 제출 시점을 두 달이나 연기해 가며 재정정보조 평가 기준을 대폭 수정했다. 지난 2021년 제정된 '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를 2020년 12월에 'The FAFSA Simplification Act'로 바꾸며 업데이트했다. 이 법은 오는 2024-2025년부터 재정정보조 평가와 지원에 따른 모든 법에 대해 적용된다.

이 법은 연방정부의 FAFSA 제출에 따른 재정정보조 평가 방식인 'Federal

Methodology'에 대한 재정정보조 공식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 과거 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 가정 부담금) 방식을 SAI (Student Aid Index, 재정정보조 지수)로 대체해 재정정보조 평가 방식의 근간부터 바뀌버린 대폭적인 개혁이다.

이는 재정정보조 평가에서 해당 가정에서 얼마를 부담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방식을 각각의 학생마다 SAI를 계산해 달리 표현한 새로운 용어 정의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산방식의 변화가 모든 학생에게 더 나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반대인지 한 번쯤 생

각해 봐야 한다. SAI 방식의 변화로 2024-2025년도에 적용할 연방정부의 Pell Grant 해당자가 더욱 줄어들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Pell Grant의 추이를 보면 2022년 최대 연간 6,895달러를 지원했지만, 2023년에는 7,395달러로 그 수혜금액이 500달러나 늘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정치적인 제스처일 뿐이다. 실질적인 연방정부의 Pell Grant 예산은 2022년이나 2023년도도 22,475,352,000달러로 단 1달러도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대상 수혜자를 대략 7.3% 이상 줄여야만 동일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도에 단지 극빈자 가정에만 해당되는 FSEOG의 예산도 단지 15,000,000달러만 증액했고 Federal Work Study도 20,000,000달러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밀레니얼 세대 자녀들의 대학 입학률이 4분의 1 이상 증가한 가운데 그야말로 코끼리 비스킷도 되지 않는 예산 증액이라는 것이다.

연간 2만 7000개 고등학교에서 400만 명이상이 졸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의 증가분도 미치지 못하는 증액은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 허리를 동여매야 하는 상황을 만들 전망이다.

혜민한의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착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혈관건강 검사, 자율신경/스트레스, 체성분, 혈관나이 검사

4단계부터 혈관 건강에 유의하세요.

1	2	3	4	5	6	7
0.9%	0.6%	0.0%	13.9%	42.9%	2.3%	0.0%
매우 좋음	양호	노화 시작	주의	나쁨	매우 나쁨	

GUT-BRAIN CONNECTION

- 뇌와 위장관 문제 예방 및 개선 (가역적, 공황증, 소화, 변비, IBS)
-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개선
- 북부비만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팔 뒤로 들어올리지 못함

팔목 힘없다
찌릿찌릿
바닥 못누움

손가락 Spasm of finger

toes cramps 발가락 뻣음

발목 오래된 것 쉽게 해결됨

plantar aches

힘이 없어 잡지 못함

뺨아쇠

뒤로 퍼기 힘들다

피지지 않음

발바닥 통증

뒤꿈치

오래 앉아있지 못함

75°

30°

구부리기 힘들다

sciatica

좌골신경통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개인 건강보험 받습니다.

Nerve Control SNC
Scientific Nerve Control

혜민한의의원
뇌신경 조절 한의사 권진열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 / NerveControlSNC.com

월수금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화목토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Korea Daily 중앙일보

2023년 한인 경제생활 설문조사

2023 SURVEY EVENT

미주 한인의 경제생활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 참여하고 선물받자

참여기간 **2023년 9월 25일 ~ 10월 25일**

- 참여방법
1. 우측의 모바일 QR코드 스캔
미주중앙일보 웹사이트
 2. www.Koreadaily.com 이벤트 배너 클릭!
 3. http://bit.ly/bohkd2023 접속

경품응모 설문조사 완료 시 자동응모

경품발표 2023년 11월 15일 (예정 / 별도 공지)

지금 바로 스캔하세요!



bit.ly/bohkd2023

설문조사 5분에 풍성한 선물까지!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PALACE II**

\$8,500 상당 **1명**



AIR PREMIA
한국 왕복항공권 (LA-인천)



coway
공기청정기
AP-2318D
\$1,300 상당



3명
\$500 VISA
기프트카드



5명
경동 나비엔
카본매트(더블)
\$500 상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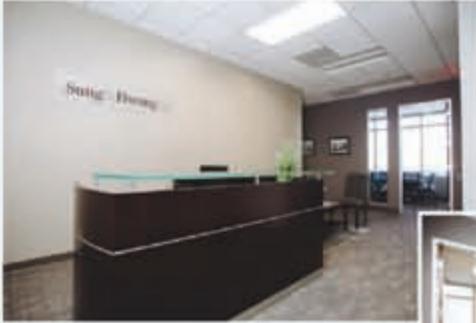
20명
\$100
아마존 기프트카드



100명
\$20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MD, DC, VA



VIRGINIA OFFICE

7353 McWhorter Place, Suite 202
Annandale, VA 22003



MARYLAND OFFICE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한인들의 모든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이 저희 로펌의 목표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month
고문 변호사
membership program

- **완벽한 영어** 와 **풍부한 재판 경험** 으로 법정에서 자신있게 여러분을 변호합니다.
-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변호사 비용 무료**
- **첫상담 무료** (특정분야 제외)

주요 업무 분야

- 교통사고 보험청구/의료비/수리비/휴직 보상
- 민사소송
- 비즈니스 설립/매매/분쟁
- 사업체 고문변호사 제도
- 보험
- 손해배상
- 의료사고
- 부동산 매매/Lease/분쟁
- Liquor License

한국 비즈니스
오너들을
대표해서
FOX NEWS,
CNN 인터뷰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

LAW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경제 & 연예/문화 Sports

JoongAng Ilbo

Monday, October 9, 2023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한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법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응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당한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작고 싸야 통한다, 확 바뀐 전기차 성공 공식

전기차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그동안 통용됐던 '소형에서 대형으로, 저가에서 고가'라는 성공 공식이 힘을 잃고 있다. 대신 테슬라발(發) 가격 인하 경쟁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저가 소형 전기차가 대세로 떠올랐다.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와 함께 다양한 차종이 발표되는 것도 시장 질서 재편을 가속하고 있다.

지난 3일 시장조사기관인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기아가 지난 6월 첫선을 보인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9의 8월 등록 대수는 551대에 그쳤다. 6월과 7월도 각각 665대, 1682대였다. 사전 계약 물량이 1만여 대인 것을 고려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전장 5m가 넘는 EV9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첫 대형 전기차이자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신기술을 털어 넣은 야심작이었던 만큼, 실제 판매량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반면 기아가 지난달 출시한 경형 전기차 레이 EV는 반응이 뜨겁다. 지난달 말까지 진행된 사전계약 물량은 6000대로 올해 판매 목표 4000대를 초과 달성했다. 가격은 2735만~2955만원이다. 경형 전기차로 분류돼 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가 면제된다. 개인 및 법인 사업자는 부가세도 환급받을 수 있다.

EV9의 초반 부진과 레이 EV의 선전은 전기차 시장 변화의 방향성을 압축해 보여준다. 전기차 시장이 '대형→소형으로, 고가→저가'로 재편되고 있음을 상징한다.

미국은 이런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 기아

중국산 배터리 '저가 경쟁' 불붙여 2735만~2955만원 기아 '레이 EV' 사전계약 6000대, 올 목표치 초과



기아 EV5



현대차포터2 일렉트릭



기아 레이 EV

글로벌 전기차 연도별 판매량
단위: 대



자료: 국제에너지기구(순수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포함)

는 다음 달부터 미국에서 EV9을 판매할 예정인데, 판매량에 따라 대형 전기차의 시장 안착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어서다.

앞서 기아 북미법인은 지난달 말 EV9의 기본형 모델 가격을 5만4900달러(약 7458만원)로 책정해 발표한 바 있다. 마이클 와일드 기아 북미법인 상품기획 디렉터는 지난 7월 열린 EV9 출시 행사에서 "미국 시장에 이 정도의 크기

와 성능, 디자인을 갖춘 대형 SUV는 없다"며 전기차 1위 테슬라를 견제하기도 했다.

자동차 업계에선 대형차 선호도가 뚜렷한 미국 내 EV9 판매량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EV9에 대한 반응이 미 시장에서도 저조할 경우 현대차가 내년엔 선보일 예정인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7 출시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EV9은) 초반 품질 문제와 리콜 등으로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한데다 최근 전기차 시장에서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은 가성비 중시 현상도 판매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다.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도 전기차 가격 경쟁을 부채질하고 있다.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는 리튬이온(NCM) 배터리 대비 30~40% 저렴하다. 중국 배터리 선두 주자 CATL과 비야디(BYD)는 LFP 원천 기술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다. BYD는 LFP의 단점으로 꼽히는 낮은 효율을 극복한 차세대 LFP 배터리 '블레이드'를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해 생산한 글로벌 전기차 4대 중 1대가 LFP 배터리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는 레이 EV에 중국 CATL이 만든 LFP 배터리를 적용해 가격을 낮췄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LFP를 탑재하면 4000만원대인 코나 전기차 가격이 3000만원대로 낮아져 고객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저가 전기차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강기현 기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정성웅 보험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세계와 만나는 창
The Korea Daily
"미국의 중심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전직검사 한인2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같은사고! 다른결과!
ROWE WEINSTEIN & SOHN PLLC
로우와이스틴 & 손로폼
Attorneys and Counselors Law

사고가났습니까? 즉시 연락주세요.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부터 사망사고 까지-

사고처리
v 교통사고 직후 현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v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 해야 하나요?
v 접촉사고 후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나요?
v 목격자는 필요하나요?

형사처벌
v 교통사고 후 구속되는 경우
v 음주운전 (DUI, DWI)
v 각종 교통 티켓
v 면허정지 (Licenses Suspension)
v 면허취소 (Licenses Revocation)
v 감옥형벌 (Jail Penalty)

로버트 케들 Robert Cadle
노승훈 Robinson S. Rown
알릭스 부시 Alexander Buch

Super Lawyers
The Washington Post Magazine 선정
Top 100 법정변호사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cadle@rowepllc.com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rowe@rowepllc.com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abush@rowepllc.com

MD 301-770-4710
1401 Rockville Pike, Suite 110
Rockville, MD 20852

VA 703-887-1037
701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300
Annandale, VA 22003

888-340-7583
2200 Pennsylvania Avenue, N.W. 4th Floor
Washington, D.C. 20037

www.rowepllc.com
FAX 301-770-4711

보상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Mrs. Lee 사무장
한국어 상담
703-887-1037
www.rowepllc.com

외국인 숙련 근로자 정착할 수 있어야 이민국가 가능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활용이 한국 산업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건설·조선은 물론 많은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 2배로

우선 고용허가제 쿼터를 대폭 늘렸다. 올해 쿼터는 작년의 2배 가까운 11만 명이다. 내년에는 쿼터가 12만 명이 상으로 늘어난다.

외국인이 전문기능직으로 입국할 수 있는 비자 요건도 대폭 완화되었고, 올해 도입 규모도 20배 가까이 늘었다. 용접공뿐 아니라 도장공과 선박전기원(전기공)도 송출국 현지에서 기능 검정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중급 이상 관련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과 함께 기능 검정을 통과하여야 일반기능직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학사 학위 소지자에게는 기능 검정이 면제된다.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 계약으로 들어오는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됐다. 연근해 어선의 외국인 선원 도입 규모는 현재 1만9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늘어났다. 이런 다각적인 노력에 따라 산업현장의 인력난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제도 개혁의 큰 그림과 체계적인 검토 없이 인력 도입 규모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도 중심이 되어 진행 중인 연구가 올해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도입 규모 등을 결정하여도 늦지 않을 듯한다. 너무 성급한 측면이 있다.

불법체류자 41만여 명, 일본의 5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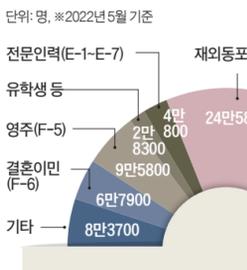
현재 한국 경제와 산업 상황상 외국인 근로자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불법 체류자 문제도 그중 하나다.

정부 통계상 2022년 말 기준 불법 체류자는 41만1000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18%이다. 체류 자격을 위반해 취업하고 있는 경우를 비롯해 파악되지 않은 불법 체류자도 많다. 한국의 불법체류자는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일본이나 대만보

주요 외국인 체류자



장기 체류 외국인 취업자 실태



체류자격별 불법 체류 외국인



와 같이 민간의 역할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에 투입하기로 한 70억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체류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삭감이 아니라 늘려야 한다. 정부 예산을 늘릴 수 없다면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해서라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어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기능을 보강하거나 '외국인력공단(가칭)'의 설립을 통해 채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류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고용허가제 경험, '이민 시대' 마중물로

무엇보다 취업 체류자격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는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취업 및 구직 활동을 하는 모든 외국인을 아우르는 통합적 외국인 취업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인 외국인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미만인 불과한 실정이다. 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더 커졌다는 얘기도.

단순기능직으로 입국한 외국 인력이 전문인력으로 성장해 한국 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0년 고용허가제 운용의 경험을 살려 '이민 시대'를 여는 마중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미국, 호주 등과 같이 영구체류를 전제로 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경험이 없는 한국에는 숙련 전문인력의 장기체류를 유도하는 것이 이민 국가로 가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단순기능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기능을 습득한 후 전문기능직으로 체류자격을 바꿀 수 있는 비자의 쿼터가 올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늘어난 것은 맞는 방향이다. 일본은 실습생으로 입국해 기능을 습득한 뒤 전문기능직으로 전환된 경우가 80%에 달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할 해법으로 '이민 활성화'를 제시했다. 다양한 기능과 역량을 지닌 외국인 근로자들이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다면 한국 사회에 바람직한 이민 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다.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경제학

다 훨씬 많다. 대만의 불법체류 외국인은 한국의 4분의 1, 일본의 불법체류자는 한국의 5분의 1 수준이다. 한국의 불법 체류자 중 사증 면제 등 단기 방문 체류자격자의 비중이 3분의 2가 된다. 이는 보다 엄격하고 실효성 있는 출입국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높은 불법 체류자 비중은 기존 제도에 상당한 허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노동 시장이 필요로 하는 외국 인력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고용허가제 틀 밖에서 민간 주도 아래 도입되는 일반기능직 체류자격자 상당수는 불법 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송출국에서 현지 기능 검정을 받고 채용되는데, 일반기능직 비자를 얻기 위한 취업 알선비가 1000만원이 넘는다. 과도한 취업 알선비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체류한다는 것은 과거 산업연수생 제도의 경험이기도 하다. 지자체가 주관하지만 지자체 역량과 인프라 부족으로 실질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계절근로자제도, 연근해 어업 등 선원 취업제도도 불법체류자 양산의 통로이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외국인인 10명 중 3명, 선원 취업제도

의 외국인인 10명 중 4명이 불법체류자이다. 이 역시 일반기능직 제도와 마찬가지로 취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이유로 지적된다.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여러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낳는다. 산업 현장의 안전과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일례로 건설 현장에서는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으로 작업지시를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과 경험 부족은 안전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동시에 'LH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서비스업도 마찬가지다. 처우가 낮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요양병원에서 필요인력을 법적으로 취업이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있다. 많은 외국인이 단기 비자로 들어와 취업하고 3개월 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형태로 취업하고 있어서 요양병원 입원자가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도입 20년 앞둔 고용허가제, 진화 필요

이번 기회에 내면되면 도입 20년이 되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이 필요하다. 고용허가제는 그동안 뿌리 산업 등 중소기업 경쟁력 유지에 크게 기여해왔다. 고용허가제로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30인 미만 사업체, 제조업에 주로 취업하고 있다. 공공 부문 주도로 인해 투명성은 높이지고 송출 비용은 낮아져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에서 많은 국가에 모범 사례로 제시하며 벤치마킹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이민의 시대'로 진입하는 현실점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정책의 큰 축인 고용허가제가 한 단계 진화하여야 한다.

우선 여전히 한국어 능력 평가 위주인 선발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구직자에 제공되는 한국 사업

장 정보가 미흡한 것도 문제다. 그 결과 사업장 배치 후 다수의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기능이 기대치 이하여서 실망하고, 많은 근로자는 고용 조건이 기대보다 열악하다는 사실에 좌절하며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송출국 현지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능 검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한국어 능력 시험도 산업 현장에서의 한국어 구사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업장에 대한 정보 제공도 구직자들이 원하는 형태와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고용허가제의 탄력성도 높여야 한다. 현재 3년 이상 체류를 전제로 하는 제도를 개편해 계절근로자처럼 1년 미만의 단기적 수요에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체류 지원 예산 삭감은 문제

전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지원 서비스도 충분하지 않다. 이들에 대한 체류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법적 경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2020년 말 농촌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 사례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도 법적,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하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는 출신국 근로자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정보 부족으로 사기 피해 등을 입은 사례가 다수 있다. 2019년 상반기 산재로 인한 사망자의 10%가 외국인 근로자였다. 미숙한 한국어 소통이 원인의 하나인 것으로 지적된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및 체류 지원을 공공이 주도하되 일본, 대만, 싱가포르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니 최
Realtor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추천 투데이 리스팅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스테이시 양
Realtor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p>UNDER CONTRACT</p> <p>Pikesville</p> <p>\$939,000</p> <p>싱글홈, 방5, 화4, 차고2</p>	<p>UNDER CONTRACT</p> <p>Columbia</p> <p>\$889,000</p> <p>싱글홈, 방4, 화3, 차고2, 큰 렌치스타일 리버힐고교 학군</p>	<p>SOLD</p> <p>Ellicott City</p> <p>\$819,000</p> <p>싱글홈, 방5, 화4, 차고2</p>	<p>COMING SOON</p> <p>Woodstock</p> <p>\$649,000</p> <p>타운홈, 방3, 화2.5, 차고1, 3000sf</p>	<p>UNDER CONTRACT</p> <p>Hanover</p> <p>\$588,000</p> <p>타운홈, 방4, 화4, 3024sqft</p>
<p>UNDER CONTRACT</p> <p>Hanover</p> <p>\$570,000</p> <p>타운홈, 방3, 화2.5</p>	<p>UNDER CONTRACT</p> <p>Laurel</p> <p>\$547,000</p> <p>2023 New Home, 방3, 화2.5, 차고2</p>	<p>UNDER CONTRACT</p> <p>Gaithersburg</p> <p>\$525,000</p> <p>타운홈, 방3, 화3, 차고2</p>	<p>SOLD</p> <p>Hanover</p> <p>\$490,000</p> <p>타운홈, 방3, 화3.5, 차고1</p>	<p>SOLD</p> <p>Perry Hall</p> <p>\$450,000</p> <p>타운홈, 방4, 화3.5, 차고1</p>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p>RENT</p> <p>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p>	<p>RENTED</p> <p>Silver Spring</p> <p>월 \$2,700</p> <p>타운홈, 방3, 화장실2.5, 내부수리 완료</p>	<p>RENTED</p> <p>Columbia</p> <p>월 \$2,500</p> <p>타운홈, 방3, 화장실2.5</p>	<p>RENTED</p> <p>Odenton</p> <p>월 \$2,000</p> <p>콘도, 방2, 화1</p>	<p>RENTED</p> <p>Pasadena</p> <p>월 \$2,400</p> <p>타운홈, 방3, 화3, End Unit, 전체마루</p>	<p>RENTED</p> <p>Ellicott City</p> <p>월 \$2,100</p> <p>콘도, 방2, 화장실2, LOFT</p>	<p>RENTED</p> <p>Ellicott City</p> <p>월 \$2,000</p> <p>콘도, 방2, 화2, 섀름</p>
--	---	---	---	---	---	---

주가 멀티플 최고치 ... 능동적 리스크 관리 필요

<기업의 주당 수익 대비 주식값>

시장 분석 및 경기 전망

지난해 10월 말부터 진행된 반등국면이 지난 7월 말 고점을 찍은 이후 소폭 하락하며 현재까지 새로운 반등 고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다시 주저앉을 것인가, 상승 국면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전문가들은 연말까지는 대체로 상승 기조가 지속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지만,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가장 큰 '리스크'로 꼽고 있다.

▶ 좋은 지표가 나쁘다

2분기 기업실적이 상당히 양호했다. 고용지표도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지만 여전히 견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등 기타 경기 지표도 애초의 예상치를 웃돌며 불황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이런 데이터들은 일반적으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좋은 소재들이다. 그러나 지금은 달갑지 않다. 인플레이션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잡혀가고 있지만, 생각보다 경기가 좋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 기조가 강화되거나 기대보다 더 오래 유지될 가능성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 지난 8월과 9월 상황

8월에는 다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나 2023년 전체를 볼 때 시장은 8월 말 S&P500 기준으로 17%가 올랐다. 물론, 이 성적은 '메가테크' 기업들 탓이다. 메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등 7대 하이테크 기업들이 올해 들어 66% 상승했다. 이들 7대 기업을 빼 나머지 493개 기업의 성적만 보면 5% 오르는 데 그쳤다. 불과 10개 미만의 종목들에 대한 편중이 너무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말 이후 진행된 반등장에 대해 너무 후한 점수를 주는 것은 어렵다.

그렇다고 부정적 해석만 할 필요는 없다. 기업들의 규모를 배제한 동일가중지수(equal weight index) 차원에서만 볼 때 8월 말까지의 S&P500의 성적은 7%를 상회했다. 4분기도 이전 3분기의 흐름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주식 수익률과 연방 국제 수익률의 차이가 매우 좁은 상황으로 사고 기다리는 것보다 능동적인 리스크 관리와 자산운용 전략이 필요하다. 트레이더들이 주가 동향을 살피고 있다. [로이테]

증시 반등과 오름세 지속하고 있어 '메가테크 기업'에만 편중은 부정적 3분기 경기 호조·지속 여부 불확실 가장 큰 위험 변수, 연준 정책 실수

동일가중지수로도 두 자릿수 성적이 가능한 상황이다. 역사적 평균 수익률이 10% 안팎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나쁜 성적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최근의 단기 하락세가 양호한 경기지표들 속에 나타난 것이어서 부정적 진단을 하기엔 적절치 않다.

역사적으로도 8월과 9월은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편이었다. 이런 계절적 요인과 함께 지난해 말부터 회복세가 지속했기 때문에 일부 이익을 실현하려는 동인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추세가 바뀐 것이 아니라는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실제 하락 폭도 7월 말 반등 고점을 기준으로 5% 안팎이기 때문에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경험치로도 5% 안팎의 하락은 연평균 3회 이상 있어 왔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현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 낙관 지표

불확실성이 있다. 좋은 지표들과 나쁜 징후들이 뒤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

문이다. 현재 긍정적 지표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내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GDP 수치다. 메이저 은행들의 경제학자들 전망치를 취합하는 블룸버그 추정치는 3분기 GDP를 평균 2.2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다 직접 반영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연)의 'GDPNow' 3분기 추정치는 현재 5%대 성장률을 가리키고 있다. 통상 블룸버그 수치보다 애틀랜타 연연의 수치가 더 정확한 경제현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미국의 경제활동은 상당히 왕성한 셈이다.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PCE) 역시 현재 계속 하락세를 지속해 타깃으로 삼고 있는 2% 선에서 그리 멀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시장도 점차 둔화 조짐을 보이며 신규 일자리 수가 월평균 10만 개 선으로 내려왔다. 고용시장 둔화 자체는 '나쁜' 소식이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이

상은 반가운 현상으로 읽힌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중요한 기대 인플레이션도 현재 역사적 평균치에 근접한 상태다. 기업의 마진율도 사상 최고 수준이고, 반면 채무 부담은 낮은 수준이다. 가계의 가처분소득 수준 역시 사상 최고치인 반면 채무 부담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기업들의 설비투자, 소비, 정부지출 등은 모두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며 경기를 견인하고 있다.

▶ 비판 지표

고용시장 둔화는 일단 경기둔화의 신호탄으로 읽을 수 있다. 임금 수준도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국제이자 수익률의 역전상황은 이제 사상 가장 오래 지속하는 기록을 세웠다. 역사적으로 불황은 늘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을 동반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편차는 있지만, 평균 2년 정도 후 불황이 시작됐다.

경기 전반이 최근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런 호조가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정부의 과잉지출과 연준의 정책 실수는 계속 지켜봐야 할 리스크 변수다. 연준이 고용시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하강속도가 기대보다 더디다고 판단할 경우 긴축 기조가 강화되거나 필요 이상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 이는 필연

적으로 경기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과잉지출은 연방 적자를 심화시키면서 이 역시 결국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계속 빚을 내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이지만 채무 부담이 위험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제 수익률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결국 민간의 자금 경색과 경제활동 위축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연준 역시 추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된 양적 완화로 비대해진 몸집을 줄이기 위해 국채를 푸는 방식을 통해 긴축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 이 역시 국제이자 수익률에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다시 정부의 채무 부담을 가중하게 되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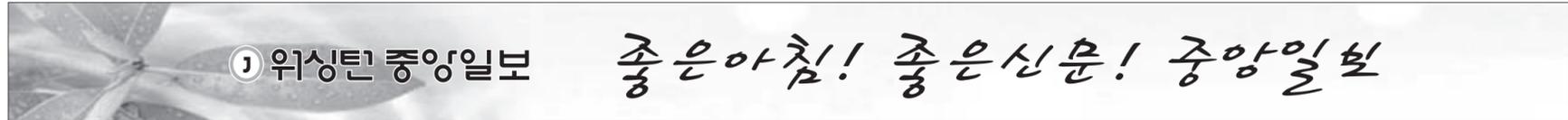
▶ 과대평가된 주식값과 자산관

현재 미국 하이테크 기업의 주당 수익 대비 주식값 멀티플(multiple)은 거의 27배다. 역사적 평균치는 18배. 테크 회사들을 포함한 전체 미국 주식값 멀티플의 역사적 평균치는 16배이지만 지금은 20배 가까이 올랐다. 그만큼 이익률도 많이 떨어져 있다.

국제 10년물의 수익률과 비교할 때 차액이 1%포인트로 줄어든 상태다. 역사적 평균치는 2%포인트 선이다. 이는 곧 이른바 무위험 자산으로 간주되는 국채에 비해 위험을 수용하는 대가가 너무 적다는 뜻이기도 하다. 쉽게 말해 안전자산인 국채에 비해 너무 비싸다.

주식의 이익률과 연방 국제 수익률의 차이가 1% 수준일 경우 향후 5년간 주식의 수익률 경험치는 연평균 6.4% 선이었다. 이는 역사적 평균치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투자자들이 대비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막연하게 '바이 앤 홀드(buy and hold)'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능동적인 리스크 관리와 자산운용 전략이 필요하고, 더 적절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2024 메디케어 보험 변경기간 및 신청

(10월 15일 ~ 12월 7일)

무료상담과 신청

더 좋아진 "추가 혜택"을 꼭 확인하세요! "65세 되실 분 상담 환영"

어드벤처(C플랜) 서플리먼트 갭 플랜 약 보험

치과

안과

보청기 혜택

비처방약 혜택

운동시설 혜택

- ◆ 보험변경 하실분
- ◆ 1959년생
- ◆ 약커버가 안되는 분
- ◆ 메디케이드 소지자
- ◆ 파트 B 보험료 보조옵션

자유롭게 의사 선택을 할 수 있는 플랜에 대해 전화 주세요!

☎ 703-591-0009 / 703-537-9899



조은혜 종합보험

571-232-0702 | 703-591-0009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페어팩스 법원 건너편/모스비 타워)

Partner
보험회사

앤티 / 에트나 / 유나이티드
휴메나 / 케어힐스트 / 웰케어

PART 21. 몸과 마음 관리 마인드 - 수면이... 사업 성공의 무기?

돈, 사람, 건강을 다 가질 수 없다면 무엇을 먼저 포기하겠는가? 돈을 잃으면 약간 잃은 것,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는 말이 있다. 모두들 그렇다고 끄떡이지만, 대다수는 반대로 살아간다.

스몰비즈니스 업주라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삶이 어느새 낯설지 않은 일상이 돼버렸는지 모른다. 내 사업이 아니라도, 무리할 만큼 시간을 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이젠 무언가 바뀌어야 할 상황으로 보길 바란다. 지나치게 쏟아 붓는 시간, 곁에처럼 아슬아슬한 건강 위험은 어떤 경제적 혜택으로도 바꿀 수 없다. 내가 가진 가장 귀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마법의 과제 리스트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소기업주나 자영업자, 그들이 일과를 다 해내기 위

해 시간 부족을 느끼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과제 리스트는 마법처럼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남의 일 같지 않다면, 지난 번에 이어 오늘도 가슴에 다가올 내용이 되리라 믿는다.

▷위험한 베팅

더 많은 일을 혼자 해내려면 끝판에 부딪히는 장벽이 있다. 이때, 많은 업주는 수면 시간 절약이라는 위험한 베팅을 한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상황을 바꾸는 비밀은 수면과 휴식 줄임이 아니라 늘림이다.

▷사업체 파괴의 주범

덜 자고 일을 하면 더 많이 번다는 논리는 시간제 근무자에게 어느 정도 먹힐 수 있다. 하지만, 작은 사업체라도 성장을 원한다면 그런 도박은 성장이나, 사업 파괴의 주범일 수 있다.



윤필홍
IntelSystems대표

쉽의 결핍은 사업 성장에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 올바른 의사 결정 능력과 인지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이미 알려져 있다. 특히, 만성 수면 부족은 불안, 우울증 및 다양한 건강 위험과도 직결되어 있다. 한마디로, 휴식의 부재는 사업체를 더 어렵고, 꼬이게 하는 반대의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다.

단기적으로는 생산성과 창의력 저하, 의사결정 실수 등을 발생시키지만, 장기적 결과는 더욱 무섭다. 만성적 건강 문제까지 확대되고, 관계와 삶의 질에도 파괴적 충격을 준다.

치열한 경쟁 판에서 발 빠른 변화와 도약을 위해 늘 배우고 생각해야 하는 오퍼에겐 더욱 그렇다. 단순한 시간 벌이 효과를 잡으려다가, 도약의 기회도, 생존 경쟁력마저도 놓쳐버릴 때가 많다. 중장기적 건강 문제까지 포함한다면, 경쟁력은 수면 차단이 아니라 수면 채움이다.

▷수면이 경쟁력?

넉넉한 휴식은 바쁜 사업주에겐 마치 사치처럼 들리는 시대이다. 하지만, 쉬운 리더에게 경쟁력 향상을 선물해 준다. 충분한 수면은 고도의 집중력과 눈부신 창의력으로 경쟁사를 앞지르

는 아이디어, 지지치 않는 의지와 활력을 모두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자. 피로함과 의욕 상실이 오늘의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다시 솟아나는 출구가 바로 잠시의 쉼일 수 있다.

수면과 휴식 박탈이 가져오는 결과적 효율성은 심각하게 의문스럽다. 수면과 휴식을 희생하는 것, 결국엔 값야 대출과 같다. 건강과 사업을 둘 다 잡으려면 포기하면 안 되는 필수 항목임을 절대 잊지 말자.

돈, 사람, 건강을 다 가질 수 없다면 먼저 무엇을 붙잡겠는가? 건강을 우선으로 챙기고 관리하면, 결국은 모두 다 찾아올 수 있다.

▷스몰비즈니스세일즈마케팅 문의,

무료 ebook 문의:703-337-0123,

www.intelisisystems.com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엄기욱

Mountain LLP · CPA

세금보고 미신고 시 불이익

주식 거래 시 손실·매매 차익 보고 신고 누락하면 법적 시효는 무기한

대부분 납세자가 2022년 개인 소득세 신고를 마쳤을 것이다. 하지만 연장 신청을 한 납세자들은 오는 10월 15일까지는 2022년 소득세 보고를 마쳐야 할 것이다.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국세청(IRS)에 따르면 매년 제출되는 각종 세금보고 건수는 약 2억4000만 건에 달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법에 정한 일정 금액(Filing Threshold)

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다. IRS는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기를 권장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이 기준 이하라고 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식 거래를 해서 손실을 보았거나 매매 차익이 몇천 달러밖에 되지 않아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IRS에서는 세금보고서를 받지 않고서는 주식을 판 금액만 보고받기 때문이다. 만약 1년 전에 5만 달러에 산 주식을 4만8000달러에 팔아 2000달러 손해를 보고 처분했을 때 소득이 마이너스이어서 세금보고를 안 했다면, IRS에서는 얼마에 샀는지 모르기 때문에 4만8000달러 전액을 소득으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특히 주식 거래를 한다면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매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다.

IRS의 감사에 대한 법적 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다. 세금보고를 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IRS에서 더는 감사

를 할 권한이 없어진다. 단, 만약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 시효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료되지도 않는다. 기한 없이 무한정 IRS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다. 가끔 납세자가 수년 전에 세금을 안 낸 것이 있다며 갑자기 Back Tax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바로 당시 세금보고 미신고된 것이 발견된 경우이다.

연말 정산서인 W-2와 Form 1099, 은행 이자 등은 해당 납세자에게 발부되면서 IRS에도 함께 보내진다. IRS는 이렇게 제삼자에게서 받은 데이터들을 해당 납세자의 세금보고서와 대조하여 소득 누락 여부를 교차 확인해서 만약 누락된 소득을 발견하면 해

당 납세자에게 SFR(Substitute for Return) Notice를 발부하게 된다. SFR은 IRS가 대신 작성한 세금보고서로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계산되어 있다.

SFR을 받을 경우에는 IRS가 작성한 SFR을 인정하고,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 하지만 이 경우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많이 내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누락된 소득에 대한 정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IRS에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제대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한다면 SFR 상의 세금에 비해 상당히 적은 금액만 추가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You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is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유튜브광고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고양이 식사로 '연역법'도 설명한 지식인



그 많은 개념어는
누가 만들었을까
아마토도 다카미쓰 지음
지바원 옮김
메멘토



앞줄 오른쪽 끝 사람이 니시 아마네. 19세기 중반 네덜란드 유학 시절의 사진이다.

[사진 메멘토]

‘서양 학술용어 번역과 근대어의 탄생’이란 부제가 전체를 요약한다. 과학·철학·학술·문장·문학·예술·연역법·귀납법·실험·시험·물리·심리 등 서양에서 건너온 개념과 용어를 19세기 일본에서 이렇게 옮긴 연유와 그 과정의 고민과 해안을 살핀 책이다.

지은이는 학술·학술사의 독립연구자. 서양에서 옮겨온 지식과 번역의 문제를 파고들다 일본의 계몽사상가이자 서양철학자·교육자였던 니시 아마네(西周·1829~97)를 알게 된다. 니시는 유학을 공부하고 1863년 네덜란드 유학 후 귀국해 프랑스어 등을 가르치고 저술·번역·강의를 했다. 동양의 한학을 바탕으로 서양의 개념·용어를 새롭게 흡수하고 한자어로 제대로 옮기려고 애쓴 전환시대의 지식인이다.

그가 도쿄사범대 교장이 되기 전, 사숙(私塾·개인학교)을 운영하던 1870~71년 강의 내용을 제자가 필기한 『백학연환(百學連環)』이 이 책의 바탕이다. 지은이는 이를 독해하며 동서양 학문이 만나는 과정과 니시의 노력을 밝혀냈다.

필기내용은 150년 전의 것이라곤 믿을 수 없을 정도. 예로 현재는 논리학으로 부르는 신지리학(新致知學)이란 항목 아래 알파벳으로 영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이름과 연역법과 귀납법이란 용어가 등장한다. 논리학에 몰두했던 밀을 연구한 흔적으로, 니시의 집

요함을 보여준다.

번역에는 고대 그리스어, 갑골문자, 금석학 연구까지 동원했다. 예로 ‘과학과 예술(Science and Arts)’은 학술기예(學術技藝)로 옮겼다. 니시는 “학(學)자는 배운다는 뜻의 동사로, 스승이 아이를 가르치고 보호하는 모양을 하고 있다”며 “술(術)자는 목적인 바가 있어 그 길을 간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를 지은이는 “길을 따라간다”는 어원의 고대 그리스어 메소도스에서 온 영어의 메소드(Method·수단이나 방법)라는 개념까지 끌어들이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론(Theory)과 실천(Practice)은 관찰과 실제로 각각 옮겼다. 지은이는 “관찰이라는 니시의 번역은 어원인 고대 그리스어 테오리아가 ‘봐서 알게 된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온 것

이라며 “(지금은 바뀌었지만) 사실은 상당히 훌륭한 번역”이라고 평가했다.

‘백학연환’은 백과사전(Encyclopedia)의 초기 번역이다. 니시는 “고대 그리스어 ‘엔클리리코스 파이데이아’에서 온 것으로 이는 아이를 바퀴 안에 넣어 교육한다는 의미”라고 번역 연유를 밝혔다. 지은이는 니시가 19세기 독일 대학에서 철학자 헤겔 등이 했던 ‘엔치클로페디 및 방법론’이란 이름의 기초교양 교육을 파악하고 이런 번역을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당시로서 생소했을 서양의 사고방식을 제자들에게 쉽게 가르치려고 애쓴 모습도 보인다. ‘개별 사실에서 일반 원리를 추론하는’ 연역법은 “고양이가 쥐를 먹을 때처럼 가장 중요한 머리에서 몸통, 네 발, 꼬리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맹자가 성군인 요임금과

순임금을 예로 들며 성선설을 설파한 것과 같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일반적 원리에서 개별 사실과 명제를 추론’하는 귀납법은 반대로 “사람이 반찬을 먹듯이 우선 가장 맛있는 부분을 조금씩 먹고 마지막에는 먹을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먹는 것”으로 비유했다.

니시는 인문학뿐 아니라 자연과학 용어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기 쉬운 한자로 옮겼다. 예로 독일 화학자 빌헬름 분젠(1811~99)은 태양빛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연구를 했는데 니시는 이를 ‘관광분해술(觀光分解術)’로 옮겼다. 오늘날 ‘분광분석’에 해당한다. 한자 문화권은 치열한 지식인 니시에게 너무도 많은 빛을 지고 있다. 원제 『百學連環』를 읽는(백학연환을 읽다).

채인택 전 중앙일보 전문기자

동네 떡 돌린 엄마 속뜻 몰랐던 아들



반에 반의 반
천운영 지음
문학동네

서울 연남동에 스페인 식당을 차렸던 그녀가, 펭귄이 뛰노는 남극에 빠져 지낸다면 그녀가 다시 소설로 돌아왔다. 소설가 천운영이 10년 만에 펴낸 소설책이다. 단편소설 9편을 묶었다.

‘작가의 딸’부터 읽어 보자. 새 소설집의 관심사가 강렬하게 요약돼 있다. “어린 여자아이의 성기에서 출발했는데 도착해보니 늙은 여자의 젖통이다.”

누가 뭐래도 이런 문장은 천운영이 니까 쓸 수 있는 문장 같다. ‘여자아이 성기’는 20여 년 전 중단 단편 ‘바늘’에 대한 언급. 이 작품에 남성 몸에 새겨진 바늘 문신을 여성 성기에 빚대는 대목이 나온다. ‘늙은 여자의 젖통이’는 당연히 이번 소설집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수록 단편들에 그려진 여성들의 가슴은 작가의 말과는 판판이다. 이 여성성은 나이 드는 법이 없다. 어머니라서 그런 것 같다. 신체의 다른 부위는 쪼그라들어오 이긋만큼은 여전히 건강하고, 팔 앞땀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털어낸 것처럼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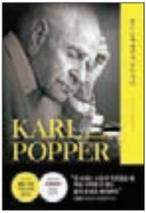
이런 어머니 혹은 아내 앞에서 아들이나 아버지는 한껏 주눅 들거나 염치 없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표제작 ‘반에 반의 반’이 주눅 든 아들의 이야기. 어머니는, 피죽도 먹기 어렵던 시절 자식들은 굶길지언정 한사코 떡을 만들어 동네 사람들에게 돌렸다. 떡이 아니라 인심을 돌린 것. 그렇게 쌓은 인덕으로 어머니는 결국 면서기였던 아버지를 살렸다. 죽창 들고 몰려온 동네 사람들 가운데 어머니 떡 얻어먹지 않은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 어머니가 늘그막에 낮 뜨거운 장면을 연출한다. 거의 벌거벗다시피 한 체계곡물에 뛰어들어 또래 남정네들과 놀아난 것. 아들은 옆에 있었지만 훗날 이 장면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보다 중요한 건 이런 것이다. 아들은, 자식들은 어머니를 반에 반의 반도 모른다는 점 말이다.

아름다운 소설 ‘아버지가 되어주소’는 평생 아내를 부려 먹고도 그런 사실을 의식조차 못 하는 철딱서니 없는 남편의 이야기다. 천운영은 쓴다. 아버지 혹은 남편의 역사가 투쟁의 역사라면, 어머니나 아내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라고.

신준봉 기자

책꽂이



삶은 문제해결의 연속이다 (칼 포퍼 지음, 허형은 옮김, 포레스트북스)=『열린 사회와 그 적들』로 이름난 철학자 포퍼(1902~94)가 생전 펴낸 마지막 저서. 1부는 자연과학에, 2부는 역사·정치사에 방점을 둔 기고·강연문 등을 실었다. 저자는 “진보는 자연법칙이 아니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도덕적, 윤리적 진보를 위한 노력을 강조한다.



꿈을 짚는 공방 (한성우 지음, 파롤엔)=‘철로를 사랑하는 목수’이기도 한 국문학자가 펴낸 산문집. 『평안북도 의주 방언의 음운론』 등 10여 권의 한국어 관련 연구서를 낸 필자가 나무·말·음악을 소재로 쓴 글을 모았다. 우리말을 찾고, 다듬고, 짜 맞추는 일을 해온 필자의 모국어에 대한 애정이 느껴진다. 일상 속 사색의 깊이가 여운을 준다.



골목안 풍경 (김기찬 지음, 눈빛)=1970~90년대 서울 중립동 등 골목에서 포착한 삶과 사람이 진하게 묻어나는 사진집. ‘골목 사진가’ 김기찬(1938~2005)이 생전 출간한 사진집에 수록했던 사진, 유적이 보관한 1만장 중에 엄선한 사진을 합쳐 277점 실었다. 관련 전시도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인텍스에서 열린다.



감각의 박물관 (다이앤 애커먼 지음, 백영미 옮김, 작가정신)=시인이자 박물관학자인 저자가 후각, 촉각, 미각, 청각, 시각, 그리고 공감각 등 여섯 가지 감각에 대해 그 기원과 진화 과정, 문화적 차이와 역사적 유사성 등을 예술·철학·인류학·과학을 넘나들며 살핀 1990년 저서. 2000년대 초 처음 나왔던 우리말 번역본을 다시 펴냈다.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융자는 그린웨이 펀딩 그룹 **배준원** 융자에 맡겨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reenwayhomeloans.com
(NMLS# 178471)

미팅 모임 장소가 필요하세요?
센터빌 오피스 미팅룸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월-토)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마이트 건너편 위치)

VA, MD, DC, NC, DE, TX, PA, WV, GA, SC, FL

Greenway Funding Group,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CSB,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Delaware Office of the State Bank Commissioner,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West Virginia Divis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Georgia Department of Banking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Finance License Numbers: DC M.L.B. 1108695; MD 06-20828; NC L-161472; VA MC-5777; DE 030649; TX - PA 101075; WV ML-1108695; MB-1108695; GA 1108695; SC 1108695; FL MLD2368 Greenway Funding Group Inc. NMLS# 1108695 www.nmlsconsumeraccess.org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Diane Mun Lee)

대표 / Principal Broker

워싱턴 한인 부동산 협회 초대 회장

703.534.4989

megarealty@gmail.com

VA, MD, DC

Mega Realty & Investment, Inc.

4600 John Marr Dr, #201, Annandale, VA 22003 (본사 사육/한강식당 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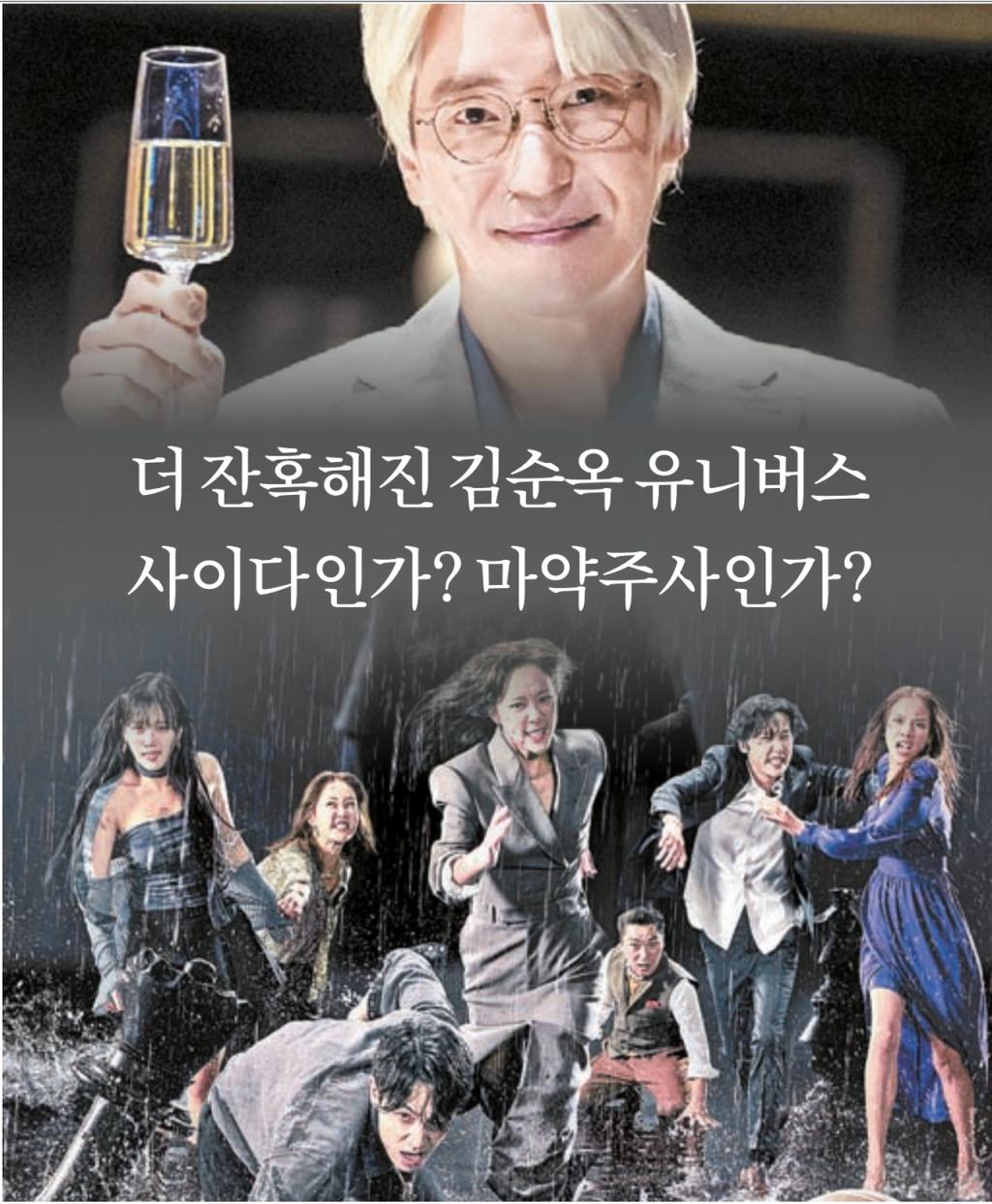
미혼모가 딸을 길바닥에 버리고 연에게 투신한다. 십여년 후 양부모가 잘 키워놓은 고등학생 딸을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데려온다. 그런데 딸이 교내출산 가짜뉴스에 휘말려 문제가 되자 공갈범에게 딸을 죽이라고 사주한다. 한밤의 총성과 함께 딸은 사라지고, 딸을 모함한 아이돌 지망생과 손잡고 미혼모는 승승장구한다.

장안에 화제인 SBS 드라마 '7인의 탈출(이하 7탈)' 여주인공 금라희(황정음)의 피도 눈물도 없는 서사다. 시청률 30%를 기록하며 미니시리즈계에 막장드라마의 새장을 열었던 '펜트하우스(이하 펜하)' 김순옥 작가와 주동민 PD 콤비가 새로운 차원의 '피카레스크 복수극'을 천명한 신작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거짓말과 욕망이 뒤엉킨 한 소녀의 실종에 연루된 악인들의 생존 투쟁과 그들을 향한 피의 응징을 그린다는 게 기획 의도다.'

내년 3월에 시즌2 방영 확정

'7탈'은 '펜하'보다 막장 수위가 훌쩍 높아졌다.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등 비현실적이고 개연성 없는 전개를 기본 전제로 깔고 봐야 한다는 '순옥적 허용'이란 말이 원래 있지만, '순옥드(김순옥 드라마)'는 이제 막장을 넘어 잔혹의 반열에 올랐다 할 만하다. 원조 교제·교내출산·청부살인 등 온갖 자극적인 사건이 폭주하듯 휘몰아치며 단 2회 만에 TV드라마 화제성 1위에 올랐고, 최고 시청률 7.8% (닐스코리아)로 전 채널 동시시간대 시청률 1위를 사수하고 있다. 초반 인기로 이미 내년 3월 시즌2 방영이 확정됐지만, 방심위에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고 SNS에서도 '임계점을 넘었다' '내가 환각을 보는 듯하다' '영혼이 피폐해진다'는 반응이 대세다.

순옥드는 폭주를 해도 여전히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로서 입지가 굳건한 셈이다. 최고 시청률 37.5%를 찍은 일일드라마 '아내의 유혹'(2008)으로 이름을 알린 김순옥 작가는 '인어아가씨' '오로라공주'의 임성한 작가와 함께 막장계 투톱으로 꼽힌다. 임성한 의 최근작 '아씨 두리안'이 웹소설 마스터플롯을 차용한 '회빙환(회귀·빙의·환생)' 코드에 고부간 동성애 코드라는 설정을 더한 로맨스 판타지로 타깃층을 갈깃자로 해며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면, 김순옥의 행보는 다르다. '아내의 유혹'부터 일관되게 '복수'에 천착한 순옥드는 그 자체로 장르가 됐다. 탐욕으로 점철된 인간 군상의 암



김순옥 신작 '7인의 탈출'은 역대급 자극적 전개로 막장드라마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사진 SBS]

더 잔혹해진 김순옥 유니버스 사이디인가? 마약주사인가?

원조교제·교내출산·청부살인 등 자극적인 '피카레스크 복수극'

투와 롤러코스터 급 쾌속 전개,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을 촘촘히 버무린 '순옥드'라는 세계관이 탄탄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자극은 없었다. '7탈'은 19금을 내건 5화 이전에도 OTT 콘텐츠가 울고 갈 만큼 강렬한 사건과 충격적 반전의 연속이다. 낯선 용어인 '피카레스크 복수극'을 내세워 서일개. '피카레스크'는 사전적 의미와 별개로 요즘엔 주로 웹소설에서 악인이 주인공이거나 모든 인물이 악인의 성향을 띄는 형식을 가리키는데, 그 악행의 파노라마가 점입가경이다.

최근 '빈센조'(2021)를 시작으로 '모범택시' '악마판사' '더 글로리'까지, 사적 복수를 하는 다크 히어로물이 많았지만, 대체로 다크 히어로들은

흑화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7탈'에서 악의 단죄자로 등장한 매튜 리(엄기준)도 방다미(정라엘)를 추락시킨 가짜뉴스의 또 다른 희생자 이휘소(민영기)가 흑화한 다크 히어로다. 그런데 다크 히어로 위에 최종 빌런이 있다는 게 다르다. 복수극 플롯에 '오징어게임(이하 오겜)'류의 데스게임 컨셉까지 얹어 이해관계가 난수표처럼 얽힌 등장인물들이 난투극을 벌인다.

점점 막장이 고도화되는 김순옥 유니버스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과연 이대로 폭주해도 괜찮은 걸까. 강도 높은 막장이 마냥 해롭지만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심리학자인 조지선 연세대 객원교수는 "최근 학계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콘텐츠의 시청자들이 실제 팬데믹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심리적 탄력성이 높더라는 흥미로운 연

구가 있었다"면서 "폭력·위선·차별·인간성 파괴 같은 삶의 어둡고 무서운 면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콘텐츠로 간접경험한 사람이 실제 위기가 닥쳤을 때 멘탈을 빨리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라고 소개했다.

눈에서 레이저 광선을 쏘는 임성한 식 막장에 비해 리얼리즘에 기반한 순옥드에는 '길티 플래저'가 있다.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들을 대놓고 까발리는 데서 오는 쾌감이다. '펜하'가 상류사회의 부동산 전쟁과 입시비리 등 한국사회의 고전적 병폐를 까발렸다면, 최신 버전인 '7탈'이 까발리는 건 바로 지금 욕망의 용광로가 된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그 욕망의 찌꺼기와 같은 SNS 가짜뉴스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게 된 현실이다.

가짜뉴스 공화국 안에서 '과거가 아니라 전생까지 파헤쳐지는' 엔터업

계 정상에 오른 금라희와 한모네(이유비)는 더 큰 탐욕을 불태우는 중이고, 그 탐욕을 미끼 삼은 데스게임의 설계자는 엔터 업계를 쥐락펴락하는 굴지의 모바일 플랫폼 총수다. 눈을 가린 수많은 사람들이 작은 단말기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것을 표현한 오프닝 영상은 데스게임에 영문도 모른 채 참여하고 있는 평범한 우리 모습이다.

비난 일색인 댓글에서도 나름의 순기능을 발견할 수 있다. '다같이' 욕하면서 보는 쾌감이다. 조지선 교수는 "그런 댓글이 반증하는 게 우리가 집단적으로 어떤 게 선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드라마가 던진 이야기 거리에 대해 같이 욕하고 할 말이 많다면 우리의 흥미를 자극했다는 것이고, 다들 나처럼 화가 나 있음에 동질감을 느끼고 공유하는 데서 쾌감을 즐기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비난이 대세인 이유가 있다. '임계점을 넘었다'는 자극적 표현의 수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허구 속에서도 진리를 드러내는 팝진점으로 시청자를 설득하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이영미 대중문화평론가는 "자극적인 표현이 그 자체로 목표인가, 자극으로 끌어들이 의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목표인가가 문제"라면서 "'오겜'처럼 엄청난 자극적이라도 그것 없이는 도달하지 못하는 성찰과 각성이 있다면 아무도 '막장드라마'라고 부르지 않는다. 자극적인 표현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임에도 자극이 가장 주도적인 동력이 되다 보면 갈수록 시청자의 반응이 무뎠지니 더욱 더 강도를 높여 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해외서도 폭력 난무 막장 인기

'7탈'은 아직 시청자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강한 자극만큼 이야기의 밀도가 치밀하지 않고, 최종 빌런의 정체도 오락가락 한다. '오겜'에서 게임 속에 들어와 있던 최종 설계자 오일남 노인을 패러디한 듯 여러 장면에서 복선으로 등장한 'K'(김도훈)가 재벌로 암시되며 모든 이들을 장기 말처럼 움직이는데, 그 이유를 상식적으로 짐작할 수 없다. 거듭되는 반전 속에서 K로 인해 추락한 인물이 K의 흑막으로 암시되는 또 다른 음모를 들고 있으니, 작가의 빅픽처가 과연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맹목적으로 보이는 순옥드의 폭주는 그만큼 암울한 현실을 방증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영미 평론가는 /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무보험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Implant

응급환자
Emergency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invisalign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10월 HOT 리스팅

페어팩스 타운홈

방 3 + 화장실 3.5
2020년
코스코 부근 새 타운홈

\$890,000

센터빌 타운홈

방 3 + 욕 3.5, 차고1
1640sqft
넓은 타운홈, 울수리

\$600,000

센터빌 싱글홈

방 5 + 화장실 2.5
2575sqft, 1983년
차고 2, 울수리단집

\$675,000

싸우스라이딩 타운홈

방 4 + 화장실 3.5
2283sqft, 2004년
차고 3

\$665,000

스프링필드 타운홈

방 3 + 화장실 2.2
1522sqft, 1989년
집 전체 마루

\$630,000

스프링필드 타운홈

방 4 + 화장실 3.1
1702sqft, 1986년
넓은 엔드 유닛

\$650,000

임대주택관리/Top Property Management

세입자와 분쟁 이제 골치아픈 주택관리는 전문 매니지먼트회사에 맡겨주세요! 귀한 자산을 확실히 관리해 드립니다!!

꼭,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 리 브로커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베일랜드 / 301-399-0140 D.C. / 301-399-0140

11350 Random Hills Rd., #870 Fairfax, VA 22030 6701 Democracy Blvd., #300 Bethesda, MD 20817 13001 I St, NW #400E Washington DC 20005

3관왕 '물개' 김우민, 금빛 스매싱 신유빈 "아시아가 좋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났다. 이번 대회에서도 많은 선수가 아시아를 무대로 자신의 기량을 펼쳤다. 요즘 선수들에게 아시안게임은 축제 그 자체다. 기발한 승리 세리머니를 준비하고, 같은 종목 타국 선수를 만나 우정을 쌓는다. 그러면서 '정상'을 향한 욕망은 애써 숨기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이 한가위 보름달 아래 소원을 빌던 지난달 29일, 수영 김우민(22·강원도청)은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 수영 3관왕'이라는 소원을 이뤘다. 그는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관중석을 향해 큰절을 했다. 한국에서 응원 온 부모를 향한 인사였다. 김우민은 "명절에도 먼 길 오셔서 응원 해주신 부모님께 꼭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 또 정말 많이 응원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큰절을 한번 하고 싶었다"며 씩씩하게 웃었다.

김우민은 이번 대회가 배출한 최고 스타 중 하나다. 남자 계영 800m와 자유형 800m에 이어 주 종목인 자유형 400m에서도 이번 없이 금메달을 땀다. 최윤희(1982년 뉴델리 대회)와 박태환(2006년 도하·2010년 광저우 대회)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역대 세 번째로 아시안게임 수영 3관왕에 올랐다.

특히 400m 결선에서 보여준 레이스는 압도적이었다. 출발과 동시에 맨 앞으로 치고 나갔다. 단 한 번도 선두를 놓치지 않고 일곱 번의 턴을 했다. 그때마다 추격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졌다. 300m 지점에서는 이미 다른 선수들보다 몸 하나 이상 앞섰다. 사실상 적수가 없는,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결국 3분44초36의 기록으로 물살을 갈라 2위 판잔리(중국·3분48초81)보다 4초45나 빨리 들어왔다. 지난 7월 후쿠오카 세계선수권에서 세계 5위에 올랐던 김우민은 "내년 2월 도하 세계선수권 3위, 7

월 파리 올림픽 1위가 목표"라고 했다. 부항 자국이 가득한 몸으로 "딱 하루만 수영을 쉬고 다시 준비를 시작하겠다"며 씩 웃었다.

탁구 신유빈(19·대한항공)은 원래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지 못 할 뻔했다.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손목을 다쳐 테크마크를 달 기회를 놓쳤다. 그런데 대회가 코로나19로 1년 연기돼 다시 기회가 왔다. "출전하는 모든 종목(단식·복식·혼합복식·단체전)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겠다"는 마음으로 항저우에 도착했다.

아시안게임 탁구는 3·4위 결정전 없이 준결승에서 패한 두 팀에 공동 동메달을 준다. 신유빈은 첫 세 종목에서 동메달만 주르륵 땀다. 매번 준결승에서 졌다는 의미다. 첫 도전이었던 여자 단체전 준결승에서 일본에 패한 뒤에는 인터뷰 도중 눈물을 흘렸다. 에이스인 그가 1단식과 4단식 주자로 나섰다 두 번 다 져서 그랬다. 신유빈은 "모든 게 항상 내 뜻대로 되진 않는 것 같다.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해서 남은 경기를 치르겠다"고 했다.

그 후 신유빈은 울지 않았다. 여자

김우민, 최윤희·박태환 이어 금 셋 "내년 7월 파리올림픽서 1위 목표"

탁구 여복식 금 신유빈 "너무 신기" 펜싱 구본길 "6번째 금 따 기록 욕심" 정지훈, 첫 정식종목 LoL 챔피언

복식 파트너인 '띠동갑' 언니 전지희(31·미래에셋증권)는 "우리 중 누구에게 그 역할을 맡겼어도 유빈이만큼은 못했을 거다. 유빈이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어깨를 두드려줬다. 신유빈도 곧 특유의 기합을 되찾았다. 혼합복식과 단식 준결승에서 세계 최강 중국에 연거푸 패한 뒤에도 "벌써 동메달이 세 개다. 메달은 다 좋긴 하지만, 이제 색을 한번 바꿔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여유 있게 대답했다.

신유빈은 결국 전지희와 함께 여자 복식 금메달을 목에 걸었

다. 결승에서 북한의 차수영·박수경조를 꺾었다. 시상식에서 미리 준비한 '하트 세리머니'를 펼치다 웃음을 터트렸고, 북한 선수들에게 "같이 사진 찍자"며 친근하게 손짓했다. 테크마크를 흔들다 말고 유심히 살펴보니, "좌우 문양이 바뀌었다"며 고쳐들기도 했다. 밝고 영특한 MZ 세대다. 신유빈은 첫 금메달을 만지작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너무 신기해요. 우리 집에 금메달이 생겼어요!" 열아홉 금메달리스트의 솔직한 '한 줄 평'에 주위엔 웃음이 터졌다.

펜싱 구본길(34·국민체육진흥공단)은 '금메달 수집가'다. 아시안게임에서 만 6개의 금메달을 손에

넣었다. 역대 아시안게임 한국 선수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이다.

그는 이번 대회 전까지 개인전에서 3개(2010·2014·2018년), 단체전에서 2개(2014·2018년)의 금메달을 각각 확보했다. 항저우에서도 목표는 개인·단체 2관왕이었다. 개인전 4연패와 최다 메달 경신을 동시에 이루려고 했다. 단체전에선 금메달을 땀지만, 개인전 결승에서 후배 오상욱(27·대전광역시청)에게 졌다. 5년 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결승에선 구본길이 오상욱을 꺾었는데, 이번 대회에선 반대가 됐다.

구본길은 타고난 승부사다. '공동 1위'에 만족하는 대신 '단독 1위'를 노려보기로 했다. 3년 뒤 열리는 다음 아시안게임에서 7번째 금메달을 추가하면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는 "6번째 금메달을 따고 나니 새삼 '최대' 기록이 욕심났다"며 "후배들에게는 미안하지만, 2026년 열리는 나고야 아시안게임까지 계속 달려보겠다"고 말했다.

구본길은 올해 3월 아들을 얻었다. 그는 "아들이 확실히 '복덩이'인 것 같다. 아들이 아빠가 펜싱 선수라는 걸 인식할 만큼 자라려면, 2026년은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반드시 나고야에 가겠다는 다짐을 그렇게 돌려 말했다.

이번 대회 최고 인기 종목이었던 e스포츠에서도 한국 선수들은 빛났다. 리그 오브 레전드(LoL) 대표팀은 결승전에서 대만을 2-0으로 꺾고 e스포츠가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된 이번 대회 LoL 챔피언에 올랐다. LoL 최고 인기 선수인 '페이커' 이상혁이 감기 몸살에 따른 컨디션 난조로 출전하지 못했지만 '초비' 정지훈이 이상혁의 공백을 완벽하게 지웠다.

항저우=배영은 기자



“2008년 최고기 파동 때 '아내의 유혹'이 등장한 것처럼 정치나 사회에서 희망과 비전이 안 보일 때 막장드라마가 득세한다”면서 “지금은 경제와 기후 위기까지 더해져 곧 인류가 멸망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 재난물이나 오컬트처럼 공포 속에서 성찰을 주는 진지한 작품도 나오지만, 마약주사처럼 자극만 밀어 넣어서 현실의 불안과 공포를 잊게 하는 막장도 판치게 된 것”이라고 말

했다. 하지만 이제 막 중반에 진입한 만큼, 얽히고설킨 관계망이 정리되고 휴머니티가 힘을 얻으면서 시청자를 설득시킬 지도 모른다. 조지선 교수는 “모든 드라마가 인간적인 요소를 담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다. 악이 판치는 독한 드라마를 끝까지 견디며 보는 이유는 결국 소수라도 정의와 선이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면서 “김순

옥은 대중이 뭘 원하는지 아는 작가니,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데서 오는 인지부조화의 불편함이 해결되는 과정을 지켜봐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해외에서도 아마존 프라임의 최고 히트작 '더 보이즈'처럼 섹스와 폭력, 차별 등의 이슈에 대한 극단적으로 끔찍한 묘사가 난무하며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치솟는 드라마가 전례없

는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 현상을 분석한 소논문의 저자 린 주버니스 박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무서울 정도로 현실에 가까운 어둠과 공포의 묘사를 통과하는 허구의 놀이 기구에 시청자들을 태워놓고, 그 안에서 깨끗이 인간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사실적인 캐릭터를 보여주는 것. 그 조합이 바로 대중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일 수 있다.”

유주현 기자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통증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어, 캐쉬플랜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첼트리 지역]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콜로세움 닮은 소극장, 조선 공연·관람 문화 판을 바꾸다

한국 최초의 극장은 어디일까? 공연에 문외한인 사람도 가져 볼 만한 궁금증이다. 요새는 전국 어디를 가나 흔한 게 극장이지만, 따지고 보면 한국의 극장 탄생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질문에 답부터 먼저 하면, 정답은 협률사(協律社)다. 1902년 8월 15일 『황성신문』은 “희대를 봉상시 내에 설치하고, 한성 내 선가선무(노래 잘 하고 춤 잘 추는)한 여령(女伶, 재주꾼)을 뽑아 가르친다”는 기사를 실었다. 협률사 설치에 관한 첫 소식이다. 희대(戲臺)는 극장을 뜻하는 중국식 명칭이다. 봉상시(奉常寺)는 당시 궁궐의 제사와 의식을 관장하는 궁내부 소속기관으로, 지금의 서울 종로 세문안교회 인근에 있었다.

최남선 “런던 로열극장 같은 국립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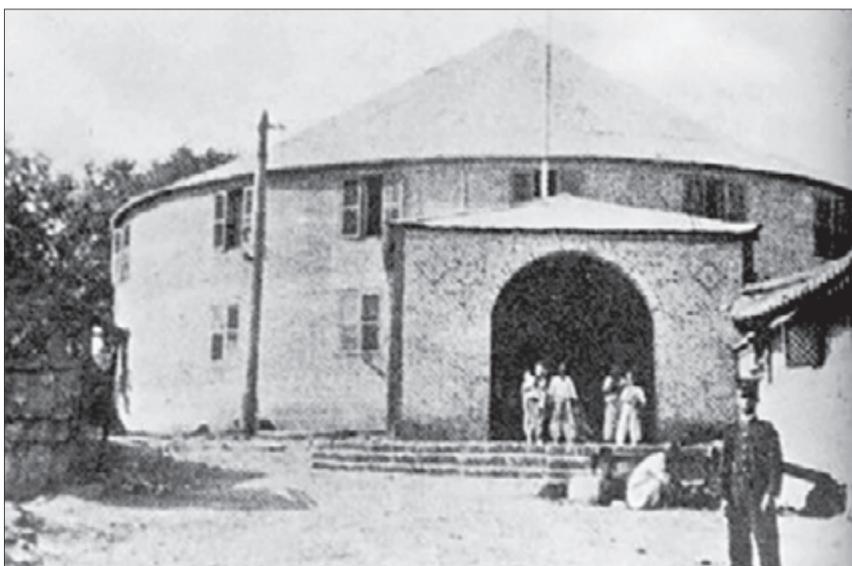
희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전속 연희단체의 이름을 따 협률사로 불렸다. 고종황제의 즉위 40주년을 기념하는 경축 행사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육당 최남선은 『조선상식문답속편』에서 각국 외교사절 등 “귀빈 접대를 위해 여러 가지 신식 설비를 급히 진행할 때, 봉상시의 일부 터에 둥근 벽돌로 로마의 콜로세움을 닮은 소극장을 건설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춤과 노래에 재능 있는 재주꾼들을 뽑아 공연을 연습하게 했다”고 적었다. 이렇게 뽑아 결성된 전속 단체가 협률사요, 나중에 이게 극장 이름이 됐다.

협률사는 종로 도심에 들어선 한국 최초의 실내극장이다. 이 극장이 들어서면서 한국의 근대 공연사가 시작됐다. 다시 최남선의 평가다. “협률사는 규모는 비록 작지만 무대와 층단식 삼방관람석, 인막, 준비실을 설치한 조선 최초의 극장”이자 “런던의 로열극장, 빈의 왕립극장에 비견되는 유일한 국립극장이었다.”

그 이전 우리나라에는 극장이란 게 없었던 말인가. 정확히 말해 ‘실내극장’은 없었다. 협률사의 등장으로 한국은 본격적인 실내극장 시대로 진입하는데, 그것은 곧 극장의 근대화라는 말로 통한다. 무대와 객석이 엄격히 분리되면서 공연하는 사람과 관객의 만남 방식이 바뀌었다. 작품도 변화된 무대에 맞게 ‘새로’ 만들어야 했다. 야간 공연이 이뤄지면서 없던 밤 문화도 생겼다.

그러면 옛날에는 공연을 어디에서 했을까. 조선시대에 판소리와 농악, 줄타기 등 민간 연희는 정자나 누각, 마당 등 야외 공간에서 주로 공연했다. 중세 유럽의 이동식 무대 같은 산대(山臺)도 있었으나, 공연을 상설로 할 수 있는 실내 무대는 발달하지 않았다. 우리 공연예술의 후진성을 지적하는 게 아니다. 그게 우리 전통 공연의 특징이다.

왕실이라고 사정이 다를 게 없었다. 진연(進宴) 등 크고 작은 잔치를 할 때는 궁궐 내에 임시 가설무대를 만들어 사용했다. 여기서 기녀와 무동의 정재(母才, 대궐 안의 잔치 때 벌이던 춤



1902년 종로 봉상시 자리에 세워진 협률사. 500석 규모의 원형극장이었는데 최남선은 ‘로마의 콜로세움을 본뒀다’고 썼다.

[중앙포토]

한국 최초의 실내극장 ‘협률사’

고종 즉위 40주년 행사 위해 설립 춤·노래 재주꾼들 연습시켜 공연

미관 해치던 야외·가설무대 정리 전기 조명 사용으로 밤 문화 탄생

과 노래)가 펼쳐졌다. 한가운데에 공연자의 무대 공간을 확보하고, 임금의 좌우로 객석을 배치해 활용했다.

종로 한복판에 파고든 실내극장은 과거로부터 전해오던 우리나라의 이런 공연 문화를 일거에 바꾸었다. 개화기 근대로 향해 가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였다. 우선 당시 도시 미관의 측면에서 실내와 야외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한성부는 ‘아현동의 무동연희장’ 등 가설극장이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거리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도시 내 활동을 금지했다. 실내극장은 도시화 과정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대안이었다.

서구 문물의 수용이 곧 근대로 통하던 개화기, 실내극장은 근대를 상징하는 자부심이기도 했다. 희대를 “로마의 콜로세움 극장을 본떠 만들었다”거나, 런던과 빈의 유서 깊은 극장과 비교하는 식의 표현에서 그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도시 기반 중 하나인 전기조명을 사용함으로써 공연 제작 및 관람문화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다. 밤 문화가 탄생한 것이다. 전자 운행도 이런 변화에 도움이 됐다. 1902년 12월 협률사의 대표작인 <소춘대유희> 공연은 극장 내의 전기조명과 극장 밖의 거리 조명, 이와 연계된 전차의 야간 운행 기

반으로 기획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 최초의 실내극장’ 협률사의 활동은 오래가지 못했다. 극장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급격한 사회 변화를 당시 황실은 감당하지 못했다. 황실은 협률사가 설립 당시의 초심을 잃고, 창기(倡妓)들이 펼치는 풍기 문란의 온상으로 변질했다는 이유를 들어 설치 4년 만인 1906년 폐지한다. 2년 뒤인 1908년 협률사의 명맥을 이어 재단장하고 출발한 극장이 원각사(圓覺社)다. 이인직은 경시청으로부터 연극장 개설을 허가받아 원각사라는 이름으로 극장 문을 다시 열었다. 개관작으로 자신이 지은 신소설 『은세계』를 신극으로 만들어 선보였다. 『은세계』의 공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신극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예 영업을 겸했고, 매일 7시부터 공연을 시작했다. 나름 성황을 이루어 “매일 수입이 백여 환에 달했다”고 한다.

“사동 연흥사의 연극 밤마다 인산인해”

원각사의 실내 규모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500석 정도의 소극장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근대극 운동의 선구자인 현철은 “수용인원은 500~600명 정도의 소극장이며, 외형은 붉은 벽돌로 둥그렇게 생겼고 지붕은 삼각형으로 뾰족한 회색 양철지붕”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부 자를 배치하고 북쪽으로 연단이 있어 이것을 무대로 사용하였으며, 동남쪽으로 출입문이 있었다”고 했다. 현관과 매표소, 분장실, 신발장, 무대를 밝히는 가정용 전등도 구비했다. 다채히 외형의 윤곽을 가늠할 사진이 남았다.

원각사의 레퍼토리는 대부분 당시 유행하던 <춘향가>와 <심청가>, <흥부가>, <화용도> 등 판소

리였다. 그런데 실내극장으로 오면서 공연 형식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옛날 마당이나 누각, 정자 등 야외에서 소리꾼과 고수 둘이 하던 판소리는 이제 배역을 나눠 부르는 분창(分唱)으로 바뀌었다. 창극의 시발점이다. 관기(官妓)의 가무와 광대의 재담도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국립극장의 위탁 경영이라는 운영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원각사는 개관 1년 뒤에 문을 닫았고, 그 후 명맥만 유지하다 1914년 화재로 소실됐다.

이 무렵 종로를 근거지로 활동한 극장은 원각사만이 아니었다. 비슷한 시기 한국인이 운영하던 극장 여러 개가 지금의 인사동 일대에 산재해 활동했다. 연흥사(1907)와 단성사(1907), 장안사(1908) 등이다. 영화 상영관으로서 앞으로 한국영화사에 중요한 역할을 할 단성사 외에 연흥사와 장안사에 관한 상세한 기록은 별로 없다. 규모 등은 모르고, 당시의 신문 기사를 통해 무엇 무엇을 했다는 정도만 알 수 있다.

현재 종로구청 자리에 있던 연흥사는 한국 최초의 신파극단인 혁신단의 <육혈포강도> 등 신파극 전문극장으로 명성을 떨쳤다. 교동초등학교 근처에 있던 장안사는 1908년 경성고아원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해 관기 100명을 동원한 ‘관기 자선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자선공연을 많이 했다. 특이하게 <삼국지> 등 청나라의 연희도 선보였다.

단성사와 우미관(1912)이 그랬듯이, 새 예술로 부상한 영화(활동사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극장 대부분은 활동사진과 신파극, 각종 연희를 섞어서 운영했다. 실내극장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당시의 상황에서 다목적극장은 불가피한 전략이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대정관(1912) 등 일본인이 운영하는 극장이 사대문 안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주목적은 영화 상영이었다.

실내극장 중심으로 공연 문화가 정착하면서 신문도 점차 관심을 가지고 ‘공연 정황’을 알리기 시작했다. 1912년 4월 2일 『매일신보』는 “사동 연흥사에서 흥행하는 혁신단 연극은 날이 갈수록 밤마다 인산인해를 이룬다”며 “친목회의 경비를 보조할 목적으로 장차 연주회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같은 달 12일 자에는 “원각사에서 공연하던 문수성의 신연극이 기생 연주회로 인해 며칠간 쉰다”는 소식을 실었다.

오늘날 실내극장 없는 공연은 상상할 수 없다. 일찍이 실내극장 전통이 없었던 우리나라는 구한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구식 실내극장을 수용하여 공연 근대화의 초석을 놓았다. 그 시발점이 된 종로는 소극장의 산실 ‘대학로’와 세종문화회관 등을 품고 여전히 한국 공연 문화의 중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정재왕 예술경영가·서울사이버대 교수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하게!

HONEST GRILL

KOREAN BARBECUE GUIDE

"The 100 Very Best Restaurants in Washington"
by WASHINGTONIAN



Starting **19.⁹⁹**
Lunch Dine-in Only

Lunch Combo Special

Monday - Friday 11:30 AM - 3:30 PM

Choice of
Pork or Beef

+

Choice of
Buckwheat Noodle
(Spicy or Cold)

*Lunch only | Dine-in only | No take out |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promotion | While supplies last

Monday Dinner

Dry Age Experience

Dry Aged Ribeye*

79.⁹⁹ → 59.⁹⁹

*Cannot be combined with other promotions/discounts
*Participants must purchase guide(s) and/or a-la-carte item(s) equivalent to their party size in order to be eligible
*While supplies last
*Excluding holidays

Tuesday Dinner

Signature Experience

Signature Beef Guide*

89.⁹⁹ → 69.⁹⁹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promotion
*Signature Experience promotion is limited to only "Signature Beef Guide"
*Any substitution(s) in the guide will incur extra charge(s)
*Excluding holidays

Wednesday Dinner

Pork Madness

Signature Pork Guide*

74.⁹⁹ → 59.⁹⁹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promotion
*Pork Madness promotion is limited to only "Signature Pork Guide"
*Any substitution(s) in the guide will incur extra charge(s)
*Excluding holidays

14215 H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www.honestgrillva.com
(703) 543-2320

RESERVE
YOUR
TABLE
NOW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옹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신**

이상신 · 국종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메가썬킹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10월
구
인
광
고

소자본 비즈니스 하실분

시대에 맞추어 살론 몰에서
살론 비즈니스를 소자본으로 운영하실 분 찾습니다!

Edge

넉넉한 장소안에 개인용 살론 부스를 마련, 1~2명이 작업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제공되며
각방의 개인 열쇠와 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살론 공간은 원하는 대로 배치와 설치, 포인트 색도 바꿀 수 있습니다.

-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위치 (리치몬드 하이웨이 선상)
- 무료 주차 공간 및 고속도로 소비자 지역
-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잘 꾸민 욕실/복도/응접실 완비!
(고객들이 편하게 기다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 주당 \$325(유포) / 청소는 각자 / 보증금 \$2,000 환불가능!

총 \$3,000 미만으로 자영업을 신속하게 개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문의 **703-867-5919** www.EdgeSalonStudios.com

MART Companies 직원모집

모집부서 인사, 영업, 행정, 시설관리, 물류센터

위치 Herndon, VA
Upper Marlboro, MD

자격요건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베네핏 401K, 회사 리조트, 스폰서쉽
보험, 유급휴가 / 병가,
Smart Card, Life Insurance 등

지원방법 이메일

- 이력서 : aaron.kim@hmart.com
- 문 의 : 240-546-0600 ext 222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3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대형 슈퍼마켓 능력있는 매니저를 모집합니다

- 정육부 1명/ 그로서리 1명
- 경험과 능력에 따른 우대
- 은퇴연금/의료보험 제공
- 주말근무 가능하신 분
- 내셔널하버 MGM근처
(495 벨트웨이 EXIT 4A, 애넌데일 10분 거리)

이력서 : jumbo.food@gmail.com
전화 : **703-577-2425** Mr. 박

Jumbo International
Supermarket

FOR SALE

(사업체 판매)

Woo Tire Co.

트럭 중고품 타이어 Shop
DC 노스이스트 공장 지역
30년 동안 운영한 점포
단골 손님 500여 명
타이어 1본 판매 65% 마진
장비 10여 만불 보유

영업시간 : 9am ~ 4pm (5½day)
Rent/월 : \$2,000 (면적 3,000 sf.)

202-258-6384

코웨이 DC 지점 직원 모집

- ▶ 정규직 (Full Time) 직원
- ▶ 콜센터 업무 (고객 응대)
- ▶ 초보자 가능
- ▶ 유급휴가 / 401K 지원
건강보험 (Dental, Vision 포함)
- ▶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이메일 또는 전화로 면접 및 문의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덴탈 어시스턴트 구합니다.

- 파트타임 (월/화/수/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넌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Diamond Nails Spa 매매

(Vienna VA 소재)

- ▶ Sale Price: \$290,000
- ▶ Weekly's Sales: \$6,300 (평균)
- ▶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 SQF, 1층, 2층)
- ▶ 원하시면 건물 매매 가능.
-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 파트너십으로 여러 다양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 ▶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비 동결)
- ▶ 노던 버지니아의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의 장소.

• 주 소 :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연락처 : 571-421-086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일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3년 10월 9일 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구인/구직

〈사무직/세일즈마케팅〉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hr@worldbankcard.net
▶703-333-3100

매년데일 회계사무소
-풀타임가능하신분
-영어와 컴퓨터사용가능하신분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이력서 topcpainfo@gmail.com

**스마트보험에서 역량있는
P&C Specialist 인재를 모집니다.**
*신입 환영/경력자 우대
*401K / 그룹건강보험 / PTO
*H1B/영주권스폰서가능
HR 담당자 : 703-639-0882
▶smartacct@solomonus.com

케어피플 홈헬스 오피스 풀타임 직원모집
센터빌 HR 부서/ 매년데일 Billing 부서
각 1명(컴퓨터, 영어 필수)
▶이력서 : carepeopleinfo@gmail.com

페어팩스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 Janammi0410@gmail.com

Fairfax 보험사무직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유경험 대우 베네핏 제공 \$4만 이상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여행사 오퍼레이션 담당 및 매니저 급구
703-543-2322
▶이메일: ceo@toptravelusa.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베네핏 제공
보험 에이전트 유경험 45k-50k
coverworldgr@gmail.com
▶571-232-0702

코웨이 DC 지점 정규직 직원 모집
콜센터 업무 (고객 응대). 초보자가 가능
한국어 및 영어 가능자 유급휴가, 건강보험
(Dental, Vision 포함), 401K 지원
취업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WBS에서 직원 모집합니다.
Credit Card Terminals, POS 경험자.
업계 최고 대우, 유급휴가, 건강보험.
문의 및 resume:
▶ info@worldbankcard.net.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매년데일 부동산회사-리셉션니스트 구함.
Megarealty@gmail.com
▶703-534-4989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 Quickbook/excel 경험 필수
- 3년 이상 회계업무 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타이슨스 코너 밀에 위치한 시계 및 주얼리
리퍼어 샵에서 영어 능통한 세일즈 하실분
구합니다.
파트타임 & 풀타임
fastfixusa@gmail.com
571-633-0766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구함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Annandale에 위치한 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구함.
703-946-8557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 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luvacct1986@gmail.com

유 재산 공인회계사(Annandale, VA)에서
함께 일 하실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employeehire13@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o.kr
josephleejtbco@gmail.com

CUSTOMER SERVICE, 전산부 직원을
모집합니다. 유경험자 우대합니다.
703-712-7089

Personal Injury firm in Fairfax City is
seeking a full-time legal assistant.
Please email resume to:
Cyoona@davidmarkslaw.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허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
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MD 게이더스버그 달라스타운 구인
매장 스태프, 매장 관리 풀타임,

파트타임 시간 조절 가능
buyandsave9661@gmail.com
443-812-1087(텍스트)

Seeking Full Time / P&C Licensed &
Experienced
-Assistant Manager
- \$70,000/yr
- Paid Vacation & Retirement Plan
Requested contact from Eligible
candidates only:
joshuaoh123@gmail.com
703-973-5900

공인회계 사무실 구인
Full & Part time 직원 구함
Benefit 있음.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 wjkim0111@gmail.com

매년데일 회계사무실 텍스 시즌,
토요일 근무 가능한 파트타임 인턴 모집.
무경험 ok. \$13-15/h. 간단한 이력서
cpaoffice1212@gmail.com

보험회사 직원 구인 (Annandale)
- Full / part time - 컴퓨터/영어 필수
- 유급휴가, 은퇴연금, 월-금
연락처 gpark@withcornerstone.com
301-237-8782

매년데일/센터빌 회계사무실
CPA 또는 EA 자격 우대/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yicompany.com
문의: (703)345-9594 Financial services

NEST Energy LED Sales(영업)사원 구함.
성실히 함께 하실분 환영. 최고의 우대
사상장만 높은 성장가도를 달리는 시장.
E-mail: nestenergy@yahoo.com
Mob. (703)855-3565
Ph. (703)712-7162

페어팩스 지역 AGM 사무직/풀타임
쾌적한 사무실 환경/주 5일 근무
- 이중언어(한국어/영어) 우대
- MS Office (Word, Excel 사용가능자)
- 각종 혜택 401(k) PSP & Group Benefit
- Paid Holidays & Vacations
- 영문 이력서 / HR@agminstitute.org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나투라치과
덴탈 어시스턴트 구합니다.
파트타임 월/화/수/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MD 베데스다 한방병원
바디 /페이셜 마사지사
월드프 지역 도넛가게에서
낮 시간대 함께 일 할 여자분 구합니다.
▶301-609-0432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풀타임
유경력 어시/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x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Fairfax Medical Center 위치한 척추신경
병원에서 마사지 테라피스트 구인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월-토).
시간당 \$50-60 가능합니다.
이력서 : gofrcr@gmail.com

병원에서 일 하실분
Catonsville/ Silver Springs
(영어/한국어가능) 경력자 우대
Manager(Fulltime)
Receptionist(Fulltime)
*Vacation/Sick/Holidays
*Medical Insurance
*401(k) match *Bonuses
Career@nanoommedicalgroup.com
213-378-0144

페어팩스에 위치한 척추신경 병원
월목 오후 2:00PM-8:30PM / 화금 오후
11 AM-5 PM / 수요일은 오펜(10AM-
4PM)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요구됨
일 할 수 있는 신분/ 무경험, 학생도 환영
전화: 703-539-8822

닥터오피스 프론트일 하실 성실하신분
영어 한국어 모두 구사 가능하신
취업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근무시간 월요일~금요일 9AM to 5PM
resume.slim@gastrohealth.com
703-642-0900

페어팩스 성형외과 리셉션니스트 구함
이중언어, 풀/파트타임 월-금.
베네핏: 건강보험, 401k, 유급휴가
초보 트레이닝,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 제출: anyosupa@yahoo.com
703-981-6491 문자요망

페어팩스에 있는 내과
금요일 Nurse Practitioner와
리셉션니스트 풀/파트타임 구함
703-505-0204

메릴랜드 치과공 구인
세라믹파트 경력자 & 딜리버리 기사구인
240-477-5683

치과 직원 구함 경력자 풀/파트
어시스턴트 1명, 경력직 리셉션 1명
Resume email: govaepic@gmail.com
703-574-0528

닥터 오피스에서 오래 일 하실 분
락빌/콜롬비아/센터빌
파트타임, 풀타임, 이중언어
301-580-5777

Annandale에 위치한 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구함.
703-946-8557

센터빌, 첼트리 물리치료병원
Receptionist / 한국어, 영어 필요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치주 임플란트 전문 치과병원
풀/파트 어시스턴트 1명/리셉션 1명
경력직 우대/ 초보자 교육가능
이메일: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오피스 직원구함
센터빌 지역, Full/Partime /한/영 가능
Dental Assistant/Front desk
centrevilledentalcare@yahoo.com
703- 830- 9990

치과 어시스트 / 리셉션니스트 구함
Bilingual (Fluent in English)
Full Time/Part Time available
Rockville, Gaithersburg Area
301-926-9692

〈식당/제과/델리/식품〉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 가능하신분
연봉 5만(현직 이주,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 (취업기회)
영주권스폰서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식당 동업자 구함
한식 주방경험과 약간의 운영자금 가능하며
전적으로 맡아 운영해 주실분!!!
▶202-553-8551

H-Mart Herndon 직원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구인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타일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세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센터빌 Honest Grill 구인
-호스트/호스텔스 월-일 저녁
(저녁 5:00PM 시작)
-Server 월-금 5일 점심
(점심 11:30AM-3:30PM)
시간당 \$20불 보장
▶703-517-6439

매년데일에 위치한 K MARKET 구인
전산부 및 RECEIVING 직원을 모집.
경력자 우대.
accounting@kmarketusa.com
▶703-712-708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TAXI
명인택시
공항 픽업 & 라이드
장거리 환영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703-470-5238
571-246-1942

한식 식당
동업자 구함
매년데일 중심지 한식당
한식 주방 경험자
전적으로 맡아
운영해 주실 분
문의
202-553-8551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SHADY GROVE
BARBER & BEAUTY
구인
게이더스버그
남/여 머리하시는 분
모십니다!
9049 Gaither Rd.
Gaithersburg, MD 20877
301-926-3638
301-538-4246(Soo)

시니어케어 용도 주택 렌트
-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저택
-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 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 Serious Inquiries Only
* Agent 환영
문의
703-244-3453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스프링필드 막창도둑 서버구합니다
443-953-1127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홀 맡아주실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도 해드립니다.
문의사항 (703-473-6022) 연락주세요.

첼트리 Cafe Moment에서
금토 오후 파트타임 구합니다.
703-376-8090

메릴랜드 락빌, 베이커리&버블티
같이 일하실분. 파트타임, 풀타임
703-717-2596

아침 캐시어 구합니다. 높은페이, 시간 조절.
443-621-4951

스프링필드 버지니아 막창도둑
코리안 bbq 서버 매니저 구합니다.
443-953-1127

Elkridge Deli 풀/파트타임 여자분 구함
410-979-9211

델리에서 점심시간 도와주실분
타이슨스 코너지역
703-867-9374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함께일할 홀 담당할
실분 찾습니다 hour pay \$12불 plus tip
시간 11시-8시반까지
703-473-6022

오피스텔리 그릴샌드위치 싸실분 경험자 우
대. 풀타임 (07:00-15:00)
위치: 스프링필드 매트르옴 오피스단지
703-740-7344

케리아웃에서 함께 일하실 분 센터빌에서
가까운, 유/무 경험자, 파트/풀타임
703-955-6962

첼트리 소재 일식 레스토랑에서 함께 일하실
스시맨, 스시보조 파트타임 구함.
센터빌, 첼트리, 헌돈 거주하시는 분 환영.
703-980-3076

센터빌 중식당 서버구함
풀/파트타임 시간조정가능
703-300-7218

오피스 델리에서 일하실분
베데스다 전철역 부근 7AM~3:30 PM
301-785-4706

첼트리 지역 식당 캐쉬어 구함 \$15 / Hour
수, 목, 금, 토, 일 (5일 11시-8시반)
703-341-7912

애난데일 누리치킨에서
주말에 일하실 직원 구함. 학생환영
703-989-9828

센터빌 지역, 베이커리에서 제빵사와
홀에서 일하실 분. 주말 알바, 주중 알바
풀타임, 파트타임 모두 가능
703-414-9000

락빌 정부건물안 카페, 월-금
그릴 샌드위치 하실분 6:30am-3:00pm
703-395-4380

볼티모어 한아름에서 가까운 케리아아웃에서
아침에 캐시어 보실분 구함. 시간조정가능
19불. 캐튼스빌에서 10분거리

443-621-4951

센터빌 지역, 베이커리
제빵사와 홀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주말 알바, 주중 알바, 풀타임, 파트타임
703-772-1800

엘리콧 시티 롯데인 일식당 Ikkyu에서
같이 일 하실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 가능
410-203-9919

매나세스 코스코 앞 아이스크림 가게
주말 주중/ 풀, 파트타임 캐시어 구함
703-463-4004

센터빌 베이커리 카페에서
바리스타, 캐쉬어, 키친팀을 구합니다.
703-810-9318

일식당 파트타임 일요일 휴무 Oakton
571-505-4572

델리 그릴 / 콜드 샌드위치 유경험자 구함
Mon-Fri 7am-3pm 시간 조절 가능
WOW Deli, Gaithersburg, MD
301-990-3254 / 571-232-7717

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일식당에서
스시 또는 스시헬퍼 구함
540-735-5873 (메세지 요망)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첼트리에 있는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커미션을 원하는 미용사 구함.
571-215-6767 (메세지 남겨주세요)

애난데일 해와달(SUN'S HAIR)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나분과(커미션 가능)
리셉션리스트(풀, 파트타임 가능)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703-750-2424
703-717-8256 (메세지 남겨주세요)

마사지, 지압하실 분을 구합니다.
571-237-3411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커미션이나
부스렌트 원하는 미용사 구합니다.
정확한 위치와 자세한 내용 전화/문자 요망
571-215-6757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렌트 한.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문자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301-852-9298

첼트리에 있는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커미션 개인 비즈니스 원하는 미용사 구함.
(메세지 남겨주세요)
571-215-6767

Stafford에 있는 이발소
경력있는 이발사 매니저를 구합니다
571-278-3701

알렉산드리아 지역 이발사 구합니다.
703-408-1119

중앙일보 광고 및 구독
Tel. 703-281-9660

애난데일 해와달 미용실
헤어디자이너/리셉션리스트(파트타임 가능)
703-750-2424 메세지 남겨주세요!
703-717-8256

샌스바버(롤톤)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 분
703-781-8458

<세탁/일터레이션>

카운터보면서 바느질하실분.
파트타임, 풀타임, 엘리콧시티.
410-750-048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스톨에서
파트타임 하실 분
연락처: 703-300-4959

엘리콧시티 픽업스토어
바느질하는 분. 9-6 목요일.
410-926-3200

Alteration 하실분 Lorton VA
703-599-5331

버지니아 패어팩스 지역 세탁소
올터레이션 & 캐쉬어, 재킷 프레스 구함
301-404-0701

셔츠, 바지 다리실분 주3일
Upper marlboro (largo) MD
703-850-3714

세탁소 카운터, Stafford VA 파트 or 풀타임
703-618-9872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 240-246-4477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일하실 분
폴스처치 지역
703-577-5866

자동차 정비 / 헬퍼 경험자 구함.
유경험자에 한함/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함께 성실히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조지아 한인타운 돌루스에 위치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정비사(경력자) 구함
678-417-1567 문자요망
678-557-1567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
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5805/ 정

Mill Work Installer 구합니다
캐비닛 & Pennel (wood work)
헬퍼 및 기술자 구함 (몽고인 환영)
571-233-7982

리모델링 과 토치수평 잘하시는 목수 구함.
443-542-1200

유경험 플러밍, 파트타임, 하이페이
703-625-0082

가구와 캐비닛 공장에서 일할 분
Stain & Paint Finish Worker, 안정된 수입,
성실한 분. www.hdplusinc.com
703-859-2499

집수리에 관한 모든 일 (리모델링/수리/택)
20년 경력의 핸드맨이 작은일도 확실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상담 환영)
571-531-1019

<기타 구인/구직>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 443-828-7777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콧시티, 메릴랜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256-0606

맥클린한국학교 교사모집
(유치부, 초등부) 토요일 / 9:30-12:30
autumn379@gmail.com
▶ 571-235-8997 /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창고서 함께 박스 배달할 분을 구함.
신분상관없음.
571-242-3736

에버그린 헬스 케어 매니지먼트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홈헬스 HR/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빌딩 청소 하실분 파트타임 남여 1명
장소 칼레지파크 MD 경험자 우대
703-725-1233

메릴랜드에서 입주하셔서 아이 셋과
가사일 도와주실 분 구함. 운전 필수
연락처 301-257-1787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 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어시스트 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 분.
경험자 우대. 속식하실분.
410-961-3012

고고투유에서 책임감 강한
딜리버리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고정급 있음
연락처: 703-505-5211

에쉬번 지역 9개월 아기
일주일에 2일씩 주실분.
571-438-140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첼트리 지역 밤에 청소하실 부부팀 원함
443-966-5196

가구장사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571-274-5264

수퍼마켓(스털링, 버지니아)
웨어하우스에서 Seafood 및 Supply
구매하실분 모집.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마이클 임 703-665-2162

인쇄달력회사/마케팅을 함께할 직원구함
571-242-3736

Part time Tysons Corner/Great Falls, VA
애들 등교, 학교 도와주고 간단한 식사
도와주실분 전화주세요. 운전 필수.
917-886-1884

빌딩 청소 및 잡일 월-토 (7AM-12PM)
위치: Oxon Hill, MD
240-903-0777

부동산 렌트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타운하우스 (Manassas Park) \$2,100
방3, 화장실3, 리모델 부엌, 나무마루,
Fenced Back Yard, 교통편리
▶ 703-477-3114

타운하우스 비엔나 \$3,400. 방3, 화장. 1/2
차고 2. Walkout Basement, End Unit.
Updated Kitchen, Fenced Backyard. 나
무마루. Deck. 매트르역 바로 앞. 즉시 입주!
▶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 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저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 Serious Inquiries Only
* Agent 환영
▶ 703-244-3453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글로리아 워싱턴 선교단

단원 모집

《매년 지역 선교 예술제 공연》

주요사역

울동으로 찬송가 & 복음성가 워싱턴 공연을 사모하는 모든 분 환영합니다!

단원 희망자, 영적/물적 후원 원하시는 분 문의 문자 주시면 연락드립니다.

서재진 원장
619-873-7323



Crabs 10월부터 알베기 판매

식당 동업자 구함

주방장 경험과 약간의 운영자금 가능한 자

Crabs wholesale MD·VA
202-553-8551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시?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달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junk292.com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3년 10월 9일 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방 4 화 3. 소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 3 화 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Maryland Clarksburg 즉시 입주가능
End unit 벽돌집 Townhouse rent
월 \$3,000 방 3, 화장실 2, 반화장실 2
차고 2 넓은 Deck, 부엌 updated
Hardwood floor, 걸어서 Harris Teeter
연락처 Mrs. Cha
301-775-9215

에쉬번 방 4개 화 3개 벽돌 타운홈
학군 좋음 2015년 집. 쇼핑몰에서 1분거리.
267 에서 1분거리
202-743-8886

벤든 메트로 옆 타운 홈 \$2,850
방 3, 화 2 1/2, 차고 2, 새 부엌,
새 냉장고, 전체 새 페인트
703-489-6926

게인스빌 타운홈, 방 3, 화 4, 1952sqft,
2차고, 2018년, 엔드유닛 창 많은 타운홈
703-762-6759

센터빌 H마트 2~3분거리, 타운 홈
방 4, 화장실 4, 차고 2
571-882-4473

매나사스 코스코 근처 방 3, 화 2, \$1900 New
paint, dishwasher, range,
air conditioner, 즉시 입주 가능
646-419-0022

Fairfax, 방 3+다락방, 화장실 2
Oakton HS, \$2500
703-585-4183

센터빌 타운홈 \$2,950
방 3, 화 2.5 쇼핑몰&한국마켓 도보 3분
925-900-3918

Centreville Town Home
6401 McCoy RD, Centreville, VA 20121
Rent - \$2,400, 방 4, 화장실 3
Basement, 지하출입문 별도
571-245-1495

센터빌 3층, 엔드유닛 타운홈 \$2,700
방 3, 화 3.5, 차고 1개, 덕
많이 업데이트된 밝고 환한 집
703-489-6926

〈콘도 렌트〉

콘도(Alexandria) \$2,600 / 즉시 입주 가능.
방 2, 화 2, Elevator, 5층, 최고급콘도,
나무마루, 리모델 부엌 & 화장실,
Alexandria 다운타운 근처, Amenities 좋음.
▶703-477-3114

2005년 새콘도(Fairfax) \$2,100 / m
방 2, 화장실 1, Metro 역 걸어감.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SS Appliances & Granite
Counter Tops, Washer & Dryer
▶703-477-3114

콘도(Annandale) \$2,100/m
방 2, 화 2, 넓은 리빙룸, 숲이 보이는 넓은 발코
니, Washer & Dryer. H-Mart 가까운 동네.
▶703-477-3114

애난데일 H마트 입구 콘도.
방 1, 화 1. 파킹 2. 12월 초 입주
\$1500
(703)268-8669(처음은 문자)

10월 1일/초순경 ANNANDALE의 콘도
같이 입주할 분(남녀독신 불문).
비흡연자/비음주자/비마약자 선호.
직장인/자영업자/은퇴자 환영.
본인: 전문직 종사자임.
571-390-3989(문자로만 연락바람)

헤이마켓 콘도 차고 1, 방 3, 화 2/1, 2215sq
703-489-6926

애난데일 방 2, 화 1, 렌트 \$1600, 전기요금 별도
703-403-8918

Falls Church Condo 렌트
방 2, Metro/66도로 모두 갖추어진 깨끗한
집, 렌트 (\$1550+ condo fee)
703-336-3283

콘도 (단기렌트) 방 2, 화장실 2개, 가구일체
사용가능 수영장, 탁구, 테니스, 골프 18홀
301-466-1888

〈방렌트〉

설악가든 근처, 잠만 주무실 분
방 1, 화 1, 금연자
(571)243-6295

실버스프링, 넓고 조용한 싱글홈 아래층
원룸스타일 취사가능. 인터넷 출입문 별도
240-543-6427

지하방 깨끗한 집 즉시 입주가능
볼티모어 UMBC 가까운 곳
443-240-7606

즉시 입주, 애난데일 H-Mart 근처 콘도,
아주 조용하고, 깨끗하고, 편리한 동네,
독신남녀 환영. 완전 취사가능. 가구완비.
이름 & 이사 날짜, 문자로만
571-251-0354

페어팩스 비엔나 전철 근처
원룸식 방 렌트, 직장인 남자 환영
703-419-0337

버크 싱글홈 반지하 전체 별도 출입문,
방, 거실, 욕실, 키친, 세탁실, 인터넷, 유모,
금연 남자직장인 및 학생 환영
571-216-4775

Fairfax NOVA, GM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모, 취사, 인터넷, 방 1개 \$600
방 2개 \$1000, 여자분 환영
571-214-0188(문자 바람)

Burke H-Mart 10분거리
유모,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환영
703-678-7833(문자 바람)

타운홈 지하방. 화장실, 샤워룸, 리빙룸,
키친 세탁룸, 단독 아파트 처럼 사용가능
페어랙 Walmart 근처
문의 : 571 217-2224(Mr Kim)

원룸 스타일. 욕실, 키친, 침대, 책상, 옷장.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571-232-6052

방세 동음, 개인집 방 1개 욕실 샤워 별도
엘리베이터 롯데 8분
301-326-5303/702-622-8853

애난데일 예촌 앞 방세 놓습니다.
2층 방 2개, 워크아웃 1개
772-529-8675

버크 월마트 도보로 5분.
깨끗하고 환한 타운하우스 1층. 방 1, 화 1,
(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싱크, 옷장, 식탁)
워크아웃, 주차 가능. 여성분(학생 환영)
202-505-0678

495,395 5분 거리 교통 편리한
스프링필드 지하방 세 놓습니다
703-898-2696 메시지 부탁합니다

애난데일 싱글 아래층. 노바, GMU, 495, 6분
침대 가구 취사가능, 여자분 환영.
571-205-0903

넓고 조용한 단독주택 아래층. 출입문 별도
간단한 취사가능, 넓은 방, 거실 쓰실 분
실버스프링 한아름, 롯데 10분거리
240-543-6427

Annandale 방 렌트, Townhouse
밝고 조용한 뒷층방, 마루, 유모함,
교통편리함(private bathroom)
여자분 환영. 문자 보내주세요.
문의: 571-345-8879

센터빌 싱글 지하 방 2, 거실, 조용, 주방, 세탁,
출입문 별도, 주차, 즉시 입주, 남학생, 직장인 환영
703-336-7631

단독주택 2층 방/주차 가능/인터넷/
가구완비/냉장고 별도/여자분 환영/
MD Burtonsville, 29번과 198번 만나는 지점
240-413-2728

BURKE Townhouse. 깨끗하고 환한 1층.
방 1, 욕실 1, 간단한 취사, 주차 가능
냉장고, 전자렌지, 인덕션, 옷장, 식탁
(학생환영), 도보로 Walmart 5분 거리
202-505-0678

버크 스테이션, 방 1, 화 1, 간단한 취사,
주차 가능, Walmart 근접. (여자분, 학생 환영)
202-505-0678

버크 베이스먼트 전체, 워크아웃 별도 출입
방 2, 욕실, 주방, 거실, GMU,
NOVA 10분, 2인사용 가능

703-887-8968(문자)
조지메이슨대학 근처 렌트
웨어팩스 Hmart 도 가까운. 반지하 지하실
출입문 별도, 부엌에 싱크 새로 만들.
세탁실 있음. 조용하고 안전한 개인주택
703-389-4615

지하전체 간단취사가능. 주차, 인터넷, 유모.
GMU 근처. 타운하우스
408-691-4775

애난데일 조용한 싱글홈 워크아웃 지하 큰방.
풀 배스, 세탁실, 간편취사. 출입문 별도.
주차 편리. 문자 연락 요망.
703-853-9955

메릴랜드 그린벨트 나사 근처
조용하며 교통 편리, 작은 방 \$350
301-379-9660

싱글 하우스 방 렌트 스프링필드
495/395 5분거리
703-750-2795

페어팩스 몰 근처 싱글홈 1층 출입문 별도,
방 2, 큰 거실, 큰 부엌, 화장실
571-525-4220 mr. 권

395,495 2분거리, 백클릭 근처 타운하우스
1, 2층 전부 렌트 가능. 아님 2층 화장실 딸린
방하고 리모델링한 지하 각각 렌트 가능.
취사 가능.
703-403-8918 (Lee)

페어팩스 쾌적한 숲속 환경 타운하우스,
밝은 채광, 2층, 노바 5분, 조지메이슨 5분
남학생 환영. 문자만 가능.
571-554-4224

페어팩스 지역 도보 3분거리 GMU 대학교 근
처 밝고 넓은 거실 방 1 워크아웃, 여자분 환영
347-421-7894

페어팩스 지역 조지메이슨 대학교
걸어서 3분거리 옷장 방 1개 화장실
주차 편리 조용한 여자분 환영
347-421-7894

센터빌 브라더로드 조용한 집
싱글홈 방 1 렌트 욕실 인터넷
703-909-1609

센터빌 CVS 근처, 지하 전체 렌트, 새 카펫, 화
장실, 키친, 간단식사, 출입문 별도 유모. 문자
571-243-7027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화장실, 샤워,
인터넷. 출입문 따로 되어 있음
출퇴근하시는 직장인 남자분 한분 원함.
703-405-9005

방 1개 렌트, 옥트/비엔나 지역 인터넷, 1파
킹, 세탁기 & 건조기, 부엌 사용 가능, 비엔나 메
트로 5분, 교통 편리(메트로 버스)
남자/유학생, 직장인 환영. (문자요망)
703-593-7569

지하 방 2 넓은 공간에 세탁기 있는
New condition (Lorton VA)
703-501-8044

애난데일 서울순대에서 5분거리.
여자분 환영. 차 없으신분
703-622-2033

Fairfax Brigade Ln 큰 방 1, 큰 옷장,
별도 큰 욕실, 책상 침대, 침구, 세탁,
유틸리티 포함. 여자분 환영 \$850/m
703-919-2661

MD 저먼타운 싱글홈 욕실 딸린 큰 방 1 하고
반지하 방 1 출입문 별도, 인터넷, 가구완비
301-538-1438

애난데일 한인타운 중심가/조용한 아파트, 버
스 교통 편리, 널찍한 주차장, 가게/식점도
보거리, 깨끗이 리모델링 된 아파트,
비흡연자, 즉시 룸메이트로 들어올 분.
571-781-2938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 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

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900, 와이파이, 이,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 주차장.

703-966-9937
〈싱글/타운/콘도 매매〉
콘도 (Fairfax) \$395,000
방 1 * 큰 Den. 화장실 1. Metro 역 걸어감.
SS Appliances, Granite Counter Tops.
Laminate Floors. New Carpet. New Paint.
New Washer & Dryer. 편리한 1층 (출입문
거리 & 건물)
▶703-477-3114

Centreville \$499,900 타운하우스 방 4 화
3 1/2 Brick Front. 나무마루. New paint.
Updated for Washier, Stove, HV/AC,
Water Heater. Open Floor plan. 교통 편리
▶703-477-3114

Alexandria 콘도. 방 2 화 2 호수가 보이는 편
안한 동네, 밝고 환한 콘도 Washer & Dryer.
넓은 부엌, Counter Tops. 1층. 넓은 Patio.
Costco & Walmart 가까움. \$229,000
▶703-477-3114

Centreville 콘도 방 2 화 2 Fire Place.
Washer & Dryer. Tops Floor. Three Ceiling
Fans. 넓고 편안한 Balcony. 교통 편리. Lotte
Mart 가까움. \$299,000
▶703-477-3114

콘도 애난데일 \$400,000
방 2 화장실 2. 1 Car Garage, Top Floor.
밝고 깨끗한 집. New Carpet, Updated
Bathroom. 새 페인트. 나무마루, New HVAC.
SS Appliances, Granite Countertops. 숲이
보이는 Balcony. 1,116 sf 우리 어메리칸은
행군 처차 3대 파킹 할 수 있음.
▶703-813-8949

Lorton 타운하우스. 1 Car Garage 1999년
산 방 3 화 2 1/2 총 2,252 sf 2 Level Bump-
out. 9 Feet Ceiling. Walk-in Closet. Vatted
Ceiling 있는 안방. 넓은 Recreation Room.
3 Level. Bay Window. \$549,000
▶703-477-3114

콘도 센터빌 \$325,000
방 2, 화 2, 1038 sf 잘 관리되고 Update 된 집.
SS Appliance, Granite Counter Tops
탁트인 구조, New Window & Dryer. 숲과
파킹장이 보이는 넓은 발코니. Lotte Mart 근처
▶703-813-8949

센터빌 콘도 전체 렌트, 1층, 전체 마루,
방 1, 화 1, 폴사이드 세탁기, H-Mart 근처
▶703-813-8949

Centrevill 타운하우스 \$559,900
방 3, 화 3 1/2 1,452 SF
Finished Walkout Basement.
Updated Kitchen, Hardwood Floors.
탁트인 부엌과 리빙룸. Deck
▶703-813-8949

Haymarket, 럭셔리 타운홈 세일
\$620,000. 2car, 방 3, 화 3.5,
Walkout Basement, 마켓에 아직 안 나온 집.
571-567-5797

센터빌 2층 타운홈 \$434,900
방 3, 화 2.5, 센터빌 하이, 리버티 미술 학군
703-489-6926

〈부동산/상업용 매매〉

Vienna VA /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 \$290,000
. Weekly's sales : \$6300. (평균)
. 단독 건물 단독 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드너십 / 여러 다양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 Rent : \$7880 (모든 것 포함)
(10년 렌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
고에 장소입니다
▶ 571-421-0863

For Sale (사업체 판매) Woo Tire Co.
- 트럭 중고품 타이어 Shop
- DC 노스이스트 공장 지역
- 30년 동안 운영한 점포
- 단골 손님 500여명
- 타이어 1분 판매 65% 마진
- 장비 10여 만불 보유
* 영업시간: 오전 9시 - 오후 4시 (5 ½ day)
* Rent/월: \$2,000 (면적 3,000 sf.)
▶ 문의 전화: 202-258-6384

DC. Liquor Store 매매 : \$260,000
연매상 : \$780,000. 6일. 용자. 부부 운영
571-242-3736

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 오전 7시 - 오후 3시 / 주매상 4천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바람)

페어팩스 픽업 세탁소 매매
주매상 \$4,000, 렌트 \$2,700(캠포함)
좋은 지역 & 매상 해마다 오르는 중
571-314-1433

애난데일 마트 안 한중식 8만불 메세지주세요.
703 424 6451

버지니아에 있는 미용실 찾는 분 연락주세요.
(오후 6시 후 문자주세요)
571-277-7758

볼티모어 머니먼트 근처에 컨비니언 스토어
남자 혼자 운영 월-토 9-5
순수입 월 \$3,600 / 매매 6만 / 스탁 8천
443-472-8820

상업용 건물/정비소, 중고딜러차 등등
할수 있는 곳 건물 팝니다. 문자요망
703-946-9901

센터빌 지역 크라운 브릿지 덴탈랩 매매
Serious buyer 분들 연락바람.
703-582-8689

센터빌 지역 크라운 브릿지 덴탈랩 매매.
Serious buyer 분들 연락바람.
703-608-0522

세탁소 매매 Upper marlboro, 좋은 장소
703-850-3714

마켓내 상업용인 한식·중식 식당하실분!
703-638-8876

랜드버에 있는 깨끗한 델리, 장비포함 7만 주
인이 나이가 있어 이젠 정리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비전이 있는 곳입니다
(산림) 240-381-1615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re - 40년 경력
▶▶ 703-569-8000

버크레이크에서 멀세레이크까지...
일요일 아침 8시 버크레이크 헬터 C에서
모여서 멀세레이크까지 오솔길 6.5 마일
(2.5 시간 소요) 걷는 운동 모임.
숲속길 걷기를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703-939-5223

명인택시
공항 픽업 & 라이드 장거리 환영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703-470-5238 / 571-246-1942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장기 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
봐 드립니다.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노바 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촌 2분거
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고춧가루 팝니다. 보통맛 / 매운맛
직접 농사지는 태양초 고춧가루
맛있고 건강에 좋은 무공해 100%
빛깔 좋은 태양초, 좋은 가격 / 신용품질 보장
▶703-470-5238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요정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 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 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남성골프채 DRIVE
1) 일제 KAMUI ASIRI 고반발 Gold 10도 / R
\$ 600
2) PXG 0811x+PROTO 10.5도 / R
\$170
301-717-7960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8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 주택,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 ▶ 욕,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 ▶ 플로밍,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중앙유리

사위도어/자동문/식탁유리/거울장식
특수 유리 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T. 703-894-7200

8002-A Haute Ct, Springfield, VA 22150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무료견적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Door to Door Service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VA/DC/MD ↔ NY 정기운행
- 쓰레기 처리가능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귀국, 타주 차량운송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신용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사위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ICC인가업체
타주이사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해외이사 ◆ 100% 자체보험으로
시내이사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티 허가, 인스펙션 도와드립니다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703-855-356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K14, K18, Setting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용자

마이클 장

NMSI Inc. NMLS #201332

주책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301-275-1494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 집 안팎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l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텍,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BBG 블라인드
비지니아 VA/MD/DC

- 전제품 한국산 블라인드
- 친환경 원단, 하이 퀄리티
-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 한국산 줄없는 블라인드
- 한국산 버티컬 블라인드
- 한국산 오동나무 블라인드

무료 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지붕 / 사이딩

루핑, 사이딩이 필요하십니까?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Before During After

무료 견적 & 인스펙션

영업직 직원 구함 경험자 우대

주거용 및 상업용 모든 유형의 지붕을 설치합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Roofing Siding Window Gutter Cabinet

MY ROOFERS
마이 루퍼스

전화번호. 703-760-3161, Cell. 703-944-9200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Dad: So how's your leg coming along?
아빠: 그대 다리는 어떠니?
Mark: It's okay. It still hurts to walk on it.
마크: 괜찮아요. 아직 걸으면 아프긴 해요.
Mom: How long did the doctor say it will take to heal?
엄마: 의사는 얼마나 있어야 낫는다고 하던?
Mark: About six weeks.
마크: 한 6주 정도요.

Mom: I just wish you didn't have to choose football. Why not baseball?
엄마: 꼭 풋볼을 안 해도 좋으려만. 야구는 안 되니?
Dad: Or ping-pong?
아빠: 아니면 탁구는?
Mark: I love football Mom. I'll just have to take it one day at a time.
마크: 전 풋볼이 좋아요 엄마. 서두르지 않고 다

친 것부터 해결하고요.
.....
기억할만한 표현
▶ How is (something) coming along?: (무엇이) 어떻게 돼가고 있니?
"I'm hungry. How is dinner coming along? Can we eat soon?"
(나 배고파. 저녁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 금방 먹을 수 있어.)

▶ Easy does it: 조심스럽게 하다.
"Easy does it. Let's put the piano down slowly. Don't drop it."
(살살해. 피아노 천천히 내려놓자. 놓치지 마.)
▶ in no time: 금새, 재빨리.
"He ate his breakfast in no time because he was late for work."
(그는 직장에 늦게 돼서 아침을 급히 먹었어.)

take it one day at a time; 서두르지 않고

(Mark a high school athlete who injured himself in an accident is talking to his parents...)
(사고로 부상을 입은 고등학교 운동선수 마크가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눈다...)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가로열쇠

(1)추석 (3)겨울을 나기 위하여 드는 비용 (5)사람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소리나 기색 (6)계절이 바뀌는 시기 (8)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우리 같은 ~에게 가장 절친한 친구는 술이죠 (10)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육지에 이어진 땅 (12)마소를 먹이기 위하여 말려서 썬 짚이나 마른풀. 아버지께서는 일찍 일어나셔서 쇠죽을 끓이기 위하여 ~을 써셨다 (13)지구를 본떠 만든 모형 (15)원본을 베끼 (16)시골 길가에서 밥과 술을 팔고, 돈을 받고 나그네를 목계 하는 집. 이 ~은 내가 지난해에 이 마을을 지날 때 하룻밤 묵었던 곳이다 (19)갑자기 일어나는 발작성의 머리가 아픈 증세 (21)환자를 돌보아 주는 사람 (23)한국 전통 현악기의 하나. 밤나무와 오동나무를 붙인 통 위에 여섯 개의 줄을 걸어 만든다. 소리가 깊고 장중하다 (25)떡의 썬 사이에 깔거나 떡의 겉에 묻히는 것 (26)생명을 위협하는 타격

세로 열쇠

(1)하루 낮의 반 동안 (2)훌륭한 업적을 이룩한 뛰어난 사람 (3)낚시에서, 낚은 물고기의 길이가 한 자가 넘음 (4)물고기, 동물의 피에서 나는 역겹고 매스꺼운 냄새 (6)실제로 나지 않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현상 (7)기초가 되는 바탕. 사물의 토대. 3년 만에 그의 사업은 튼튼하게 ~이 잡혔다 (8)곡식을 씻어 내어 부엌에 된 물 (9)대열의 앞에서 기를 들고 가는 사람 (11)지방자치단체인 도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최고책임자 (12)이것을 가진 사람의 모든 소원을 성취시켜 준다는 주옥 (14)반달이나 모시조개 모양으로 빚어서 솔잎을 깔고 찐 떡. 흔히 추석 때 빚는다 (15)배가 아픴 (17)한 막이 끝나고 다음 막이 시작될 때까지의 동안 (18)골이나 바스켓 안에 공이 들어가는 것. 득점 (20)궁중의 대표적인 떡으로 임금의 탄신일에 올랐던 귀한 떡. □ 텃떡 (22)야구에서, 주자와 타자가 모두 아웃 되는 타격 (23)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는 인물 (24)별레가 실을 내어 지은 집

스도쿠

5	6					9		
			9			3	2	5
				5	9			6
								4
	1				3	5		
	4	5						3
				1		8	5	
						7		1
	2	8			4		6	
1		4				3	8	

자료제공 = 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7	8	3	5	9	4	6	1
3	5	9	1	4	6	8	2	7
1	6	4	7	8	2	3	5	9
6	4	5	8	9	1	7	3	2
9	3	1	6	2	7	5	4	8
7	8	2	5	3	4	9	1	6
4	9	7	2	6	5	1	8	3
5	2	3	9	1	8	6	7	4
8	1	6	4	7	3	2	9	5

①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_____ EXP. DATE: / / month year	카드 뒷면 3자리 CVS: _____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____ 년 ____ 월 ____ 일 서명 (sign): _____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3일 후부터 배달되며 3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월드뱅크카드서비스]

WBS POS는 앞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www.worldbankcard.com

최신
POS 시스템

최저
가격 보장

- ◆ 간편하고 쉬운 POS
- ◆ 재고 관리 기능
- ◆ Warehouse와 Multi-Location 관리 가능
- ◆ 고객 멤버십과 기프트 카드 가능
- ◆ CUSTOMIZE 맞춤형 POS 가능

※ POS / ATM / 크레딧 카드 터미널 문의 환영(Apple Pay 됩니다.) 

WBS의 목표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보다 높은 이익성과 안정적인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객맞춤서비스**
동종 업체가 따라올 수 없는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로컬 담당자**
고객님들의 요청에
언제나 응대할 수 있도록
지역마다 담당자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경쟁력있는 제품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전문적인 지원**
모든 고객분들을 위해
연중무휴 언제 어디서나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24시간 365일 친절한 한국어 서비스
상담/문의 환영 703-225-5500
1-800-WBS(927)-5675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ww.worldbankcard.com

